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  
- 최종보고서 -

2013. 12. 10.

국립장애인도서관

## 연구진

강창욱(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원성욱(한국재활복지대학교, 수화통역학과)  
허일(한국재활복지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김혜주(한성대학교)

## 자문진

황금숙(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미영(한국정책개발원)  
이미혜(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김상화(경기도농아인협회)  
김미경(서울삼성학교)  
황선희(서울농학교)  
김유미(한국농문화연구원)  
김주희(소리를보는사람들)

# 목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가. 문제 제기	1
나. 연구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 내용	10
나. 연구 방법	12
3. 연구진행 경과 및 현황	17
4. 용어의 정의	19
5. 연구의 제한점	20
II. 이론적 배경	21
1.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특성	21
가. 청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21
나. 청각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24
다. 청각장애인의 문해 특성	27
라. 수화언어의 특성	35
마. 농사회와 농문화	49
2. 외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50
가. 미국 테네시 주 네쉬빌 도서관	51
나. 영국 RNID	68
다. 일본 히라카타(枚方)시 시립 중앙도서관	78
라. 국제도서관협회	82

Ⅲ.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시범 운영	87
1. 시범 운영 절차	87
가. 기반 조성	87
나. 프로그램 개발	89
다. 운영환경 구축	90
라. 운영	91
마. 평가	91
바. 모델 및 매뉴얼 개발	92
2. 청각장애 교육·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	93
가. 추진 계획	93
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96
3.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146
가. 추진 계획	146
나. 운영	149
다. 수화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51
4. 청각장애 정보서비스 운영	153
가. 추진 계획	153
나. 운영	160
다. 평가	173
Ⅳ.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및 지침	181
1. 거점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181
가. 물리적 환경 구축	182
나. 인적 환경 구축	182
다. 정보접근 환경 구축	184
라. 자료 환경 구축	202
마.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05
바. 청각장애인구 대비 지역별 청각장애 도서관 요구 수	211

2. 청각장애인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표준 매뉴얼 .....	213
가. 교육·문화프로그램 설계 흐름도 .....	213
나.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공통 매뉴얼 .....	214
다. 교육·문화 프로그램별 상세운영 매뉴얼 .....	219
3.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매뉴얼 .....	225
가. 청각장애 특화프로그램 설계 흐름도 .....	225
나. 청각장애 특화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225
4.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모형 및 매뉴얼 .....	237
가.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설계 흐름도 .....	237
나. 청각장애 정보서비스 운영 매뉴얼 .....	240
V. 결론 .....	247
1. 요약 .....	247
2. 정책 제언 .....	249
<참고문헌> .....	256
<부록> .....	259

#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가. 문제 제기

청각장애인은 청각의 장애로 인해 정보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각장애는 ‘듣기장애’라는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고, 듣기장애는 언어습득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여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로 발전하고, 학령기 학교 교육에서는 교과 지식 학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의 대부분 자료가 문자적 정보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도서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들(국립장애인도서관, 2012; 강숙희, 2009, 2011; 김혜주 외, 2010; 오동근·윤수진, 2009)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도 도서관 이용의 고객이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증적 대처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사서교육 중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노력들이 단기간에 청각장애인을 도서관으로 불러 모을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청각장애인들도 도서관에서 유익한 정보 접근을 통해서 삶의 질을 더욱 높여가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진단해봄으로써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을 통한 정보접근은 첫째,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어떤 내용으로 제공할 것인가, 둘째,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 셋째, 가공된 정보를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농사회를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집약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의 의미는 도서관 이용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보편성 측면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반 청인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이용하여 정보 접근과 습득을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특수성 측면에서는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과 생활 중심의 기초지식 기반 형성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이해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청각장애인이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는 첫째, 현재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통합형 도서관 형태,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공공도서관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별 청각장애 거점도서관 형태, 셋째, 일반 공공도서관과 분리된 청각장애 전문도서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Normalization의 철학적 기초 위에 장애인의 완전통합은 UN을 비롯한 현대 장애인 관련 문화와 교육에서의 주된 경향이다. 이런 철학과 시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도 분리된 형태의 도서관 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된 형태의 도서관을 지향하게 된다.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완전하게 접근하려면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거점 도서관을 지정하고 그 거점 도서관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찾는 청각장애인 내방자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은 지역별 공공도서관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을 지정하여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청인들과는 다른 수지언어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한다.

청각장애인들은 듣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각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음성언어를 기초로 하는 학교 교과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가 9세 벽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언어는 단순히 듣고 말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그

사회의 문화를 담아 생각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어 한국어 음성언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어 음성 체계를 바탕으로 문자화된 정보로 가득 찬 도서관이 그렇게 가깝게 다가와지질 않는 것이 어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기초적 언어습득의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 차원의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대체 의사소통 방법으로 독화나 문자 등과 같은 보조적인 시각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 또한 한국어 체계와는 다른 언어체계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동일한 어려움으로 다가선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언어인 수화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양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수화는 음성언어인 한국어와는 다른 형태 및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외국어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우리말과 글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이중 언어 사용자 내지는 다문화 집단으로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서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각장애인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문화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인식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배려가 사려 깊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그들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법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필요성과 도서관 이용 능력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청각장애인의 지적 능력은 일반 청인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특히 한국어 읽기 성취도에 있어 대개 2, 3학년 수준 혹은 최대 4, 5학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은 물론 도서관 등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청인이 외국어로 된 자료를 봐야할 때 느끼는 불편과 유사하여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국립장애인도서관, 2012년) 연구에서 많은 청각장애 성인이나 학생들은 도서관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보았을 때 ‘청각장애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도서관 관련 생태적 환경의 영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청각장애 학교교육에서 청각장애학생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은가, 아니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의 기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은 인지 능력이 청인 학생과 동일하다면 낮은 학업성취도의 원인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구성과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찾는 도서관 운영’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낮다.

2011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청각장애인이 1회라도 방문한 공공도서관은 80개관이며 이 기관의 평균 청각장애인 이용자 수는 22.09명에 불과하였다. 2012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인 성인의 경우 공공도서관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59.3%, 1-5회의 이용 경험이 있다가 24.2%였으며, 청각장애학생의 경우도 공공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가 50.6%, 1-5회의 이용 경험이 있다가 36.7%로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앞의 2012년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면담을 실시하면서 청각장애인은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기본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낮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청각장애인이어서 도서관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보다는 공공도서관이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청각장애인이 잘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할 때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번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관 환경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청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정보서비스 제공 환경이 열악하다.

2007년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설립되고,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승격되면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서비스 중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DB 구축,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영상 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등의 사업이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방안의 준비 및 실천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 도서관과 관련해서 장애 관련 담론은 주로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현상은 어떤 편견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은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기만 하면 접근이 가능한 장애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각채널을 통해 기존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책이나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은 도서관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화번역자료 제작 외에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가장 이용하지 않는 장애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체계에 익숙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청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문제가 없고, 시각장애인과 달리 시각채널을 통한 정보 수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은 없으리라는 생각에 기인하였다.

결국, 2011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은 2개관이며, 평균 서비스 제공 건수도 28.00건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외국에서는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구미 국가들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Real-time Captioning, 전화중계서비스, Video Relay Interpreting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접근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초·중등학교 및 대학, 도서관, 병원,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성격상 청각장애인도 도서관 이용객이 될 수 있도록 무장애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시각화’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해서,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표면적 시각화가 아닌 심층적 시각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둘째, ‘수화대면상담서비스’, ‘수화문자강좌’ 등과 같은 청각장애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보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에게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서관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접근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은 자명하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 중략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음성 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 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이하 생략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조의 2항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이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 이용 상의 편의 제공을 하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45조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것을 명시하면서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가시책 수립 및 총괄뿐 아니라, 장애인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에 비추어보면 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도서관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언어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적절한 조치 없이 기존 도서관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을 차별하고,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일곱째,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청각장애 친화적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도서관 이용 의사가 있음을 개진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도서관 문화, 운영 체제, 시설, 자료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청각장애인도 도서관 이용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2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청각장애 성인의 경우 67.9%,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61.3%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도서관,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등에서 시범 운영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참여 현상을 보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수용·반영하느냐에 따라 청각장애인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질 높은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덟째,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양식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012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 결과는 청각장애인이 찾기에 부담 없는 환경을 갖추고, 읽기가 즐거운 도서관 자료를 구비하며,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서비스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사회의 특성은 그들만의 모이는 친숙한 장소, 친숙한 사람들, 익숙한 운영 체제가 별도로 존재하여 ‘농공동체’, ‘농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청인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청각장애인과 높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약 10여 년 전 부터 우리나라의 청각장애 공동체에서도 농인이 중심이 되어, 농인의 정체성을 찾고, 농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Deaf First” 혹은 “Now, Deaf” 운동과 같은 성격의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수화를 모두 능숙하게 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학교를 떠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각급 교육청은 예산을 수립하여 현재 청각장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화강좌 및 수화통역사 대비반에서 수화를 배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서관도 농인의 도서관, 농인에 의한 도서관, 농인을 위한 도서관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의 논의의 출발은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관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관’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서관을 일컫는다. 첫째, 도서관은 언어정보의 결집체이므로 청각장애인의 언어 양식인 수화를 고려하여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안내에서부터 도서관 소장 자료들이 수화의 형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모든 안내 내용을 수화 동영상으로 읽을 수 있게 하거나, 소장 자료들도 수화책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므로 도서관이 농문화가 반영되고 꽃 피워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청인들과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언어적 소수자로서 일종의 다문화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반적인 외국인 다문화 집단과는 달리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한국어 음성언어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청인 자녀들이 가장처럼 집안의 일을 처리해야 하는 청각장애 가정 문화가 있다. 즉, 도서관 이용자로서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며,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요구에 민감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수화문자강좌’, ‘청각장애인 통역사에 의해 진행되는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스토리텔링’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서관 환경을 바꾸면 청각장애인들도 도서관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는 동시에 지금까지 도서관이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과 청각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실험적 연계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환경 구축 방안 도출

둘째,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 도출

셋째,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에 적합한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 도출

넷째,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에 적합한 청각장애 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도출

## 2.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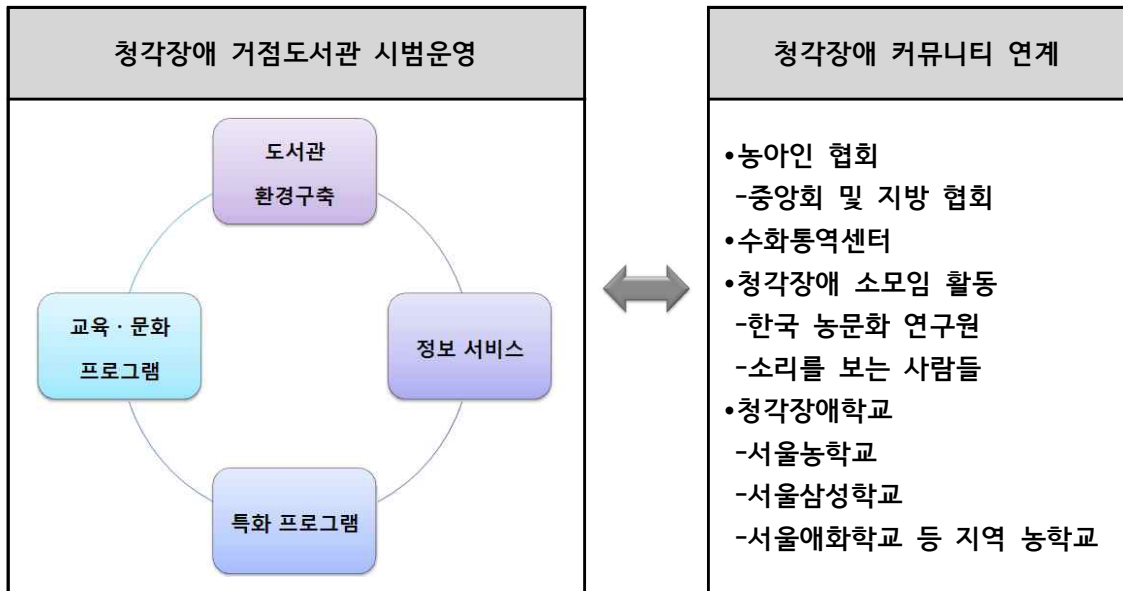
###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 친화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환경 구축,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청각장애 특화프로그램 개발, 정보서비스 방안 도출, 청각장애 커뮤니티와의 연계 방안 구안, 청각장애 친화적 도서관 운영 지침 개발 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찾게 하고, 도서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자존감과 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중 청각장애인의 반응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반인 대상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한다. 넷째, 청각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특화 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 방안을 개발·운영한다. 다섯째, 모든 연구의 진행은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크게 4+1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도서관 내(4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첫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이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구축에서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가지의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운영한 통합형 프로그램이다. 셋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넷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전달 수단과 관련되어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수화문자쓰기 강좌’, ‘원격통역서비스’ 등이 시범 운영되었다. 이 외에 도서관 외(1영역) 프로그램으로

청각장애 커뮤니티(농사회)와의 연계 방안 연구가 있다.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인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매우 커서 청각장애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성공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사안이다.



<그림 1.1> 4+1 연구 내용 구조

<표 1.1> 연구 내용

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1. 환경 구축	물리적 환경 구축	
	인적 환경 구축	
	정보접근 환경 구축	
	자료 환경 구축(수화번역도서 비치)	
	협력체계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이해 및 이용	전 연령
	이미지 메이킹	전 연령
	청소년 독서치료	중고등 학생
	성인 독서치료	농성인
	스토리텔링	유치부 학생
	자녀독서지도	청각장애학생 부모
	수화교실	지역 일반인
3. 특화 프로그램	수화문자쓰기	청소년 및 성인
	수화대면상담	청소년 및 성인
4. 정보 서비스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전 연령
	스마트폰 기반 도서관 이용법 수화안내 콘텐츠 제공	전 연령
	수화번역도서 비치	전 연령
	청각장애인 통역사 배치	전 연령

## 나. 연구 방법

### 1) 연구진 구성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은 첫째, 연구집필진, 둘째, 연구자문진, 셋째, 연구보조진, 넷째, 청각장애 당사자의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집필진은 청각장애 전공 교수 3인과 문헌정보학 전공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문진은 문헌정보학과 교수 2인, 도서관 운영 실무 유경험자이면서 문헌정보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독서지도 전문가 1인, 청각장애학교 도서관 담당 특수교사 2인, 농아인협회 관계자 2인, 청각장애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 2인의 총 8인으로 연구자문진을 구성하였다. 연구보조진은 행정 담당 1인과 프로그램 진행 보조 1인으로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끝으로 청각장애인 당사자 1인은 한국복지대학 수화통역과를 졸업하였으며, 시범운영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 연구기간 동안 상주하였다. 시범운영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서는 장애인자료실의 사서 1명이 이번 연구에 협력 전담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도서관 운영 경험에서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거점 도서관 시범 운영을 통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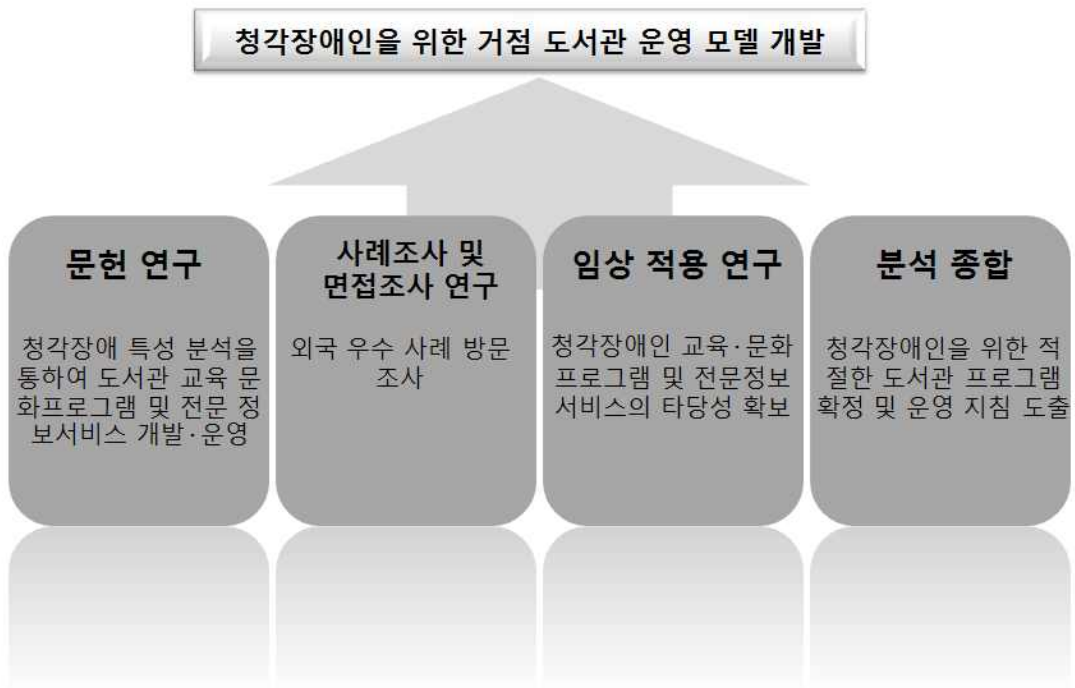
〈표 1.2〉 연구진 구성

성명	소속	전공	주요업무	비고
강창욱	강남대학교	청각장애교육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원성욱	한국복지대학교	청각장애교육	각종 기초조사 및 이론 개발	연구위원
허 일	한국복지대학교	청각장애교육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구위원
김혜주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구위원

〈표 1.3〉 자문위원진 구성

성명	소속	비고
황금숙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미영	한국정책개발원	독서치료전문가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사무처장, 수화통역사
김상화	경기도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수화통역사
김미경	서울삼성학교	청각장애 전공 교사, 도서관 담당
황선희	서울농학교	청각장애 전공 교사, 도서관 담당
김유미	한국농문화연구원	청각장애성인 중심 교육·문화 모임
김주희	소리를보는사람들	농인 야학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 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청각장애인의 언어 특성, 심리적 특성, 수화 구조, 현행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현황, 청각장애 지원 서비스 외국 사례 등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청각장애인

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특화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012년에 수행된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문헌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여러 영역에서의 특성 정보를 향후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는 2012년 연구에서 문헌연구의 결과물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 도서관(Nashville Public Library, TN)을 직접 방문하여 청각장애인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사례조사 및 면접조사 연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단지 청각장애학교이나 청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도서관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없다. 이로 인해 사례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청각장애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12년에 시행한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어 생략하였다.

면접은 국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청각장애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자문위원들과 이루어졌으며, 외국은 Nashville Public Library의 청각장애 담당 사서와 하였다. 국내 전문가 자문위원과의 면접은 퇴근 후 한적한 곳에서 만나 이루어졌으며, 평소 연구진들과 라포 형성이 되어 있어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 [청각장애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와의 면접조사 내용]

##### 청각장애학생의 도서관 참여

1. 도서관이라는 분위기를 좋아하는가?
2. 어떤 형태의 자료(시각, 문자, 청각 등)에 흥미를 나타내는?
3. 교실 수업과 도서관 프로그램 중 어느 것에 참여도가 더 높은가?

##### 학교 도서관에서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실시

1. 어떤 종류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가?
2.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문해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3. 문해능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는가?
4. 공공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을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Nashville Public Library 청각장애 담당 사서와의 방문조사 내용]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질문

1. 프로그램 기획은 언제하나?
2. 통합, 비통합 문화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프로그램 기획 시 참여인력의 구성은(예: 프로그램 담당사서, 담당부서장, 문화 강좌 담당자 등등)?
4. 프로그램 평가결과는 다음 프로그램 기획 시 반영되는가?
5. 프로그램 기획 시 이용자 요구도 반영되는가?
6. 주제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기존 프로그램 평가 반영, 다른 기관 벤치마킹,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등)?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질문

7.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8. 문화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지침서(프로그램 모형 등이 제시된 )가 있나?
9. 도서관과 복지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0. 도서관 운영인력은(몇 명)?
11. 이들 인력 중 교육·문화프로그램 전담 인원은 몇 명?
12. 업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13. 문화프로그램 계획 프로세스, 프로그램 개발안, 기획안 등이 있나?
  - 1) 통합프로그램
  - 2) 비통합프로그램
14. 기존 프로그램 평가방법은?
15. 실행예산은 얼마인가? 어떻게 확보하는가?
16. (귀 도서관만의) 프로그램 홍보 전략이 있나?
17. 타 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성은 있는가?
18. 지역 도서관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나? 있다면 방법은?

이용자(프로그램 참여자)에 관한 질문

19. 이용자가 선호하는 문화프로그램은?
20. 이용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21. 프로그램에 평균 참여인원은?

인력에 관한 질문

22. 자원봉사자(재능 기부 포함) 모집·관리(자격기준이 있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인력 풀 여부)?

23. 사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4. 교육·문화프로그램 담당자의 업무 중 이것에 할애하는 비율은?
25. 프로그램 운영 시 사서의 역할은?
26. 운영상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인가?
27. 강사진 섭외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선정기준은?
28. 도서관에서 강의계획 및 강의 관리를 직접 하는가?
29.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면 평가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30. 청각장애인 교육·문화프로그램)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 다) 임상 적용 연구

문헌연구와 자문진 면담을 통해 도출된 통합형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청각장애인 관련 특화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관 환경 구축에 관한 결과를 서울도서관에서 임상 적용하였다. 임상 적용 결과 도출을 위해 시범 운영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특화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은 표 I. 1 에서 제시한 13종이었다.

시범 운영 도서관 : **서울도서관**

운영 기간 : 2013년 8월 22일 - 11월 30일

#### 라) 자문

8명의 자문위원은 문헌정보학 전문가 2명, 농협회에서 20년 이상을 수화통역과 함께 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을 주관한 관계자 2명, 청각장애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2명, 청각장애인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편성을 위하여 전체 자문회의 모임은 1차례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과 내용에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분과별로 평균 4-5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자문 위원이 강사로 참여하거나, 자문위원의 기관에서 운영하기도 하였다.

전체 자문회의에서는 시범운영의 체제, 운영 방식, 청각장애 참여자의 특성 고려 방안,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청각장애학교, 청각장애 단체, 청각장애기관별로 프로그램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 진행 방식, 내용, 청각장애인의 참여 유도 등이 주요 자문의 내용이었다.

마) 자료 수집과 평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특화정보서비스프로그램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환경 조성을 서울도서관에서 시범 운영 한 후 질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진행 후 참가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심층면접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의 선정, 운영 등의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 본 연구 담당 사서로부터의 관찰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집, 프로그램 담당 강사의 결과 보고 채집,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의 결과 보고 수집,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참여한 수화통역사의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담보하기 위해 신빙성, 정교성, 정직성이 유지되도록 삼각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서관 전문가와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의 사전 협의, 프로그램 진행시 일어난 다양한 반응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 프로그램 진행 후 일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개개 프로그램의 효과 정도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시된 프로그램이 향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을 운영할 때 반영되어야 할 실질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 3. 진행 경과 및 현황

3영역 13개 프로그램의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 표 I. 4와 같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해 매 2주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의회를 가졌다.

<표 I.4> 진행 경과 및 현황

일자	과제	주요내용
2013. 06. 04.	- 전자입찰 참가	
06. 24.	- 수정제안서 제출	
06. 28.	- 수정제안서 발표 및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의	

07월중	- 연구를 위한 수시 회의 - 시범운영 도서관 섭외	서울도서관과 수차례 협력을 위한 접촉
07. 16.	- Nashville Public Library 방문조사	
07. 24	-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 영역 설정 및 14개 프로그램 설정	-도서관 이해 -교육문화프로그램 -특화정보서비스
08. 02.	- 14개 프로그램을 11개로 축소 - 편성된 교육문화프로그램 내용으로 협력기관 요청 의뢰	-서울도서관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08. 08	- 국립장애인도서관과의 진행 상황 및 프로그램 검토 협의	- 시범도서관 확보 -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요구조사 - 운영위원회 구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재정비 - 청각장애이용 대체자료 이용률 저하 원인 분석
08. 14.	- 수화통역사 교체 및 확정	- 한기열 수화통역사는 '수화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업무 변경 - 김만영 통역사를 신규 수화통역사로 확정
08. 03- 08. 25	- 강사 섭외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작성	
08월중	- 서울도서관과의 프로그램 협의 -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가할 청각장애인 섭외	- 서울도서관 공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시간 배정에 난항을 겪음 - 서울도서관과의 프로그램 설정 의견 조율 난항
08. 22	- 도서관 이해 및 이용교육	- 도서관 투어(이효성 사서)
08. 24.	- 전문가 자문회의	- 황금숙교수외 7인 및 연구위원 전원 참석 - 소리를보는사람 대표. 한국농문화연구원장의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도서관에 대한 설명과 요구에 공감
09. 05.	- 서울도서관과 프로그램 조율 완료	
09. 07	- 첫 교육문화프로그램 실시	- 이미지 메이킹
12, 05	- 4영역 13개 프로그램	- 11월말 전체 프로그램 종료

#### 4. 용어의 정의

- 0 **난청인**: 청력 손실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지만 듣기만으로는 완전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입모양을 보거나 문자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 0 **농 문화**: 청각장애로 인해 시각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문화적 양상
- 0 **농 사회**: 이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여 형성된 사회
  -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과 그의 가족들
  -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 0 **농인**: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하여 듣기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로써 문자나 수화와 같은 시각적 채널을 통해 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수화를 주 의사소통 양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
- 0 **농통역사**: 한국어도 수화도 둘 다 잘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건청인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해 준 수화를 보고 다시 몸짓이나 흠 싸인 형태로 통역해 주는 청각장애인통역사.
- 0 **보청기기**: 소리를 증폭시켜 들려주는 기기를 총칭하는 용어로 개인용 보청기, FM보청기, 적외선 보청기, 유도 루프 장치 등을 총칭
- 0 **수화**: 농인들이 시각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사용하는 언어로서 나라마다 수화는 다르며, 각각의 수화에는 수화 문법이 존재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는 자연수화인 한국수화를 지칭
- 0 **수화대면낭독**: 한국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수화로 직접 읽어 주는 서비스
- 0 **수화문자**: 수화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로 전 세계 8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인 SignWriting으로서 최근에는 수화문자를 이용하여 카드나 편지 등을 보내며 온라인 출판물로도 나오고 있음
- 0 **수화번역도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자로 인쇄된 일반적인 도서를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로 책의 내용을 번역하여 제공해 주는 방법 중 하나로, 인쇄된 책에 QR코드를 붙여 한글과

수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서로서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 QR코드를 통해 수화로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서

- 0 **수화영상도서**: 인쇄된 책의 내용을 전부 또는 요약하여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영상자료
- 0 **수화책**: 수화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책
- 0 **수화통역사**: 한국어를 수화로, 수화를 한국어로 통역해 주는 건청인
- 0 **원격수화통역**: 현지에 수화통역사가 없을 때 Wifi 및 LTE 기반 무선통신망이나 영상전화 등을 통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0 **청각장애인**: 이 용어는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즉, 아주 경미한 정도에서 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청력에 손실이 있는 난청인과 농인 모두를 총칭
- 0 **청각장애 거점도서관**: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등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
- 0 **교육·문화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독서치료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성격의 프로그램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 0 **특화 프로그램**: 수화대면상담 프로그램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제공되는 프로그램
- 0 **통합형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에 건청인과 청각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시범 운영을 통해 향후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초 시범 운영도서관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이 함께 하는 통합형 프로그램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운영에 참여한 서울도서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통합형 프로그램은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통합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특성

#### 가. 청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청각장애인이란 청력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청각장애는 의학적으로는 장애의 정도, 즉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으며, 교육적 관점이나 의사소통의 특성에 의해 분류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 1)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는 각국의 기준과 교육, 의학, 복지정책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전통적인 ISO(1964)의 분류는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각장애정도와 청력손실치

청각장애정도	청력손실치
정상역(normal limits)	10~26dB
경도 청력손실(mild hearing loss)	27~40dB
중등도 청력손실(moderate hearing loss)	41~55dB
중등고도 청력손실(moderately severe hearing loss)	56~70dB
고도 청력손실(severe hearing loss)	71~90dB
최고도 청력손실(profound hearing loss)	91dB 이상

위의 분류에서는 농과 난청을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분류에서는 91dB이상을 농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농교육자인 Moores(1996)는 교육

적 관점에 따라 청력손실정도를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면서 70dB 이상은 언어사와 청각사의 지원 외에도 농교육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70dB 이상을 농으로 분류하고 있다. ‘난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각채널을 통해 음성언어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청력손실을 의미하며, ‘농’은 청각채널을 통해서 언어정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청력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청각장애는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청력손실이 언어발달과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4)에서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농’이란 말소리를 증폭하지 않고 들려주거나 또는 증폭하여 들려주더라도 그 언어정보(말소리)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어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한 청각장애를 말한다. ‘난청’이란 농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적인 청각장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제15조에 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5.26. 제정 공포) 제10조에서는 청각장애를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분류는 하고 있지 않다.

## 2) 법적 분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3.19.)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청력손실이 된 사람’과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청력을 잃은 사람]

- 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 하는 사람)
- 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구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한 귀의 청력이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4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춰야 하는 사람

· 5급: 양측 평형 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3)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청각장애

장애를 보는 관점이 기능적·구조적 관점에서 주관적 해석주의·인간주의로 바뀌면서 청각장애를 보는 관점도 바뀌었다. 앞의 두 관점은 장애를 결함으로 보고, 교육과 복지의 초점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결함을 메워주려고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관점은 장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거시적 안목에서 장애의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결함이나 단점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에 그 초점을 둔다. 즉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주변 환경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지원에 의해 많은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해석주의·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청각장애를 바라보면 청각장애는 더 이상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닌 것이다. 즉, 청각장애를 건청인에게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감각기관의 손실(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

람(seeing people)들이었다. 보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보는 것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언어는 보는 언어, 즉 시각 언어인 수화이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자신들의 제1언어로 하여 그 언어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통적으로 소문자로 쓰던 농(deaf)과는 차별되게 대문자로 농(DEAF)이라고 자신들을 지칭한다.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결함을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의료적 처치나 보청기 착용이라는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메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이들이 완전히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듣기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교육을 받거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때 여전히 어려움(문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환경)이 시각적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어려움은 해결된다.

## 나. 청각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청각장애인 중에는 주 의사소통 양식을 시각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음성언어인 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화와 구화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음성언어인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본 후에 그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청각장애인의 언어적 특성 특히 음성언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력손실 정도가 클수록 언어 지체도 크다. 그러나 언어 능력이 단지 청력손실 정도에만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언어는 듣기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므로 청력손실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언제 청력을 손실했는가, 또 다른 장애는 없는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무엇으로 하였는가, 수화를 사용하는 농학교에 다녔는가, 구화를 사용하는 농학교에 다녔는가, 아니면 일반학교에 다녔는가에 따라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이 매우 다르다. 즉 청력손실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청력손실을 한 시기에 따라 언어 능력은 다르며, 어떤 언어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도 언어적 특성이 다르다. 90dB의 같은 청력손실이 있다고 하여도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청력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언어를 습득한 후에 청력 손실을 입은 경우는 그 언어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하여 성공적으로 청각재활을 하고 그에 따라 언어 능력이 좋은 청각장애인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듣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렵고 그 의사소통의 특성도 시각 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든지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또한 수화라고 하는 음성언어와는 그 양식이 전혀 다른 시각언어를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특성 알아본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소리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즉, 26dB이하의 정상 청력 청력이므로 조용한 환경에서는 속삭이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나, 청력치가 16~25dB인 경우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듣기 어렵다. 이는 속삭이는 말소리가 20dB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도의 청력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26~40dB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는 조용한 곳이라도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어려우나, 조용한 환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표 II.1은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2>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

청력 손실 정도	의사소통 특성
16 ~ 25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한 환경에서는 말을 알아듣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나 시끄러운 곳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다.</li> <li>■ 교실이 시끄러우면 회화의 10% 정도를 놓쳐버린다.</li> </ul>
26 ~ 40dB 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용한 환경에서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어휘 수준으로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li> <li>■ 조용한 곳이라도 희미하거나 먼 소리는 듣기 어렵다.</li> <li>■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듣는 것이 힘들다.</li> <li>■ 고주파수에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자음을 놓쳐버린다.</li> <li>■ 교실에서의 토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li> </ul>
41 ~ 55dB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대화하는 말은 듣기 어려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들을 수 있다.</li> <li>■ 학급 토론과 같은 집단 활동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li> </ul>

56 ~ 70dB 중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할 때 크고 분명한 말소리만 들을 수 있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훨씬 어려움이 크다.</li> <li>■ 보청기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li> <li>■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명료하지 않다.</li> <li>■ 일대일 대화, 그룹 대화에 있어서 음성언어에 대한 의사전달이 곤란하다.</li> </ul>
71 ~ 90dB 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대화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을 때도 잘 못 알아듣는 단어가 많다.</li> <li>■ 환경음은 감지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li> </ul>
91dB 이상 최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환경음을 들을 수 있다.</li> <li>■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알아듣기 어렵다.</li> </ul>

출처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편, 2012.

## 2) 청각장애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

청각장애인들은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구화(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고 하여도 청각에만 의존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경우 청각장애인들이 좋지 않은 청력과 보조기기에 의존해서 말소리를 이해하고 독화(입모양 읽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청력 손실에 의한 스트레스와 피로, 사회적 고립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다음은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할 때의 유의점이다(김영옥, 2007).

- 천천히 명확히 말하라.
- 청각장애인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말하라.
- 말하는 동안 입에 물건을 물고 있거나 입 근처에 사물을 두지 마라.
- 창문이나 밝은 불빛 근처에서 떨어져서 말하라.
-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간결하고 통사적으로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라.
-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모호함을 피하라.
- 메시지를 이해하였는지 자주 물어라.
- 그들이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 주도록 요청하라.
-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또한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들과 의사소통 시에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단절이 일어났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메시지를 반복한다.
- 메시지의 절을 반복하고 다른 방법으로 말한다.
- 대화의 주제를 알리기 위해 중요한 단어를 반복한다.

예) 누가 넘어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는 “OO, OO이가 넘어졌어.”라고 말한다.

- 적은 단어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단순화한다.

예) “친구가 노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왔어.”라는 문장을 잘못 알아들을 때는 “OO이가 모자를 쓰고 왔어.”라고 단순화한 다음에 어떤 모자인지를 다시 말한다.

-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여 정교화한다.
-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상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말한다.

예) “지갑을 내 핸드백에 넣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지갑을 가리키며 “지갑을”이라고 말한 후에 핸드백을 가리키며 “핸드백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한다.

#### 다. 청각장애인의 문해 특성

대부분의 건청아동들은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기 전에 문자에 대응하는 음성언어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 아동은 음성언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통사능력 등 언어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공식적인 읽기와 쓰기 학습이 시작된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지체는 듣는 아동들과 같은 종류의 읽기와 쓰기 곤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과정에는 이러한 문자와 대응하는 언어기반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해 초래한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에게 있어 문자 언어의 읽기와 쓰기는 다른 학습의 중요한 도구이며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성취는 청각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대부분 건청 또래에 비해 지체되어 있으며 그 차이는 학년

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쓰기 능력 역시 건청 또래에 비해 어휘 뿐 아니라 통사와 텍스트 수준에서도 지체되어 있으며 정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 필요한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 정보의 결핍이 음운 인식과 초기 문해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읽기와 쓰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 기억에서의 문자 처리하는 방식과 어휘 지식 및 통사적 특성을 살펴본다.

### 1) 음운인식 및 초기 문해 기술

문자를 읽는다는 것이 문자와 소리를 대응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음운인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 즉 읽기 학습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전체-단어, 즉 단어들 사이의 순수한 시각적 차이점들에 기초해서 제한된 시각 어휘(sight vocabulary)를 구성하는 합성활자적(logographic) 전략을 사용해서 읽다가 문자 대 음운 혹은 철자 대 소리 규칙을 통해서 낱자를 음운으로 전환시키는 음운(phonetic) 전략까지 발전시켜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단어 읽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린 아동들은 “마징가”와 같이 익숙한 문자를 통째로는 읽지만 그것의 낱자를 하나하나 떼어 “마”와 “징” 등을 읽지는 못하다가 점차 음운에 기초한 읽기를 하게 된다.

건청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음운지식(예; 말 분절 기술이나 단어에의 비슷한 리듬과 첫소리를 확인하는 능력)이 읽기 성공의 좋은 예언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청각장애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특성 역시 이들의 읽기 발달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이다. 음운인식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말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은 음운인식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이것은 읽기의 곤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 증폭기기가 매우 발달하고 청각재활이 조기에 잘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건청아동들처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은희와 석동일(2004)은 3세에서 5세의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한 청각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이 같은 또래의 건청아동보다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운인식 능력의 발달 순서는 음절, 운모, 음소의 순으로 건청아동과 같다.

이후 형식적인 읽기와 쓰기 학습에 들어간 후에도 청각장애 아동들은 읽기 과정에서 읽기 수준은 같으나 나이가 어린 건청아동들보다 음운부호화를

덜 사용하며, 생활연령이 같거나 읽기 연령이 같은 건청아동들보다 시각적 단어형태에 더 많이 의지한다. 이는 청각장애 아동이 음운 지식을 획득하지만 건청 또래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읽기 과정에서 음운에 기초한 부호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운인식과 더불어 유아기에 책의 앞과 뒤, 책에서 글을 읽어가는 방향, 단어의 시작과 끝, 문장 부호와 같은 인쇄물에 대한 인식도 훗날의 읽기와 쓰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인쇄물인식은 형식적인 교육에 앞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인쇄물에 대한 노출 경험 제공 등 문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청각장애유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김영옥(2009)은 62개월에서 82개월 된 인공와우 시술 청각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인쇄물개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유아도 건청유아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범주의 인쇄물 인식이 발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쇄물인식 수준이 높은 청각장애 유아들이 인쇄물 인식 수준이 낮은 청각장애 유아들에 비해 언어능력 뿐 아니라, 단어읽기, 글자지식, 음운인식 기술 등의 기초 문해 기술이 높았다.

## 2) 작동기억에서의 부호화와 단기기억

읽기에서 재부호화 즉 단어의 인지 처리과정(일반적으로는 문자를 보고 소리로 다시 부호화하는 과정)은 작동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그들의 작동기억에 관한 연구들을 끊임없이 해왔다. 작동 기억에서 단어를 잘 회상한다고 꼭 독해 능력도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단어의 처리는 기본이므로 청각장애학생이 얼마나 단어 회상을 잘 하는가는 독해 능력과 관련이 있다. 물론 단어 수준에서의 회상 검사에 의해 나타나는 작동 기억 용량(capacity)이 글의 전체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독해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읽기 과정 동안 작동 기억에서 글을 보고 어떻게 재부호화 하는가는 문장의 표면 구조, 즉 개별적 어휘 항목들과 문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단어들 사이의 중요한 의미적 관계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조직화하여 파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읽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Hanson(1985)은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상한 단어의 오류를 분

석한 연구에서 청각장애 대학생들도 건청 대학생들과 비슷하게 철자법적 구조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즉 청각장애 대학생들도 단어 인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말에 기초한 부호화인 음운부호화와 철자법적인 규칙을 사용하므로 철자법적으로 규칙적인 단어들을 정확하게 회상하는 것이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조차 음운부호화를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읽기 능력이 우수한 대학생이 음운부호화를 사용하고 단기기억에서의 회상 능력도 우수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순서대로 단어를 회상하는 과제에서는 건청 대학생에 비해 열등하였다.

Lichtenstein(1984)은 선천성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과제에서 단기기억 용량과 내적 표상화를 제공하는 부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건청 대학생에 비해 단기기억 용량이 작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시연전략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대학생은 기능어보다는 내용어를 더 많이 부호화 하고 음운(말)과 수화 두 가지 부호를 다 사용하였는데, 의사소통 시 거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음운 부호화를 사용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시절 수화를 배운 학생은 음운부호와 함께 수화 부호도 사용하였다.

Siedleki 등(1990)도 청각장애학생 중 유능한 독자가 열등한 독자보다 50% 이상 더 잘 단어를 회상하는데, 단어 회상 수준은 말의 명료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즉, 단어 회상을 잘하는 것은 읽기 제재를 잘 다루는 능력 중 하나이므로 유능한 독자는 관계없는 단어들을 의미 있는 문장들로 조직화하는 것과 같은 회상전략을 더 잘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능한 독자가 회상을 더 잘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열등한 독자에 비해 단기 기억용량 자체가 더 크거나, 문자를 수화로 바꾸는 것을 더 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청각장애학생이 작동 기억에서의 단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해독(decoding)은 청각-언어적인 음운부호뿐만 아니라 수화에 근거한 부호도 사용한다. 또한 그러한 부호의 효율적인 사용은 단기 기억 용량과 관계가 있으며, 단기 기억에서의 회상 능력과 읽기 성취 수준 사이에는 강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기 기억 용량이 크면 문장을 읽을 때 문법적 구조에 대한 정보까지 단기 보유할 수 있으므로 독해 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동 기억에서의 단어를 처리하는 능력은 청각장애학생의 독해 능력을 구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3) 어휘 지식

읽기와 쓰기는 단순히 어휘력이나 통사적 능력과 같은 언어적 기반만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니다. 읽기와 쓰기는 그 언어의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이 기초가 되지만 동시에 정보의 처리와 저장, 인출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언어 지식과 함께 배경 지식, 문학 지식, 기능 지식 등을 상호 관련 지어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읽기 능력은 어휘력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쓰기 역시 문자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휘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어휘에 대한 지식은 우연학습의 결핍 등과 같은 언어 경험의 부족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의 건청 또래에 비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성규와 성학기(2003)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자로 제시된 어휘에 대한 이해력을 검사하였는데, 또래 건청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각장애학생도 건청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발달 속도가 느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6학년이 되어도 4학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중학생의 경우 25%가 3학년 수준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58%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의 어휘 이해력은 점차 증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청 또래에 비해서는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화와 문자로 제시한 어휘에 대한 이해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 차이가 없었다(허명진·유광숙·최성규, 2004). 이는 현재 수화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이 건청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구화 교육 위주의 수업을 받으며 뒤늦게 수화를 습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화언어의 어휘력 역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은 단어를 연합하고 분류하는 과제를 통해 알아보았을 때 건청 또래보다 단어를 의미적 범주로 조직화 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휘 지식의 폭이 좁으며 연합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이는 양적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은 읽기

능력이 같은 건청학생과 비교했을 때에도 어휘 수가 적었으며, 알고 있는 어휘의 종류도 다르고 구체적인 명사와 행위 동사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용하였다.

특히 언어적 경험이 부족한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다양한 맥락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다의어의 이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각장애학생은 다의어의 의미 이해에서 읽기 연령이 같은 건청 학생에 비해 낮은 성취를 보였으며 연령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 중에서도 읽기 능력이 높은 학생은 읽기 능력이 낮은 학생에 비해 다의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희은, 2006). 이는 다의어의 의미 이해력이 높은 청각장애학생의 읽기 능력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읽기 능력이 높은 청각장애학생들은 맥락 정보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은유적 표현에 대한 이해 역시 읽기와 쓰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은유는 일상생활에서 말과 글의 형태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글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 또한 은유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의미 영역을 확장하는 창조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어 경험이 부족한 청각장애 아동은 은유적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은경·이종열·석동일(2008)은 언어 연령이 4세 이상인 청각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은유 이해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 연령이 같은 건청아동에 비해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은유 이해 능력이 모두 낮으며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은유 이해가 더 많이 지체되었으나, 구체적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청각장애 아동은 건청아동과 마찬가지로 지각적 유사성 > 기능적 유사성 > 추론관계 유사성의 순으로 잘 이해하였다. 이는 추론관계 유사성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각장애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추론에 의해 분석되어지는 관계적 은유의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

청각장애학생 중에서도 읽기 능력의 차이에 따라 은유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본 연구(김영옥 등, 2006) 결과에 의하면 문맥이 제공되지 않은 은유 과제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문맥이 제공된 은유 과제에서는 읽기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읽기 능력이 낮은 학생보다 더 잘 이해하였다. 특히 읽기 능력이 높은 청각장애학생은 문맥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축어적 이해’로 인한 오류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문맥이 제공되면 ‘관련 없는 이해’를

하는 오류는 확실하게 줄었다. 이는 읽기 능력이 높은 청각장애 아동은 문맥 단서를 활용하여 은유적 매체와 관련은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속성은 억제하지만, 읽기 능력이 높더라도 은유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건청아동이 책 읽기를 통해 비유적 어휘를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적 연상에 의해 반응하는 것에 비해 청각장애 학생들은 책읽기를 통한 비유적 어휘의 습득이 낮으며 어휘에 대한 의미 접근 역시 사전적 의미에 많이 반응하며 경험에 의한 반응에서도 직접 경험이나 단일 의미로만 반응(원성옥·김경진·하길중, 2009)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학생의 쓰기에서 나타난 어휘의 특성을 살펴보면, 활용빈도는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순으로, 오류빈도는 관계언, 용언, 수식언, 체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건청 학생에 비해 적은 어휘 수, 부적절하고 제한된 어휘의 사용, 수화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어휘의 오류가 발견된다.

특히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작문에서 나타나 오류 유형을 분석한 원성옥·이윤선(2011) 연구를 보면,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는 대치오류가 가장 많으며 첨가오류, 누락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언어입장에서 본 어휘 사용 특성을 보면 수화의 영향에 의한 오류와 한국어 규칙의 잘못된 적용에 의한 오류가 있다. 수화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언어 간 오류인데, 주로 한국수화와 한국어 어휘의 의미역이 다르며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와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표현이 달라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오류이다. 한국어 규칙의 잘못된 적용에 의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명사에 '-하다'를 붙여 동사를 만드는 규칙을 일반화하는 경우이다.

#### 4) 통사 지식

읽기 능력이 열등한 청각장애학생은 작동기억에서의 부호화 과정에서 말에 기초한 부호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로 인한 기억 용량의 과부화를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의미적으로 부호화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문법 형태소를 선택적으로 부호화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문장의 문법적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문법적 규칙을 내면화하기 어려워 통사 지식의 발달에 심각한 지체를 가져온

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은 문법 형태소에 의해 의미를 파악하기 보다는 의미적으로 해석하므로 의미적인 제약성이 강한 문장을 의미적 제약성인 약한 문장보다 더 잘 이해하였으며, 타동사 구문을 가장 잘 이해하며 다음으로 수여동사 구문을 잘 이해하고 사동사 구문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 한다.

통사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청각장애학생은 문장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매칭하는 전략과 의미 전략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어순 전략을 사용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 전략을 발달시키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문장 이해 능력은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어순과 의미적 전략을 사용한다.

김병하와 최영주(1990)는 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들이 읽기를 할 때 주어 + 서술어,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된 기본 구문은 잘 이해하나, 주어 + 보어 + 서술어 구문과 주어가 생략된 서술어 구문은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고 복합문 이해에서는 어려움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복합문보다는 관형화 내포문과 연결 관계 대등접속문, 인과관계와 첨의 관계 종속접속문을 쉽게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은 건청 학생에 비해 통사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느리기는 하지만 정상 발달 순서를 따라 발달한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은숙·원성옥, 2005)에서 보면 주동문은 잘 이해하나 피동문과 사동문에서는 어려움을 보였으나, 피동과 사동 보조어간이 들어가는 문장보다는 수화 어휘 [시키다]를 사용하여 그 설명이 명시적으로 가능한 ‘~게 하다.’와 [되다]라는 수화로 표현이 가능한 ‘~지다.’ 구문은 잘 이해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건청 학생에 비해 단순 구문을 사용하고 정형적인 구문 표현을 산출하며, 문법형태소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단순문 구조보다는 복합문 구조를 더 많이 쓰는데, 이러한 복합문에서 문법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복합문이 나열 구조의 접속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접속문에서는 주로 ‘나열’의 ‘~고’와 ‘인과’의 ‘~어서’에 의해 단순 나열식 접속을 하는데 의미 ‘나열’의 의미인 문장에서 ‘~어서’를 사용하거나 ‘인과’의 의미인 문장에서 ‘~고’를 사용하는 오류가 많으며, ‘나열’의 ‘~은데’가 ‘~고’로 나타나는 등 의미 기능의 미분화에 의한 중화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내포문의 경우는 거의 모든 내포문 유형을 실현하나 그 구조가 특정 어미에 의해 특정 내포문이 많이 나타났다.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상 청각장애학생은 문장을 쓸 때 어미의 부적절한 사용뿐 아니라, 조사의 잘못된 사

용으로 인해 문맥이 맞지 않고 어색한 문장 산출한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의 문해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의 언어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음운인식에서부터 어휘력, 통사지식에 이르기까지 건청 또래에 비해 지체된다. 그러나 풍부한 문학 자료를 이용하여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 태도 및 초기 문해 기술과 어휘력, 그리고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을 향상 시킨다. 송혜경과 최성규(2010)의 연구 결과는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적 언어 경험의 결핍을 시각적 채널을 통해 메워주므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읽기와 쓰기는 어휘나 통사와 같은 언어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 정보 자원을 연결 지어 통합하고 조정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특히 최근 읽기와 쓰기 교육에서는 과정 중심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효율적인 전략 사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은 읽기 능력이 같은 건청 학생에 비해 더 적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 중 읽기 능력이 뛰어난 독자는 열등한 독자 보다 문맥 단서의 사용 등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추론 능력이 뛰어나 글에 대한 추론적 질문에 대해서도 더 답을 잘하였다. 또한 쓰기 과정에서도 청각장애학생은 통사론 수준을 넘어 텍스트 수준에서도 쓰기 전략과 결속표지 등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텍스트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글의 응집성에서도 건청 또래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텍스트 수준에서의 읽기와 쓰기 전략과 지식에 대한 지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수화언어의 특성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의 정도나 언어발달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청각채널을 통해 언어를 수용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화라고 하는 음성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나, 구화의 사용이 어려워 시각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있다.

예전에는 수화는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처럼 생각했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수화를 보조 의사소통 수단정도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그러나 수화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언어이다. 1960년대 미국 갈로렛 대

학(Gallaudet University)의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가 처음으로 수화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이래로 수화는 완벽한 언어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인관련 전문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수화를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또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화라고 하면 ‘만국공통어’라고 생각하거나, 음성언어보다는 어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언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농인을 들을 수 없거나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화를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쯤으로 여긴다. 또한 농인은 음성언어(한국어)를 들을 수 없지만 글을 읽어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농인은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 음성언어(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음성언어에 해당하는 문자언어의 습득에도 어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농인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시각 언어인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화라는 언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체계를 통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엇이든지 배우고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다.

미국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수화를 농인의 모어인 제1언어로 인정하여, 수화를 통해 교육과정에 접근하도록 한다. 즉, 이러한 교육적 입장을 가진 농학교에서는 어린 농아동들에게 먼저 이들의 제1언어인 수화를 가르치고, 그 수화를 통해 영어(덴마크어)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화의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한 결과이다.

이제 복지국가 반열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농인의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수화언어 기본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의사소통의 보조수단 정도로 자칫 오해하기 쉬웠던 수화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화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체계이므로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화가 언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을 언어학에서 설명하는 틀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화가 언어인 증거

언어는 동물의 의사소통 도구나 또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는 달리 언어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 즉, 모든 언어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는 달리 자의성, 분리성, 생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수화도 갖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수화가 언어로서의 분명한 자격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 가) 자의성

언어는 기호(소리)와 그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기호의 형태는 그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인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이 둘의 관계가 관습적이고 자의적(임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 기호를 보고(듣고) 기호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자의성(임의성)이라 한다. 언어의 이런 자의성 때문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라마다 다르며, 모르는 언어에서는 그 언어의 기호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시각 언어인 수화도 이러한 자의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수화에서는 그 기호를 보고 의미를 알 수 있는 도상성(사상성)이 있긴 하지만, 단순화된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어휘들이 많다. 또한 도상성만 가지고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화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의 설명도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엄지와 소지를 펴고 나머지는 접은 손 모양을 하고 귀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하는 [전화]와 같은 한국수화는 그 수화 기호를 보고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화 단어는 한국수화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수화는 어원적으로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있는 옛날 중·고등학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수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 수화 기호를 보고 ‘학생’이라는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도상성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수화 어휘라 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

또한 언어가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같은 사물이나 의미를 알리는 이름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수화 역시 나라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의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수화는 분명히 자의성을 가진 언어이다.

#### 나) 분절성

언어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 달리 내적구조를 가지며, 그 구조는 사용자가 분리할 수 있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분리성이라 한다. 즉, 문장을 단어로, 단어를 형태소로, 다시 음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 기호는 작은 단위로 세분될 수 있으며, 다시 의미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한다. 또한 음성 언어의 경우 단어에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 즉,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들이 결합해 단어를 생성해 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보면 ‘달’이라는 단어는 [ㄷ] [ㅏ] [ㄹ]이라는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첫 소리인 [ㄷ]라는 소리 하나만을 [ㅌ]로 바꾸면 ‘딸’이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된다. 그리고 이 ‘달’과 ‘딸’이라는 두 단어는 2개의 소리가 같지만, 의미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

수화의 경우도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언어이다. 수화 역시 문장을 단어로, 그 단어를 형태소로, 다시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언어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를 기본 단위로 사용해 일정한 결합 원리에 따라 의미 단위를 생성해 낸다. 수화 단어는 손의 모양인 수형소, 손의 방향인 수향소, 손의 위치인 수위소, 손의 움직임인 수동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운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 다) 생산성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달리 무한한 수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언어의 생산성 또는 창조성이라고 한다.

수화 역시 이러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집], [가다]라는 단어를 배열해 ‘집에 가다’라는 평서문의 문장을 생성해 내는가 하면, [아직]이라는 수화 단어를 첨가해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 낸다. 또한 어휘와 어휘의 복합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화 단어가 만들어진다. 수화 단어의 생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태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 라) 역사성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 상호 작용의 결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점 변한다. 즉, 필요에 의해 새로운 어휘가 탄생하기도 하고, 변화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의 조어나 변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수화 역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이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단어나 수화 어휘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화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특히 수화 어휘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간편하고 수월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한 수화는 생성되고 불필요한 수화는 사멸된다.

#### 마) 전위성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로는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밖에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지금과 여기를 떠난 과거와 미래, 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서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전위성(轉位性: displacement)이란 특성을 갖는다. 수화 역시 현재나 즉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전위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수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일과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 바) 문화적 전달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다. 따라서 어떤 언어를 습득하느냐는 어떤 언어권에 노출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문화적 전달이라고 한다. 즉,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문화권에서 살면서 한국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수화 역시 문화적 전달이라는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인이라고 모두 수화를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수화 역시 수화 언어권에서 자라야 습득이 가능하다. 또한 농인 부모를 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듣는 것과 상관없이 수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도 수화 언어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 2) 한국수화 음운론

윌리엄 스토키는 미국수화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수화소(cheleme)를 분리해 내는 연구를 하면서 언어학의 음운론(phonology)에 해당하는 케로로지(cherology)라는 용어를 조어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수화언어학에서도 언어학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에 대한 연구 분야를 음운론이라 한다. 수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수화소란 수형(손의 모양), 수위(손의 위치), 수동(손의 움직임), 수향(손 또는 손바닥의 방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얼굴 표정 등 손 이외 다른 표지)다. 이 장에서는 수화 음운론, 즉 수화 단어에서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시각적 변별요소인 수화소의 구조를 한국수화에서의 최소대립쌍 단어의 예를 통해 살펴본다.

### 가) 수형소

수형소는 손가락의 접음과 펴(주먹 쥐고 펴), 편 손가락(즉 선택한 손가락)의 구부림 유무, 편 손가락들 사이의 접촉 유무, 그리고 엄지를 제외한 편 손가락들 사이의 벌림과 붙임에 의해 그 변별자질이 나누어진다. 처음으로 미국수화를 언어학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인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 1960)는 수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하는 손의 결합 구도를 데즈(Dez: designator)라 하고, 미국수화의 데즈(Dez)로는 19개가 있다고 규정했다. 김승국(1983)은 의미 있는 위치에서, 의미 있는 운동을 하는 한 손 또는 두 손의 결합을 수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한국수화에서는 스토키(1960)가 분석한 19개 외에 10개의 수형소를 더 분리해 내어 29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했다. 석동일(1989)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두 손의 형태를 수형이라 정의했다. 또한 수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수형이 필요하기도 한데 처음 수형과 마지막 수형에 한해 분석한 결과, 21개의 표준 수형소가 있고, 다시 각 수형을 잘게 나눔으로써 44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 언어에서 최소대립쌍이라고 불리는 단어 쌍을 통해 음운론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음소를 분리해서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화에서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수화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우리말에서 보면 ‘달’과 ‘탈’이라는 두 단어는 연속해서 나는 세 개의 소리 중 하나의 소리만 달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두 음 ‘ㄷ’와

‘ㅌ’는 우리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음소가 된다.

한국수화에서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수화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수위와 수향이 같으며 수형에서만 달라 그 의미가 바뀌는 수화는 [닭]과 [경찰]이 있다. [닭]과 [경찰]은 수위가 이마, 수동은 손가락 각자 운동(손가락 흔들기), 수향은 손바닥이 왼쪽으로 동일하다. 단지 수형이 엄지와 검지와 장지만을 편 수형이나 다섯 손가락 모두 편 수형이나에 따라 그 의미가 [경찰]에서 [닭]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수화에서 엄지와 검지와 장지만 편 수형과 다섯 손가락 모두 편 수형은 수형소가 된다.

#### 나) 수위소

스토키는 수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 수화가 이루어지는 위치를 탭(Tab: tabulator)이라 하고, 미국수화의 탭(Tab)은 12개가 있다고 했다. 김승국(1989)은 수형이 의미 있는 운동을 하는 위치라 하고 한국수화에서는 23개의 수위소가 있다고 했다. 스토키(1960)가 분석한 12개 외에 11개의 수위소를 더 분리해 내어 23개의 수위소가 있다고 했다. 이는 스토키가 어깨와 엉덩이 사이의 몸통을 하나로 본 것에 비해 김승국은 어깨, 척추, 가슴, 배 옆구리와 허리를 세분화했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중요 신체 부위를 수위소로 다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석동일(1989)은 김승국이 놓지 않은 공간과 양 손 수화에서 나타나는 손을 수위소로 넣고 20개의 수위소를 분리해 냈다.

한국수화에서 다른 세 가지 수화소는 같으나 수위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만들다]와 [하다]가 있다. 즉 [만들다]와 [하다]라는 양 손을 주먹을 쥔 수형에서 오른손이 주먹 쥔 왼쪽 손 위를 두드리느냐, 왼쪽 손목 위를 두드리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왼쪽 손의 하박(아래 팔)을 두드리면 [수고]가 된다. 따라서 한국수화에서는 손, 손목, 하박이 다 수위소가 된다.

#### 다) 수동소

김승국(1983)은 수화의 운동 성분 즉 수형의 운동을 수동이라 했는데, 스토키는 이를 시그(Sig: signature)라고 했다. 스토키가 미국수화의 시그를 24개로 분석한 것에 비해 김승국은 한국수화를 분석해 36개의 수동소를 밝혀냈다. 김승국은 스토키가 분석한 미국수화의 상, 하, 좌, 우, 내향, 외향 외에 방

향을 서북향, 동남향, 서북향 동남향, 서남향 등으로 세분했으며, 동작의 속도와 강약도 수동소로 보았다. 또한 석동일(1989)은 수동소를 운동의 방향과 양 손의 관계, 동작의 양과 질적 변화로 나누어 49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한국수화의 수동소와 스토키 체계의 큰 차이점은 동작의 양과 질에 해당하는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 부드러운 동작과 강한 동작 등을 변별자질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의 질적인 부분은 수동소로 보기보다는 수화 문장 안에서 부사적인 역할이나 감정의 표현과 강조 등 통사적 역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화에서 세 가지 수화소는 같으나 수동 하나만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배우다]와 [멋있다]가 있다. [배우다]와 [멋있다]는 겹지만 편 수형, 콧등이라는 수위, 그리고 몸 쪽으로 향한 수향이 같다. 그러나 [배우다]는 수평의 전후 방향 운동을, [멋있다]는 손가락 관절 굴곡 운동을 하여, 수동에서만 달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진다.

#### 라) 수향소

스토키는 미국수화를 음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수형, 수위, 수동의 요소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화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수향 즉 손의 방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수화에서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은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도 시각적인 변별자질이 된다고 하고, 이를 수향소라 했다. 김승국은 손바닥 방향 10개와 손가락의 10개 방향을 수향소로 보았다. 그에 비해 석동일은 손가락의 방향도 엄지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표기의 혼란을 우려해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전, 후, 이렇게 6개씩 보았다. 물론 편 손가락(선택된 손가락)의 방향은 엄지가 달라짐에 따라 신체 구조학 상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음성학적으로 볼 때 가능한 조음(수향)이므로 독일의 수화 전사 체계인 함노시스(HamNoSys: Hamburg Sign Language Notation System)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수향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한국수화 단어 쌍은 [연습]과 [칭인]이 있다. 이 두 단어는 다섯 손가락을 다 펴서 구부린 수형, 입 앞의 수위, 회전 운동으로 세 요소는 동일하지만 손바닥의 방향이 몸 바깥쪽으로 향하면 [연습], 몸 쪽으로 향하면 [칭인]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 마) 비수지 기호

비수지 기호란 수화에서 손 이외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등을 일컫는다. 비수지 기호 역시 스토키의 분석에는 없는 요소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수화에서도 엔엠에스(NMS: non manually sign)라고 해 수화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김승국(1989)은 손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의 동작까지 취해 보이는 기호가 있다고 했으며, 이를 체동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수화에는 20개의 체동소가 있다고 했다. 즉, 손 이외의 얼굴 표정과 몸의 움직임 등이 수화에서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자질이 된다.

한국수화에서 [귀엽다]와 [아깝다]는 비수지 기호에서 의미의 차이가 달라지는 단어쌍이다. 즉, 이 두 단어는 손가락을 다 펴고 붙인 수형, 왼쪽 볼 옆이라는 수위, 두드리는 수동, 비스듬히 오른쪽을 향한 손바닥의 방향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귀엽다]는 웃는 얼굴 표정을, [아깝다]는 아쉬운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 3) 한국수화 형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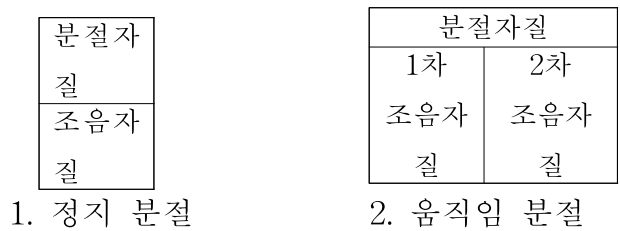
언어학에서 단어의 구조에 대한 연구 분야 즉,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와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단어들의 구조를 밝히는 분야가 형태론이다. 이 장에서는 언어학의 형태론적 측면에서 수화를 살펴본다.

#### 가) 수화 단어의 형성 방법

김철관(1996)은 한국수화의 단어 형성 방법을 복합구성, 역행조동, 역성, 파생, 복합어 등으로 나누었다. 수화의 단어 형성 방법은 수화 역시 언어이므로 음성 언어와 같은 구조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파생과 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어할 수 있다. 그러나 수화는 음성 언어와는 다른 시각-운동체계의 언어로서 갖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단어 형성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음성 언어와 달리 손 움직임이나 손모양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미국수화에서는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것(SIT-CHAIR), 복합화(compounding), 지문자 수화(fingerspelled sings), 분류사(classifier predicate) 등을 단어의 파생과정으로 보았다(Valli와 Lucas, 2000). 이렇게 기존의 단어를 이용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한국수화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화 단어의 조어 방법을 음성 언어처럼 파생과 합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화 단어의 분절 구조를 통해 기술한다.

나) 단일 구조를 가진 수화 단어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 1960)는 수형, 수위 그리고 수동으로 수화를 분석하면서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조음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키 전사체계는 수화 단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스캇 리델과 로버트 존슨(Scott K. Liddle & Robert E. Johnson, 1984)은 수화의 동시성 보다는 순차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화 단어의 구조를 기술했다. 이를 움직임-정지(movement-hold) 모델이라고 한다. 즉, 수화 단어에는 정지분절((hold segment)과 움직임 분절(movement segment)이 있으며, 각 분절은 수형, 수위, 수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절의 수형, 수위, 수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를 조음자질(조음소)이라고 하는데, 수화 단어는 이러한 분절의 순차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정지 분절은 이 조음소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일정한 상태로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에 비해 움직임 분절은 이 조음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정지 분절과 달리 2개의 조음자질의 집합체로 이루어진다. 이때 조음소 중 하나 이상이 동시에 변화할 수도 있다. <그림 1>이 수화 단어의 분절 구조이다.



1. 정지 분절

2. 움직임 분절

<그림 11.1> 수화 단어의 분절 구조

출처: Liddell, S., & Johnson, R.(1989)

이러한 움직임-정지 모델에 의해 한국수화 단어 중 단일어의 내적 구조를 보면, 정지 분절 하나(Hold)로만 이루어진 단어, 움직임 분절(Movement)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 움직임여서 어떤 수위로 가서 정지(M-H)하는 2개의 분절로 이루어진 단어, 어떤 수위에서 시작해 다른 수위로 이동해 접촉 또는 정지하는(H-M-H) 3개의 분절로 이루어진 단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눈], [코]와 같이 신체 부위를 지적하는 수화 단어는 정지 분절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항상]이라는 수화는 몸 앞 공간에서 양 손 모두 엄지와 검지를 편 수형으로 하여 양 손의 검지를 마주보게 하는 수향으로 상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움직임 분절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또한 [맞다]라는 수화 단어는 손가락을 다 펴서 모은 수형과 손가락을 위로 하고 손바닥은 왼쪽으로 향한 수형인 채로 움직여 턱에 검지를 갖다 대는 두 개의 분절(M-H)로 이루어져 있다. [잘하다]라는 수화는 오른손(우세손)이 왼쪽 하박의 시작점(팔꿈치)에서 왼쪽 하박(아래팔)의 끝점(손목)으로 이동하는 정지-움직임-정지(H-M-H)의 3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조음소인 수형은 다섯 손가락을 붙여 편 모양이며, 수형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고 수위는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바뀐다. [과장]이라는 수화는 움직임-정지-움직임-정지(M-H-M-H)의 4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수화는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팔의 손목 부분에서 중간 부분으로 움직여 잠깐 접촉했다가 다시 팔꿈치 쪽으로 움직여 갖다 대는 형태다.

#### 다) 복합구조를 가진 수화 단어

수화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 내는 방법은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합성법, 그리고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법이 있다. 그러나 수화는 시각언어이므로 음성언어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고 했다. 즉, 수화는 음성 언어와는 달리 수형, 수위, 수동과 같은 수화의 조음소가 동시에 결합하는 동시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정지와 움직임의 분절로 구성된다는 연속성의 특성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음성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 형성 과정이 있다. 즉 단일어에 해당하지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단어 생성이다. 따라서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단어 생성 방법을 살펴본다.

첫 번째 방법은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는 것으로 합성법과 파생법이 있다. 이러한 합성과 파생에 의해 형성된 수화 단어는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음자질의 변화뿐 아니라, 어근에 해당하는 기본구조에 다른 분절 구조가 첨가되거나 삭제된다. 즉, 분절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논]이라는 수화는 [물]과 [밭]이라는 수화가 결합한 복합어다. 이때 [물]이라는 수화는 정지(H) 분절로, [밭]이라는 수화는 움직임-정지(M-H) 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단어가 결합한 [논]은 정지-움직임-정지(H-M-H)가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각언어인 수화에서만 나타나는 조어 방법으로 어원적으로는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구조를 가졌지만 어근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의 분절 층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형성 방법이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를 김칠관(1996)은 복합구성 단순어라 했다.

예를 들어 [아들]이라고 하는 수화는 [태어나다]라는 수화에서 수위와 수동을, [남자]라는 수화에서 수형을 가져와 결합한 형태다. 즉, 이 [아들]이라는 수화는 어근에 해당하는 [태어나다]라는 수화의 분절구조인 정지-움직임-정지(H-M-H)에서는 변화가 없고, 조음자질인 수형만이 [남자]와 같은 수형으로 변화한 것이다.

#### 4) 한국수화 통사론

한국수화는 한국어와는 분명히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 이는 한국수화가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수화의 통사적 특성을 문장 안에서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실현되는 가를 통해 살펴본다.

##### 가) 주어의 실현

한국어는 조사를 통해, 영어는 어순을 통해 서술어의 주어를 나타낸다. 한국수화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은 서술어(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일반 동사인 경우, 한국어와 같은 조사가 없으므로 어순 즉, 서술어의 주어를 서술어 앞에 놓음으로써 주어를 나타낸다. 그러나 서술어가 여러 개이거나 복문인 경우는 주어를 일정한 공간에서 해보인 후에, 그 공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주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수화를 함으로써 그 서술어의 주어를 나타낸다. 둘째, 굴절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손 모양을 통해 주어를 나타낸다. “꽃이 핀다.”, “자동차가 간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피다], [가다]라는 동사의 손 모양이 주어를 나타낸다. 이는 수화가 가지는 동시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꽃] [피다]라는 수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 피다]라는 수화 하나로 실현이 되며, [자동차] [가다]로 표현하지 않고 자동차라는 손 모양을 한 채로 [가다]라는 동사를 표현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가다’와 ‘사람이 가다’는 수형이 주어를 나타내고, 손동작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방향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출발점이 주어가 된다. 즉 수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위치가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가리킨 공

간에서 동사의 움직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주다”라는 문장의 수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단계: [아빠] 오른쪽 기준점 지시

2단계: [엄마] 왼쪽 기준점 지시

3단계: [꽃], [주다]

오른쪽 - 왼쪽

그리고 [주다]라는 수화를 할 때, 오른쪽 기준점에서 왼쪽 기준점으로 이동시켜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주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엄마가 아빠에게 꽃을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기준점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자격을 지닌다.

#### 나) 목적어의 실현

한국수화에서 목적어를 나타내는 방법 역시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사랑하다] [좋아하다]와 같은 일반 동사의 경우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서술어의 목적어가 여러 개이거나 복문인 경우는 목적어를 일정한 공간에서 한 후에 그 공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주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수화를 함으로써 그 서술어의 목적어를 나타낸다. 둘째, 굴절 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수형을 통해 목적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국수 먹다]와 [빵 먹다], [밥 먹다]는 [먹다]라는 수형에 의해 목적어가 나타난다. 이 또한 수화가 가지는 동시성으로 동사의 수형에 목적어가 병합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셋째, 방향동사인 경우는 동사의 도착점이 목적어가 된다(주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음). 또한 [돕다] [가르치다]라는 수화처럼 양 손 수화인 경우는 비우세손이 목적어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세손의 방향에 의해 목적어를 나타낸다.

#### 다) 관형어와 부사어의 실현

한국어에서는 관형어가 꾸밈을 받는 체언 앞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한국수화에서는 이러한 한정적 표현 없이 서술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며 2개의 문장으로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큰 집을 샀다”라는 문장의 경우도 [나] [크다] [집] [사다]라고 수화를 할 경우는 “내가 크고, 집을 샀다”라는 의미로 왜곡된다. 따라서 [나] [집] [사다] [집] [크다]라고 해야 한다.

부사어의 경우는 별도의 수화 단어 없이 비수지 기호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 어휘를 통해 명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즉 “철수가 빨리 달린다.”의 경우에 [달리다]라는 수화를 하면서 동사의 움직임의 속도나 얼굴 표정을 통해 나타내거나, [달리다] [빠르다]처럼 동사 뒤에 형용사를 연이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나는 산에서 공부한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나] [산] [공부하다]라고 하면 ‘나는 산을(에 대해서) 공부하다’라는 의미로 왜곡된다. 물론 장소를 나타내는 수화 어휘를 사용해 [나] [산] [곳/에서] [공부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따라서 [나] [산에 오르다] [공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라) 부정 표현

한국수화에서 부정문은 부정을 나타내는 수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수지 기호를 사용해서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즉 부정을 나타내는 수화 어휘가 없더라도 [먹다]에 고개를 흔드는 비수지 기호가 동반되면 “먹지 않다”가 된다. 엄미숙(1996)은 ‘없다’ 부정법, ‘아직’ 부정법, ‘못하다’ 부정법, ‘아니다’ 부정법, ‘안 되다’ 부정법, ‘말다’ 부정법, ‘모르다’ 부정법의 일곱 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서는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부정하는 부정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사실 진위 부정으로 [안/아니 -아니다] 부정법이다. 이는 동작하는 주체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을 때 사용한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는 [그] [학생] [아니다]로 한다. 둘째는 능력 부정으로 [못/-지 못하다] 부정법이다. 이는 능력이나 외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때 사용한다. “나는 수화를 못해요”는 [나] [수화] [못하다]로 한다. 셋째는 상태나 존재 부정의 부정으로 [없다]라는 수화로 나타낸다. 이는 시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서술어에 내포된 의미가 없을 때 쓰이며, 사실의 진위를 부정하거나 능력의 부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 “동생은 예쁘지 않다”는 수화로 [동생] [예쁘다] [없다]로 하면,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어제] [비] [없다]로 한다. 넷째는 완료 부정으로 [아직]이라는 수화를 사용한다. 즉 어떤 동작이나 행동의 완결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라는 문장은 [오늘] [아침] [먹다] [아직]으로 나타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지 말아라/말자]와 [안 된다]라는 부정형이 있다.

이제 수화는 손짓이나 제스처가 아니며 의사소통의 보조수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우리말(한국어)과 다르기는 하지만 언어로서의 자격을 갖춘 완벽한 언어이다. 따라서 한국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권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교육과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복지 한국, 선진 한국의 모습이다.

## 마. 농사회와 농 문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청각장애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시각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이들만의 수화언어 공동체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문화가 존재하듯이, 이들에게도 시각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 즉,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청인들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농인들은 그 농 사회에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그들만의 농 문화는 청인 문화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지만 또 그들만의 공동체인 한국 이민자들만의 모임이 있다. 이들은 주말에는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만의 모임에 가서 더 편안하게 의사소통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문화를 누리면서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농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류사회의 듣는 사람들 틈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지만 이들은 의사소통 양식의 다름으로 인해 항상 긴장하고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 속에서 공유하는 문화를 즐긴다. 이러한 농 사회에 존재하는 농 문화는 농인들이 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므로 이들에게 삶의 비타민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농인사회에서 생활하는 농인들이라도 대부분의 농인들은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청인 문화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농 사회와 농 문화를 알게 되고, 농 세계의 구성원들과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된다.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인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농 사회는 농학교이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들은 농인교회, 농인단체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농 문

화는 농인들이 모여 사는 농학교, 농인교회, 농인단체 등에서 생성되고 활성화되고 전승된다.

농인들만의 고유한 문화인 농 문화는 시각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농인들의 행동 특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농인들은 대화를 할 때는 서로 꼭 쳐다보아야 하고 대화 장소도 밝아야 한다. 농인들은 쳐다보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고 어두우면 대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던 농인이 고개를 돌려 상대방을 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는 청인들과는 달리 가볍게 상대방을 치거나 손을 흔들거나 발이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통통 쳐서 진동을 일으킨다. 또는 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불빛을 깜빡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농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은 청인 사회에서는 매우 어색하거나 예의에 어긋나 보인다. 그러나 농인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특히 농 문화와 관련하여 농인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농인들은 개인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기 보다는 모자라는 잠을 보충한다거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집 근처에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주로 여가 시간을 농인 친구들과 함께 영화 관람이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낸다고 하였다. 또한 농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여가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김경진, 2007). 따라서 농인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인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농인들의 요구와 관심에 기초한 문화와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각채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 환경을 구조화한다면 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문화 환경의 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을 고급문화로 이끄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 외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본 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서비스를 본

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한 사례와 영국도서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 가. 미국 테네시주 네쉬빌 도서관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주도인 네쉬빌(Nashville)시에 있는 네쉬빌 공공도서관 내에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LSDHH)를 두어 청각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쉽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네쉬빌 도서관의 농인과 난청인을 위한 도서관지원센터(LSDHH)를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사례를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에서의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1) 역사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LSDHH)는 1978년에 네쉬빌시 내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TTY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다가, 1979년에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서와 미디어 자료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이 센터는 농사회에 뉴스와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TTY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기금과 합쳐지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TTY뉴스 제공과 도서대여 외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자막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점차 농인과 난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농인과 난청인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인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청각장애 이해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네쉬빌시에만 한정되어 제공하던 서비스를 테네시 주 전체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은 처음에는 연방 LSCA(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었다. 그 후

1986년에 테네시주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운영 자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1993년에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연방보조금과 주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재정의 확보가 매년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농사회와 협조하여 매년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2) 지원 및 서비스 내용

이 센터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는 3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미국수화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특히 센터가 시작된 1979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인 Sandy Cohen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출신이며 농인 사회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인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다. 매니저이자 코디네이터인 Sandy Cohen은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접 농아인협회, 농학교 등 여러 농사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었다. 즉, 청각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물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홍보도 농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농사회와 농학교 등과 연계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을 위한 정보와 문화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를 망라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 뿐 아니라 교육, 통역, 의료, 보조기기, 고용, 주거, 재정지원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지역별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학교, 농인

단체, 농인교회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홍보도 이 센터의 웹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네쉬빌시 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전역에 사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농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모이는 곳일 뿐 아니라, 웹 사이트를 통해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므로 예전 기숙제 농학교와 같이 농문화의 산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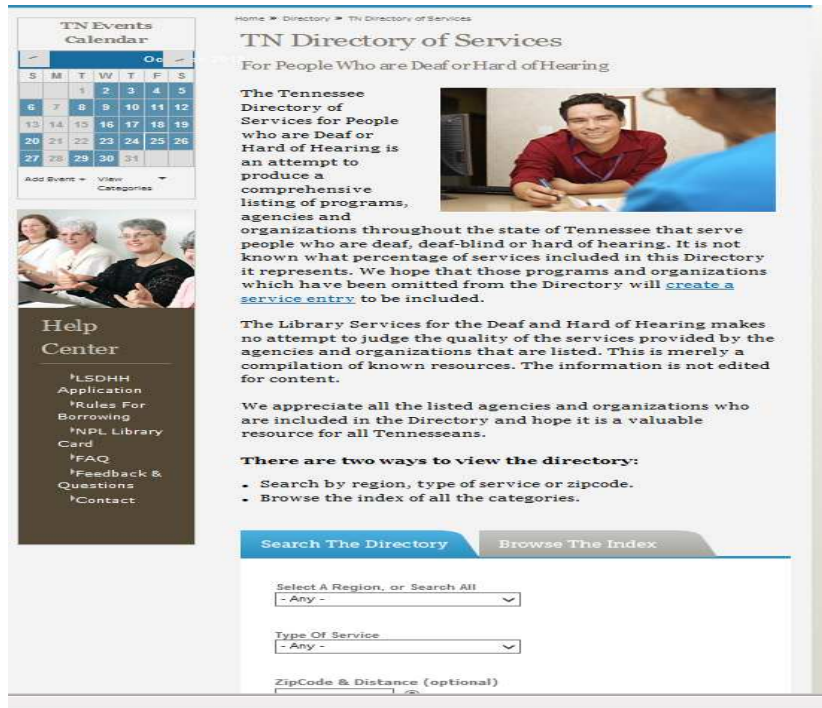
- 청각장애 관련 도서 및 영상물 등 자료 수집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도서대여
-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각장애 이해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문화·생활 정보 제공
- 수화통역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다음 그림 II.2는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LSDHH)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도서관 관련 소식 뿐 아니라, 농아인 협회와 같은 농사회의 관련 기관, 농아인교회, 농학교 등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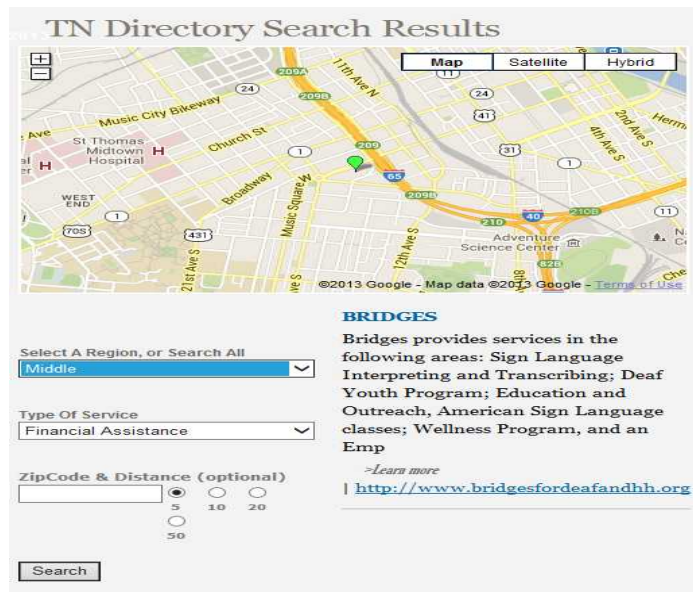


<그림 11.2>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홈페이지 메인화면

그림 11.3와 그림 11.4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이다. 여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1.2에서 원하는 지역과 서비스의 종류를 넣어 치면 그림 11.3처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곳의 주소와 지도 그리고 자세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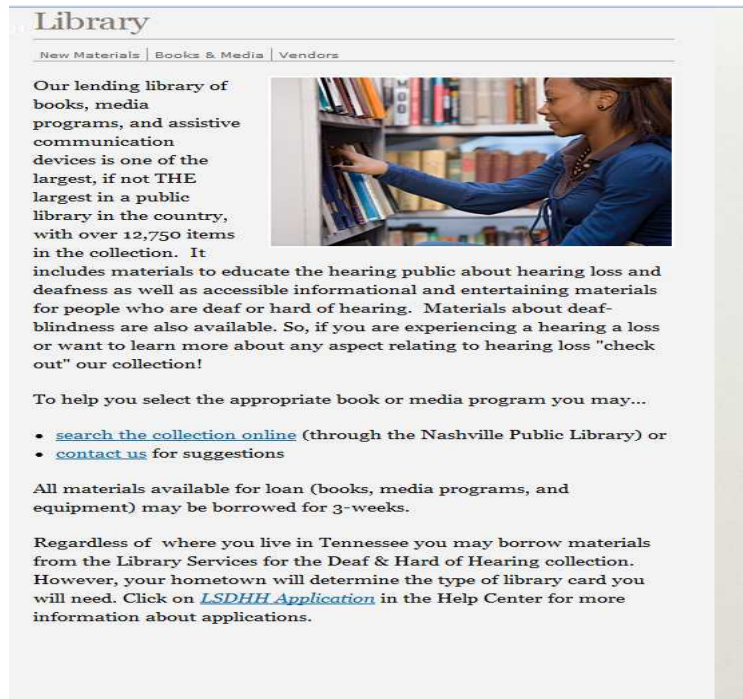


<그림 11.3> 프로그램 신청 지역과 서비스 제공 화면



<그림 11.4>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와 주소

그림 11.5는 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이다. 여기에서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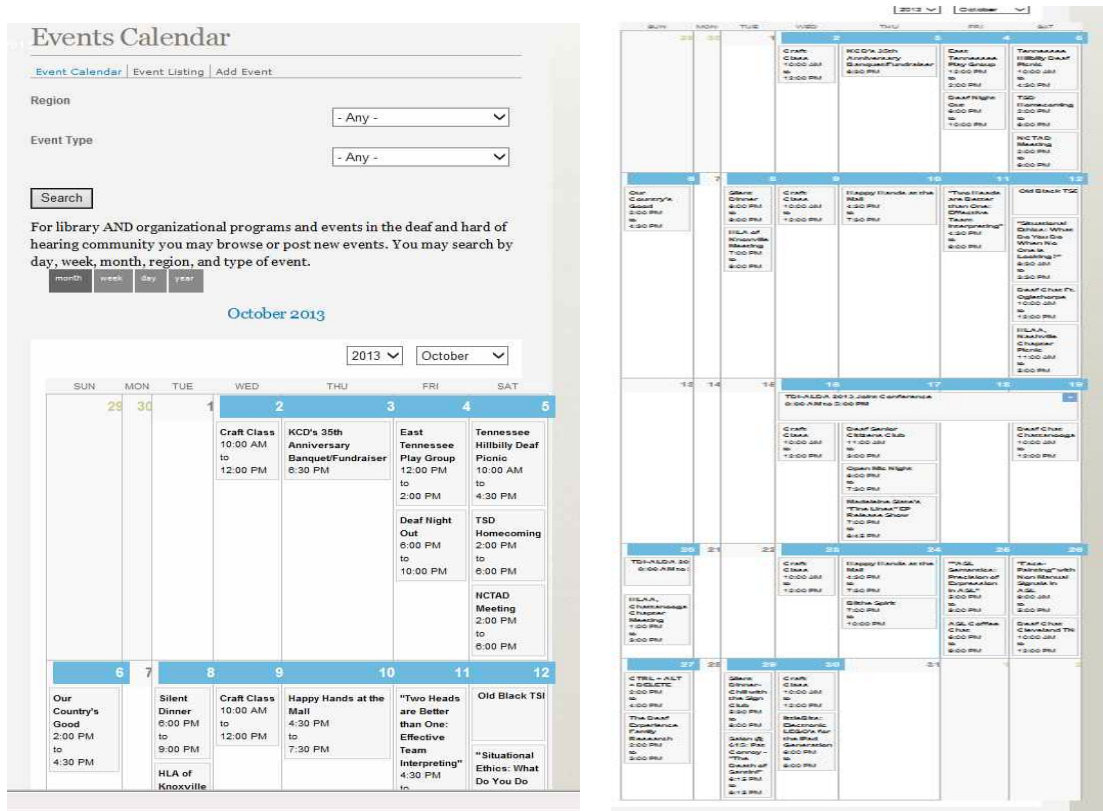
<그림 11.5> 도서관 안내 화면

그림 11.6은 교육(학습)과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이다.



<그림 11.6> 교육 관련 서비스 안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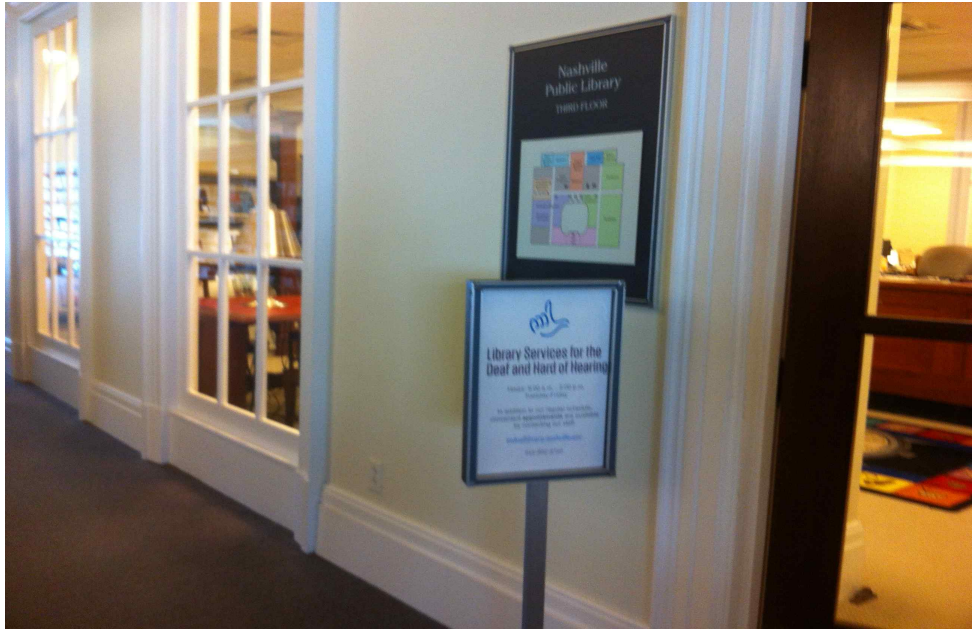
그림 II.7은 도서관이나 청각장애(농)관련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날짜별로 제공하고 있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는 지역별, 행사의 종류별, 날짜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II.7> 관련 행사 검색 화면

### 3) 물리적 환경 및 비치 자료

이 센터는 네쉬빌 공공도서관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책을 보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 별도로 마련된 분리된 공간에는 청각장애 관련 잡지와 유아 및 아동용 도서가 일부 배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책을 보거나, 세미나를 할 수도 있으며 편안하게 모여 쉬기도 한다. 그림II.8은 센터의 입구이며, 그림II.9는 센터 안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데스크이다.



<그림 11.8> 센터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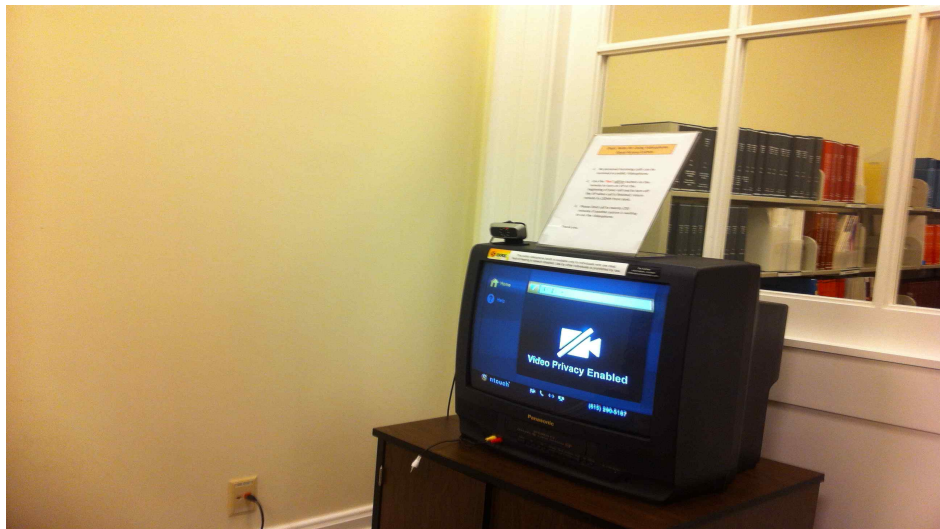
<그림 11.9> 안내 데스크

그림 11.10은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책을 보거나, 쉬거나 또는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청각장애인들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책을 읽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II.10>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림 II.11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그림 II.11> 영상 통화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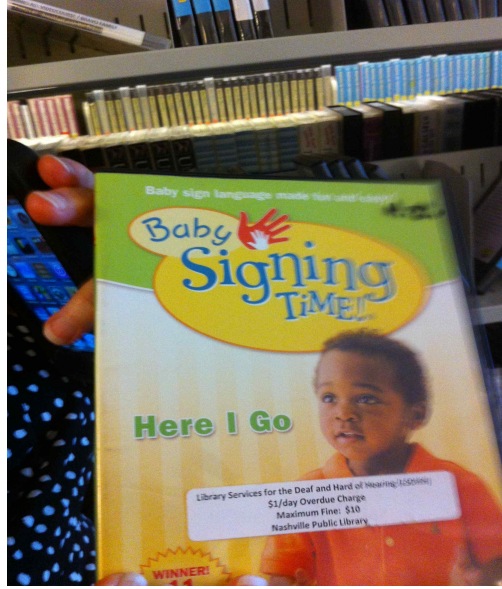
그림 II.12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 안에 비치되어 있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이다. 이 도서는 청각장애아동이나 일반 아동들이 농문화와 미국수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서들이다.



<그림 II.12> 센터 안에 진열되어 있는 청각장애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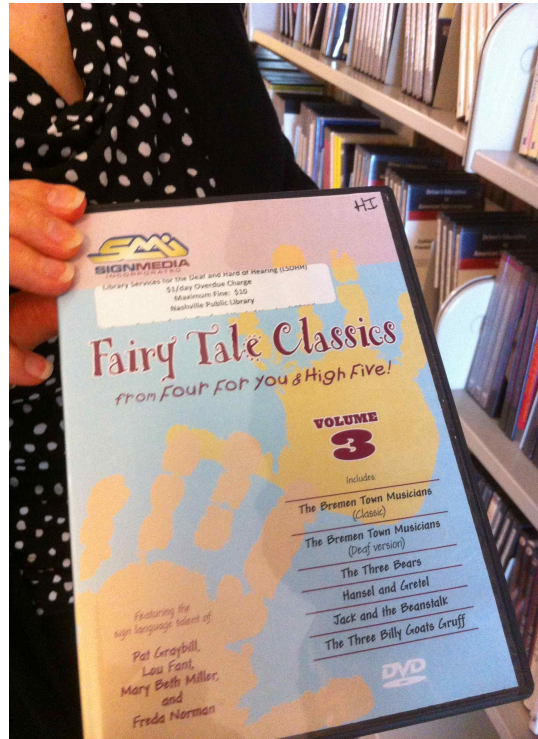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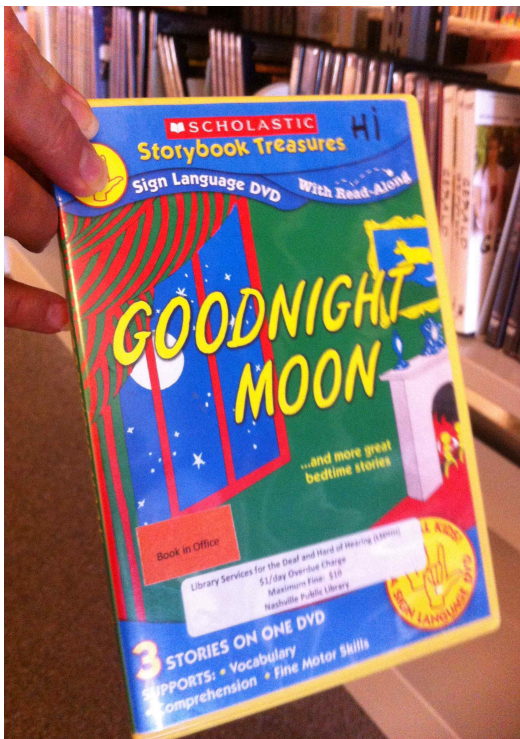
이곳에는 청각장애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 문화수준의 자료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료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도서와 영상자료가 총 망라되어 구비되어 있었다. 청각장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곳에 오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화 관련 자료, 농문화 관련 자료, 농교육 관련 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수화 관련 자료는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화 학습 교재,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동화책에서부터 성인용 도서와 영상자료, 수화로 제공하는 강의 및 생활 정보, 일반인들을 위한 수화교재, 수화관련 전문학술지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농문화 관련 자료는 수화시에서부터 수화유머, 농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농교육과 관련해서는 농교육의 역사에서부터 농교육 방법에 관한 교재, 농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재도 갖추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수화, 영국 수화, 뉴질랜드 수화 등 외국의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교재도 구비되어 있어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수화와 농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였다.

그림II.13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DVD 영상자료이다. 이 영상자료는 주로 청각장애 유아 및 아동들이 미국수화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습 교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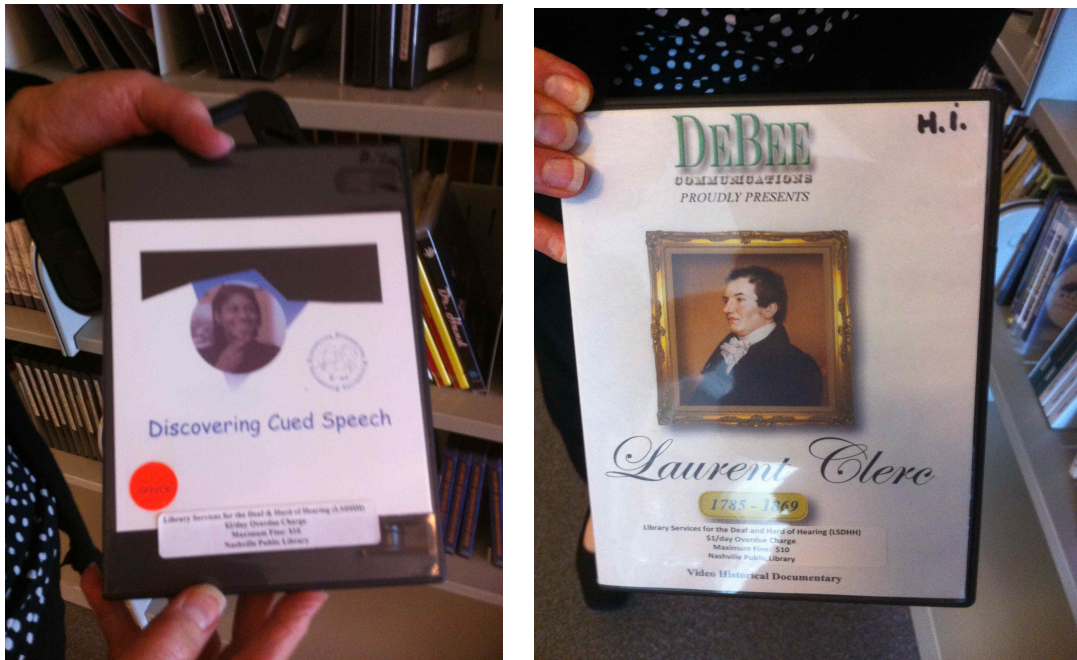
<그림 11.13> 청각장애 유아 및 아동용 수화 학습 영상자료

그림 11.14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동화책을 수화로 읽어주는 DVD이다. 이 수화영상 도서는 단순히 내용을 수화로만 읽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문해와 연결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14> 수화로 읽어주는 아동용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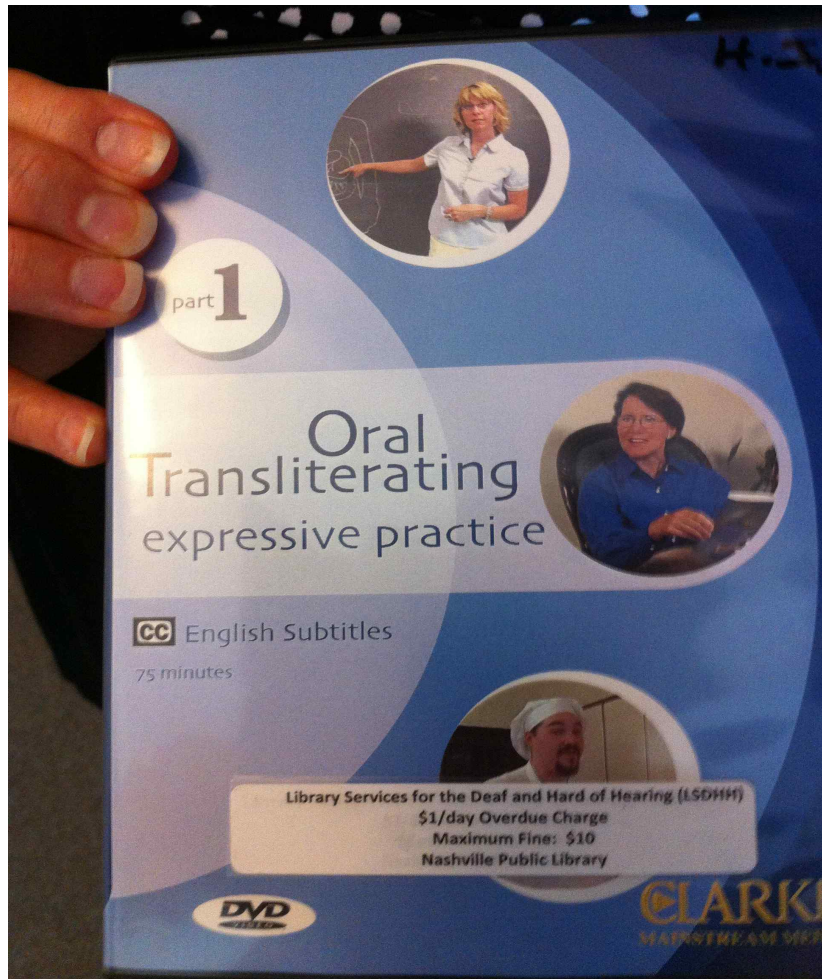
그림 II.15는 농교육과 관련된 자료로 큐드 스피치(Cued Speech)라고 하는 언어지도 방법과 농교육자인 로렌 클락(Laurent Clere)을 소개하는 영상자료이다.



<그림 II.15> 농교육 관련 영상 자료

큐드 스피치(Cued Speech)는 음성언어가 입모양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화를 하는 청각장애 아동이 음성언어를 수용하거나 발음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단서 시스템을 말한다. 즉, 자음은 손의 모양으로 모음은 손의 위치로 나타내면서 발화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와 “마”는 입모양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손 모양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다. 로렌 클락(Laurent Clere)은 18세기 초 미국에 처음으로 농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Sicard로부터 수화를 통한 농교육방법을 배워 와서 토마스 홉킨스 갈로렛(Thomas Hopkins Gallaudet)과 함께 코네티컷 주 하트포트에 농학교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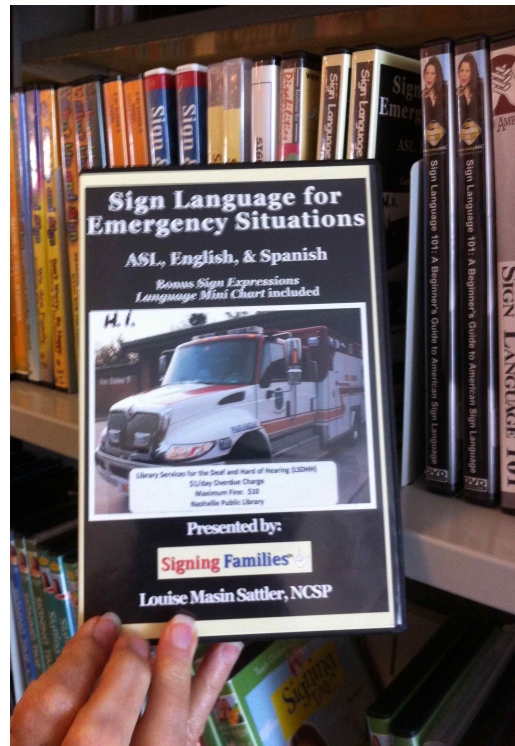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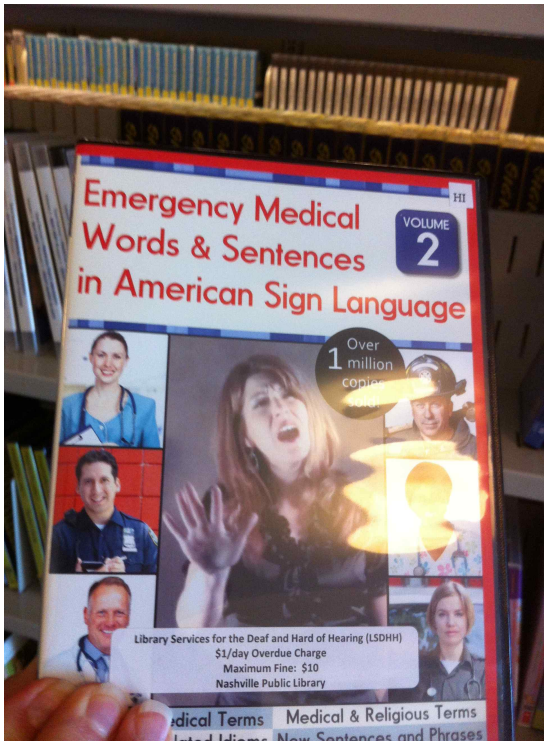
그림 II.16은 구화통역(Oral Transliterating) 학습 교재이다. 구화통역이란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자(일반인)가 하는 말을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천천히 다시 말해 줌으로 구화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빠지거나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주기 위한 통역형태를 말한다. 즉 음성언어의 시각화를 증가시켜주어 제공하는 통역 형태로 수화통역(sign language interpreting)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림 II.16> 구화통역 관련 영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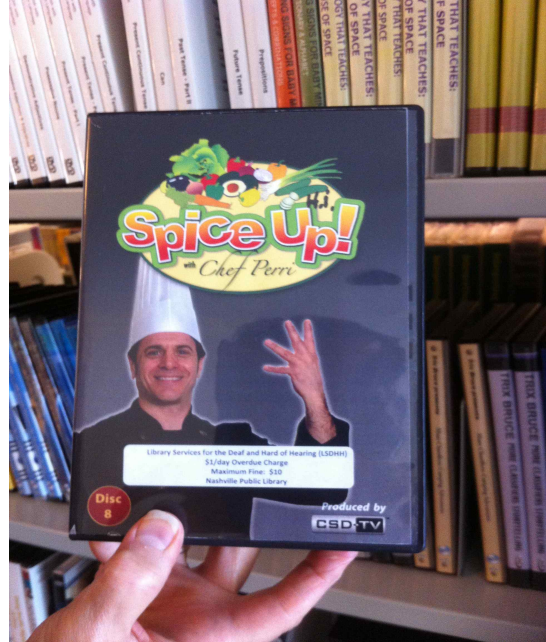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의 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과 학교를 소개하는 도서 및 영상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청능훈련, 독화지도 등 교육 방법론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상 자료 및 도서가 구비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교육 및 수화 연구와 관련된 전문 학술지와 DEAF WAY와 같은 전문적인 학술대회 관련 영상자료도 구비되어 있어 청각장애교육을 전공하거나 수화를 연구하는 청각장애인 학자들도 이곳에 와서 쉽고 편안하게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II.17은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나 문장을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재 DVD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청각장애인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인기 있는 대여 항목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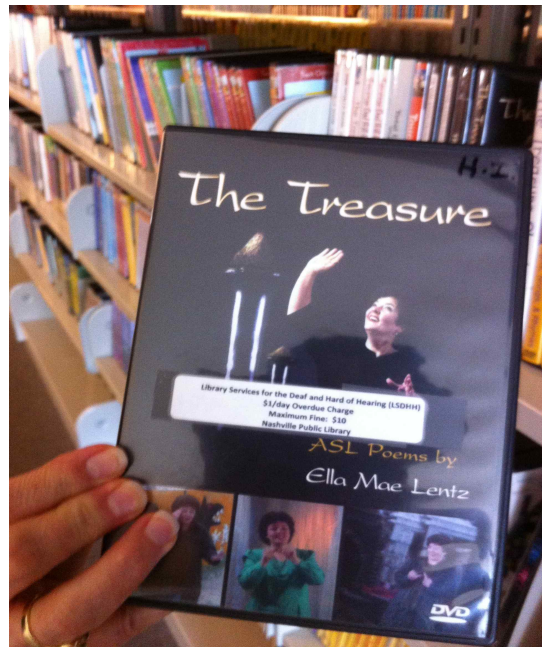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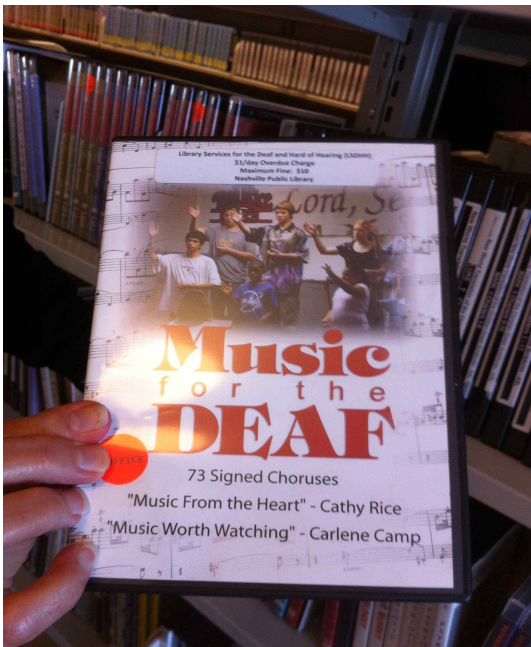
<그림 II.17>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수화어휘 및 문장 학습 자료

그림 II.18은 청각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화로 제공해 주는 영상자료들이다. 왼쪽의 사진은 집에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화재 시 대처 내용을 수화로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 오른쪽 사진은 청각장애인이 수화로 직접 요리하는 방법을 수화로 강의하는 영상자료이다. 이 외에도 요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수화로 설명해 주는 영상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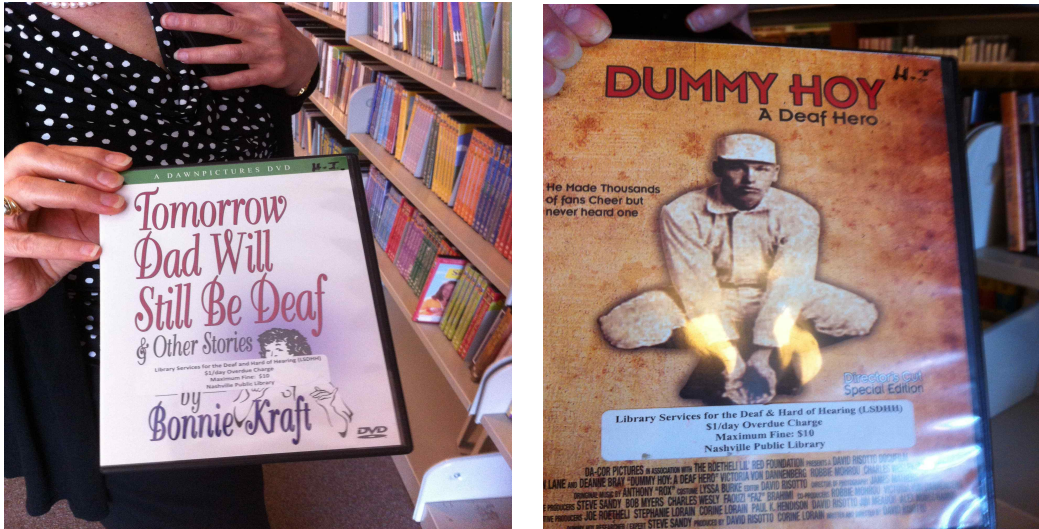
<그림 11.18> 수화로 제공하는 생활정보 자료

그림 11.19는 수화노래와 수화시와 같은 문화 관련 영상자료이다. 이 외에도 수화 유머, 성인을 위한 수화 이야기 등 농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어 청각장애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농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었다.



<그림 11.19> 수화노래와 수화 시

그림 Ⅱ.20은 농정체성과 관련된 영상자료들이다. 이 외에도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농정체성과 관련한 도서 및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림 Ⅱ.20> 농정체성 관련 영상 자료

또한 별도로 마련된 공간 뿐 아니라, 센터 앞의 공간에도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영상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Ⅱ.21은 최근에 출간되었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료들만을 따로 분리하여 센터 앞의 공간에 전시해 놓은 것이다.



<그림 Ⅱ.21> 청각장애 관련 최신 자료 전시

#### 4) 시사점

미국 네쉬빌 공공도서관에 있는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이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청각장애인들의 친숙한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곳에서는 책이나 미디어 자료를 대여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보거나 대여하기 위해 방문한 도서관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여 방문한 길에 청각장애인만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편안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도서관이 문화 공유의 공간, 즉 농문화를 공유하고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LSDHH의 역할은 청각장애인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 ② 수화와 농문화에 익숙한 직원의 배치

이 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했던 직원이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특히 재정적 지원이 매해 일정하지 않아 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문화와 농사회에 애정이 있는 한 직원의 열정이 오늘의 LSDHH를 존재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직원의 배치는 청각장애인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 ③ 농사회 및 농관련 기관과의 강력한 연계

이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뿐 아니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아인협회와 같은 농사회와 연계하여 그 협조를 얻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강력한 연계에는 수화에 능숙하고 농사회와 농문화에 익숙한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농사회 및 농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가가 청각장애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한 열쇠가 된다.

#### ④ 농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미널 역할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LSDHH에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테네시주의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청각보조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LSDHH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서관 정보를 접하게 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on stop으로 제공하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거점도서관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고는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네쉬빌 공공도서관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유지되기 힘들다. LSDHH의 성공의 커다란 한 축으로 네쉬빌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였다.

### 나. 영국 RNID

Yvette 등(1996a, 1996b)은 영국 도서관에서 농인 이용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을 면접하여 그들의 태도와 인식, 우선순위, 제안된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간의 차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인력 및 콘텐츠

##### 가) 정책

영국에서는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Deaf People(RNID)에서 제안한

“Louder than words Charter”가 있어서, 농인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도서관에게 농인과 난청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Lancashire 도서관의 경우 이 헌장에 서명하였고, RNID에서 파견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10 개의 실행 지침에 Lancashire 도서관 나름의 실행 지침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 담당 부서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열성적인 한 개인(informed and enthusiastic individual withing the library service)의 결정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예, St Helens 도서관). 또한 실제 실행 초기에는 장애인 이용자에 관한 지식은 없고, 개인의 선의지(personal goodwill)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책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화를 사용하고 영어에 능한 청각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맡아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하여 3년 동안 RNID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도 하였다(minimal support)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농인 이용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책임자(senior manager)가 있는 경우, 이러한 책임자의 선호에 따른 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The Louder than Words Charter of the RNID

- (1) 농인과 난청인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처럼 정보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2) 농인과 난청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허락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 (3) 많은 농인과 난청인 들의 의사소통 용이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문자 전화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농인 이용자와 만나는 시점과 장소에 유도 루프 장치(Induction loops)나 증폭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5) 도서관 사서 및 직원들이 농인 및 난청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이해 교육(Deaf Awareness Train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농인 및 난청인에게 위험을 알릴 때는 청각 정보와 함께 시각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7)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8) 안내 및 도서 이용 공간은 조용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9) 안내 데스크 등에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화와 독화 사용자들을 위해 적절한 조명과 무반사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 농인과 난청인들이 비디오나 도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수화 자막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II.22> RNID Charter**

나) 농인 공동체

일부 사서들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은 주로 해당 이용자 서비스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주로 의지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눈으로 보이고, 명백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에만 도움이 되었고,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숨길 수 있는’ 청각장애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사서들이 분명하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인식하고 있었고(print disability), 제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감정적인 호소력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사용자들의 경우, 개인 경험만으로는 농인 사용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서비스하기에 부족했으며, 도서관 사서 및 직원들에 대한 ‘청각장애인 이해 교육(Deaf Awareness Training)이 필요했다. DAT가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농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청인 사서들에게는 낮설고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DAT는 도서관 사서 및 행정 책임자들의 농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책임의식(ownership)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더욱이 1995년에 제정된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Bill)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개인의 선의지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와 의무로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을 두 주요 집단으로 나누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ibrary Association, 1992). 한 집단은 보청기와 독화에 의존해 의사소통하는 농인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제1언어로 수화언어(Sign-based language)를 사용하는 농인 집단이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난청인들이 대부분이고, 제1언어로 영국수화(British 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5-6만 명 정도이며, 이는 6명 중 한 명꼴에 해당한다.

#### 다) 청각장애인 이해 교육(Deaf Awareness Training)

DAT에 대해서는 많은 사서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대학 수업에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 일반적인 설명만을 교육받았을 뿐, DAT를 통해 청각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이해가 향상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 중 88%가 DAT에 참여했고, 대학도서관의 사서들 중 17%가 DAT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DAT에 참여했던 사서들의 주된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 청각장애인 이해 향상이 가장 우선이다-Cheshire 도서관
- 도서관에서 수강했던 코스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였다.
- 교육에 부담이 있었지만,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 강사는 많은 것들을 제시했고, 반드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 피드백은 긍정적이었다. 나는 매우 기뻐다 - Bury 도서관
- DAT는 결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배운 것을 실천해보기까지 차이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T를 통해 청각장애인 이용자와 의사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가능해라고 생각에서 청각장애인 이용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DAT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관심이 있는 사서만 DAT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고, 둘째, 누가 DAT 강사를 맡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 유머러스하고 많은 실제 예를 보여줄 수 있는 농인 강사가 있는 반면에 농인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청기 포함 보조청취기기에 초점을 맞춘 강의에 그쳐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슈들도 존재했다.

- 사서들 중 한 명이 농인을 위한 서비스(수화 및 농문화 배우기, 농인 관련 도서 구입 등) 제공 책임을 도맡아야 하는가?
- 대부분의 사서들과 직원들이 DAT에 참여하고 수화를 배우고 농인 응대 업무를 맡아야 하는가?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두 번째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한 명이 농인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는 경우, 한 개인에게 과중한 호출과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장서

농인 이용자들을 위한 인쇄 도서들로 청각장애인과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도서들을 구비하였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영국수화를 배울 수 있는 책과 비디오들로 구비하고 있었다. 이들 자료들은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See Hear!, British Deaf News 같은 농인 관련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

농인 관련 도서나 자료들 중 농문화(deaf culture)에 관한 자료는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구화와 수화 사용에 대한 오랜 논쟁에 기인한다. 영국 사서들 사이에서는 Forest Bookshop의 목록이 중요 도서 목록 출처 역할을 했는데, 이 목록에는 출판된 농인 관련 전기, 수화와 독화, 농문화, 농교육, 농아동용 도서 등이 정리되어 있다(Forest Bookshop, [deafbooks@forestbk.demon.co.uk](mailto:deafbooks@forestbk.demon.co.uk)).

농인 이용자를 위해 구축한 장서 영역은 ‘high-content/low-skill book’이었다. 이런 유형의 도서들은 영어 습득 이전에 청력을 손실한 농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Oldham 도서관은 학습장애인들을 위해 ‘Handi read’ 목록 도서들을 구입하였고, Bolton 도서관은 AVNTI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Book Trust 목록 도서들을 구입하였다. 이들 자료들은 청각장애인 이용자들도 염두에 두고 구입한 도서들이다.

이렇게 구비한 도서와 자료들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농인 관련 단체나 기관들과 접촉하였다. 예를 들어 Bury 도서관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청각장애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St Helens 도서관에서는 농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농인센터에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이용은 낮은 편이었다. 사서들은 농인을 위한 도서와 자료(비디오 등) 들을 따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듀이 분류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 조사에서 모든 공공 도서관은 농인 이용자를 위한 장서를 따로 구분하여 배치하지 않았다. Bolton 도서관의 한 사서는 이러한 배치 방식은 특별한 집단의 이용자들만 해당 서가를 이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농인 이용자 확대를 방해할지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Preston 중앙 도서관의 한 사서는 책 등에 귀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농인을 위한 도서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이 사서는 농인 관련 도서 목록들을 다양하게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Cheshire 도서관에서는 농인과 관련 이슈 자체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Cheshire 농사회 게시판에 게시할 목록과 Eye Say 비디오 잡지에 실을 계획이었다.

#### 마) 비디오

St Helens 도서관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인 클럽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농인들은 보다 많은 비디오 자료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비디오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자료들을 농인센터를 대상으로만 대출하는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대출 서비스는 무료였지만, 자료들은 고가였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일부 비디오 자료에 농인 이용자들을 위해 문자 자막을 제공하였다. 이들 자막 자료들은 Cheshire에 위치한 농인을 위한 국립자막도서관(National Subtitling Library for Deaf People, NSLDP)에서 제작한 것들이다. NSLDP에서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아동용 비디오 개방 자막을 삽입해 오고 있다. 일부 영화는 영화사에서 자막수신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폐쇄자막을 직접 삽입하고 있기도 하다. Cheshire 도서관의 오디오-비디오 자료 담당 사서에 의하면 1995년 4월 대여 순위 10위 안에 드는 비디오 중 8개는 폐쇄자막을 제공했고, 매달 10개에서 15개의 새로운 비디오를 구입하고 있었다. 폐쇄자막으로 제공할지 여부는 영화사에서 결정하였고, NSLDP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영화나 비디오에 문자 자막을 삽입할지는 농인 공동체가 결정하였고, 영화 제작자의 너그러움에 의존하지 않았다.

또한 Derby에 위치한 국립수화비디오센터(National Sign Language Video Centre)에서 영국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해 책과 동등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화번역 비디오를 만들어 공공도서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바) 도서관 이용 교육

영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도 농인들을 도서관으로 오게 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나는 Cheshire 농인 공동체가 개최한 교육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다. ... 나는 농학생 교육에서 많은 일을 해왔던 농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도서관은 농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는 인쇄 도서나 영어 문자가 외국어인 나이 든 세대 중 한 사람이었다. .. 젊은 농인들 중 한두 명이 포럼이 끝나고 나에게 동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Cheshire 도서관 사서

농인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적 장벽 (cultural barrier) 때문일 수 있다. 영국 수화는 시각 언어고, 만약 도서관에서 (인쇄도서 중심) 책 문화를 강조하고 격려하는 곳으로 인식된다면, 농인들은 배제 당한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영어 등의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 세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 대학 시절 청인 학생들보다 도서관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강의 노트와 관련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 상황에서,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도서관 사서들이 도서관 이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신입생 시기이다. - Alison Heath(젊은 농인)

그러나 대학 도서관들은 신입생들을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 시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한 대학의 도서관의 경우, 모든 장애학생들은 반드시 도서관 담당 사서를 방문하도록 학생 견학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사서가 농인 이용자를 만남으로써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Lancaster 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담당 사서가 농학생들에게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농인들에게 도서관에 올 수 있고, 도서관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사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서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서 만나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생들이 사서를

자주 찾아오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초기에는 많이 찾아오다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넓어진 후에는 찾아오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 Lancaster 대학교 사서

그러나 농인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농인과 면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농인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 것. 사서 얼굴에 밝은 조명을 비출 것 등). Norton(1992)은 교수-학습 상황을 포함해서 농인 및 난청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참고문헌들을 정리한 바 있다.

농인들은 도서관 콘텐츠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집단이나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 독화 또는 수화 사용 농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 안내 콘텐츠를 인쇄 자료 및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자료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학습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때 농인 이용자들의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각적 의사소통의 장점을 이해하고 도서관 이용 자료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사) 문자 전화기(minicom)와 전화중계서비스(Typetalk)

Cheshire 도서관에서는 PLDIS(Public Library Development Incentive Scheme)의 지원을 받아 농인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공학기술 및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인과 난청인들이 최신 공학기술 및 기기들을 활용하여 다른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장벽을 넘어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듯이 농인 및 난청인들이 다른 장애인 및 일반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는 미니콤(문자 전화기의 일종)을 설치하였는데, 농사회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고, 몇몇 도서관에서는 비디오폰을 설치하였다.

미니콤은 영국에서는 농인을 위한 정보접근 서비스의 표준이 되어 왔는데, 농인들은 외부에서 미니콤을 통해 도서관에 연락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몇몇 도서관에서는 무료 미니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도서관에 온 경우 외부에 무료문자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한 공공도서관에서는 모든 경우 미니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니콤 이용률이 낮았다고 한다. 이는 대중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았고, 개인 소유가 아니었고, 좌석이 불편하고, 도서관 사서들과 농민들에게 이용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Cheshire 도서관 사서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의 경우, 미니콤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있는 편이었으나, 큰 도서관의 경우, 개방된 큰 공간에서 미니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실패의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들의 낮은 이용은 자기예언효과를 발휘해서, 도서관 사서들을 낙심시키고, 미니콤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대학 도서관의 미니콤 번호로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는데, 바쁜 업무로 인해 도서관 사서들은 자신의 업무와 전화 응대를 하고, 어찌다 걸려오는 미니콤 콜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 공공도서관 사서는 미니콤 전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의 문의에 답하고,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음성 전화해 답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미니콤 전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공공도서관의 한 사서는 미니콤과 함께 문자 전화기 사용자와 음성전화기 사용자의 전화 통화를 중계해 주는 Typetalk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농민들의 도서관 전화 문의가 늘어났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 아) 건물

보청기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유도 루프(induction loop)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농민과 난청인의 도서관 이용과 정보접근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몇 가지 존재한다.

정보의 시각화를 위한 시설 및 기술들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독화 사용 농민을 위해 얼굴에 충분히 밝은 조명(good lighting)을 비추는 것이 도움이 되고, 도서관 내에 안내 표시를 잘 해두는 것도 청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좋은 음향학적 환경이 조성된 방을 제공하는 것도 난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배경 소음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해서(카펫이나 커튼 등) 소음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 내 많은 공공도서관들 어두운 조명(bad lighting), 도서관 안내 표시, 음향학적 환경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 자) 컴퓨터

대학도서관 한 사서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인터넷 이용 코너를 운영하며, 미니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과 함께 장애학생들은 워드 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청각장애학생들과 같은 영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워드프로그램의 스펠링 및 문법 점검 기능을 활용해서 보다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도서관과 농인 이용자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문자 대화도 가능하다. 도서관의 한 사서는 농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농인 동료와 이메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농인 동료는 존엄성을 느끼고,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고, 빠르고, 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메일은 획기적인 약진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특별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메일 목록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농인 공동체 구성원들이나 각 개별 농인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었다. EMDCG(Electronic Mail Deaf Consumer Group)에서 운영하고 있는 Deaf Mail에서는 다양한 이슈들(농인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사회적 사건에 대한 방송물 등)을 다루고 있다.

#### 차) 비디오폰

영구 수화 사용 농인을 위해 제공된 첫 번째 서비스는 비디오폰의 설치였다. Cheshire 도서관의 경우, 4대의 영상전화기를 구입해서 2대는 농인 센터에 설치하고, 2대는 도서관에 설치하였다. Camden 도서관도 TeleCommunity fund of the European Union의 후원을 받아 영상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농인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해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Cheshire 도서관은 Cheshire 농사회(CDS)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정책 관련해서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농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주었다고 한다. Camden 도서관의 경우, 영국 수화에 능하고 이전의 경력을 통해 농인 공동체의 요구에 민감한 직원을 채용하여, 농인 공동체와 직접 접촉하도록 하였다. 이 직원은 영국 수화에 능하였지만, 처음에는 청인이기 때문에 불신을 받았다고 한다. 차츰 영상 전화기를 통해 원거리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인들의 도서

관 이용을 격려하고, 농인 사회 및 각 농인들과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써, 농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사서로부터 정보를 얻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 관련 자원들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

## 다. 일본 히라카나(枚方)시 시립 중앙도서관

### 1) 역사

히라카타 시는 오사카 부(府)에 속해 있으며 인구가 41만명 정도가 되는 도시이다. 이 도시에는 8개의 도서관과 11개의 분실, 26개의 자동차문고 스테이션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 히라카타시 시립 중앙도서관이다. 이 중앙도서관은 1952년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북 스테이션 개설을 모태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 초 시청에서 장애인 TO로 채용된 청각장애인 직원을 도서관에 배치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0년 신체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정보제공 시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 후생성(현재의 후생노동성)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 34조와 시행규칙 18조에 의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자막(수화)이 있는 비디오를 제작, 대여하고 수화통역사를 파견하며 정보기기대여 등을 담당하는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히라카타시 중앙도서관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신체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34조 시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은 무료 또한 저렴한 요금으로 점자간행물, 시각장애인용 녹음자료, 청각장애인용 녹화자료, 기타 각종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전적으로 시청각장애인 이용하는 것을 제작하고, 또는 이것을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제공하고 또는 점역(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수화통역 등을 행하는 자의 양성 또는 파견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지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다.

▷ 신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법제34조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는 점역 또는 수화통역 등을 행하는 자의 양성 또는 파견, 점자간행물 등의 보급의 촉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기기의 대여,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상담 등으로 한다.

그 후 1991년 청각장애인과 교류회를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후 도서관 직원들도 수화를 배우고 직원 중에 수화통역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 2013년 현재 히라카나시 시립중앙도서관에는 청각장애인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원 및 서비스 내용

히라카나시 중앙도서관의 지원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설비 및 운영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설비 및 운영 기준

▷ 주요 업무: 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은 청각장애인용자막, 수화가 들어가 비디오 제작, 대여 사업 + 수화 통역상의 파견, 정보기기의 대여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청각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업

▷ 관리 운영

1) 교양, 오락, 학술 분야 등 다양한 각 분야에 걸쳐 청각장애인용 비디오 제작하고 비치, 새로운 비디오 제작 및 비치에 만전을 기함

2) 다른 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 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청각장애인용 비디오의 상호 대여를 추진하여, 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촉진

3) 청각장애인용 비디오 목록을 작성 배포하여 이용을 촉진

▷ 직원

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 시설장은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촉진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있는 자로, 청각장애인의 정보대책, 문화활동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 이용 요금

1) 이용료는 무료 또는 저가

2) 운송료 : 유편규칙(소화22년 체신법령) 제39조 6.2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정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함

출처: 全國聽覺障害者情報提供施設協議會、2007、『聽覺障害者情報提供施設のあり方検討會報告書』、p8

위의 지침에 의해 실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특성 상 가장 커다란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청각장애인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대출카드에 ‘귀마크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서관 창구에서 이 스티커를 보이면 직원이 수화와 필담 등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화가 가능한 직원은 가슴에 수화 배지를 달고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초한 보청기 등의 보청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림 II.22는 5층 장애인서비스 코너에 비치된 필담기기이다.



<그림 II.22> 5층 장애인서비스 코너에 비치된 필담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맨 처음 실시한 것은 1995년에 만화를 비치하고 대여하는 것이었다.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만화 등을 비치하면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작되었다. 즉, 청각장애인에게 ‘만화이용권’을 발행하여 도서관 안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원하는 만화를 골라 대출창구에서 대출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 후 만화 소장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로 특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화를 사무실 안에 비치하지 않고 일반도서와 같이 개방 서가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빌리고 싶다.”

라는 청각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 3층 만화서가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23은 3층에 비치된 만화 서가이다.



<그림 II.23> 3층 만화서가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의 정도와 실청한 시기에 따라 문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차도 있지만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 중에는 문자나 문장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책을 잘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만화는 문장이 짧고 간결하며 그림이 함께 있어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장면에서는 음성언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만화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많은 청각장애인에 만화는 일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규칙을 학습하는 매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즐겨 본다고 하였다. 이에 특별히 청각장애인에게 인기가 있는 만화 리스트도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히라카나시 도서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동화 읽기 등 수화로 즐기는 이야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종종 참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매월 네 번째주 토요일에는 아동을 위한 수화로 동화 읽기 모임이 있으며, 연 3회 성인을 대상으로 ‘수

화 북 토크'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화로 하는 강연 등을 촬영하여 DVD 수화책(수화영상도서)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대여하였다. 그림 II.24는 수화책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이다.



<그림 II.24> 수화책 제작 스튜디오

#### 라. 국제도서관협회

미국에서는 국제 도서관 협회 및 기관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에서 출판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Library Services to Deaf People)은 2000년 John Micheal Day가 편집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1988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도서관이 주최한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회의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3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1년 IFLA의 승인을 받고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 후 지난 10년동안 기술의 엄청난 발전,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에서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방식, 예를 들어 온라인 카탈로그 외 디지털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

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은 농사회에서 그들 상호간 그리고 더 큰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www(World Wide Web) 상의 Kwa Zulu Natal Deaf Association <<http://www.tradepage.co.za/kznda/>> 는 전세계 농인들이 채택한 대표적인 사이트다. 이러한 인터넷과 www는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고 농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농사회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중심도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때문에 초기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1991년에 출판된 가이드라인은 세계 농아인 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과 여러 차례 논의와 검토를 거쳐 1999년에 IFLA 회의에서 최종 승인 및 출판을 위해 공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에 출판된 가이드라인은 세계 도서관 협회 및 기관 연맹(IFLA)과 세계 농아인협회(WFD)가 공식적인 공동 협의 관계에 의해 수립한 것이라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가이드라인 제 2판의 서문에서는 가이드라인 출판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농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농(deafness)이란 그냥 보아서는 구별되지 않으며 농인 당사자들도 주류사회에 그냥 섞여 사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장애’로 불린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일찍이 농인이 된 사람들은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과 농인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구의 상당수가 농인이고 도서관은 농인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서관에서 농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농사회(deaf community)란 용어를 이 다양한 집단을 다 포함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즉, 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 수화와 문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구화인, 성인이 되어 농인이 된 사람, 노인성 청각장애인, 소수언어사용자, 난청인, 농인가족을 둔 청인들까지 포함하여 농사회라 지칭한다.

농사회를 위한 모든 특별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는 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농인들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

요하지만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이 농인들의 도서관 이용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그리고 학술 도서관 뿐 아니라, 정부, 경제, 산업, 예술, 군대, 병원, 교도소 등 모든 기관들을 위한 특별 도서관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나 지역의 제약성으로 인해 내용이 조절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은 인력, 의사소통, 자료, 서비스, 프로그램 마케팅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력

- 농사회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실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학위 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은 전문 도서관 사서에게 맡겨야 한다

- 도서관 직원은 농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 농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을 채용할 때, 도서관에서는 농사회와 신뢰관계가 있거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농인인 직원을 고용한다면 도서관은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 도서관학 학위를 주는 학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정규 기본교육과정과 도서관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속에 농사회에 대한 서비스에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전국 규모의 도서관이나 가능한 경우 지역 규모의 도서관들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서관에 농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국 단위의 도서관 협의체는 농사회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회원 기능을 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 ② 의사소통

- 모든 도서관 직원은 농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훈련 받아야 한다. 즉 농인들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에서는 농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맡고 있는 직원 중 최소한 1명은 수화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서비스 직원도 적절한 기본 수화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 각 도서관에는 주요 서비스 장소에 문자전화(TTY)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자 전화 이용이 일반인에게 가능하다면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문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대의 TTY가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 고객 혹은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는 소리증폭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도서관은 인터넷 사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은 농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농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TTY나 이메일을 활용해야 한다.
- 도서관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장치 즉, FM보청 시스템, 적외선 보청 시스템 등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보조 장치와 실시간 자막제공이나 필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텔레비전 시청실을 갖춘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기능이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도서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화나 구어통역, 컴퓨터로 지원되는 실시간 자막(문자통역)이나 노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도서관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농인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고등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자료 비치(collections)

도서관은 농인과 청인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농과 농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도서관은 농인들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 관련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지 않게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은 농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쉬운 어휘와 삽화가 많이 들어간 낮은 수준의 읽기 자료들을 모으고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쇄물이 아닌 시각자료도 도서관의 다른 자료들과 동일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수화로 된 비디오 테입이나 필름들을 수집하고 비치해야 하며 그것들을 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서비스

- 도서관의 모든 자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은 농사회가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을 이용하는 농사회 구성원들이 농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 및 개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은 수화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글을 읽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자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읽기쓰기(문해)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읽기쓰기프로그램은 농민 개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은 온라인 지역 정보나 자료에 농 관련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에 편향되지 않는 다양한 농 관련 전자링크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⑤ 프로그램 마케팅

도서관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농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흔히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한 노력이나 자원이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 홍보물은 농사회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Ⅲ.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시범 운영

#### 1. 시범 운영 절차

시범 운영은 기반조성에서 모델 개발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쳐 절차가 진행되었다. 각 단계마다 운영을 위한 과업이 진행되었으며, 연구진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 거점도서관 관계자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단계별 과업 및 담당인력에 관한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 가. 기반 조성

##### 1) 시범운영 도서관 선정

시범운영 도서관 선정은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핵심 사안이었다. 시범운영도서관을 정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선정하였다. 이런 절차와 선정 기준은 향후 지역 공공도서관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선점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1단계: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연구진과의 협의

2단계: 연구진에서 시범운영도서관 선정 기준 마련

-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
- (청각)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경험 유무
- (청각)장애인 담당 사서의 유무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의 지리적 편리함 정도
-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 제공의 용이성 정도

3단계: 위 기준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서울도서관 채택

4단계: 서울도서관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의

-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서울도서관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 시도
- 연구진이 서울도서관을 방문하여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설명

예)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각장애인/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 수화를 통한 성공적 정보 수용의 가능성 등

## 2) 시범운영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자문회의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대상인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밝은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 1단계: 자문위원 선정

- 문헌정보학 전공교수 2명, 청각장애학교 도서관 담당 특수교사 2명, 농아인협회 현장전문가 2명, 농아인단체 운영자 2명 총 8명으로 구성
- 자문위원 선정 시 도서관과 청각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적절히 참여하도록 구성

### 2단계: 연구진의 자문위원단 운영 방안 마련

- 전체 모임보다는 분과별 모임을 통해 전문 영역별 자문을 구함
- 자문위원과의 협의는 가능한 자주 이루어지도록 함
- 자문위원이 프로그램에 가능한 직접 참여하도록 함

### 3단계: 전체 자문회의 개최

- 연구진에서 기획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언
- 프로그램 운영방법, 참여대상, 청각장애인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
- 프로그램 시범운영도서관과 농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정보환경구축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문화프로그램, 인적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특히 지역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도서관의 서비스 지원
- 중점대상을 정할 때 구화 사용자와 수화 사용자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운영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기를 바람
  - 청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었다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기초적 수준의 문해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농아인교회, 협회, 학교를 등을 다니며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스토리텔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국어와 수화가 동시에 투입될 때 감동이 완전히 다름

- 이와 관련하여 저학년 teller를 누가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
- 농정체성 관련 내용을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함
-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동기를 만든다면 청각장애인들도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임
- 소수라도 도서관에 적합한 인물이 찾아오게 하면 됨
- 인터넷 정보보다는 도서관을 통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수화 영상자료보다는 책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좋음
- 학습에 대한 욕구를 건드려 주어야 함
- 통역에 의해 의미 전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도의 수화 능력을 갖춘 수화통역사가 필요함
- 농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수화를 문자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 ‘수화문자쓰기’ 프로그램이 필요함
- 수화를 잘 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진행자가 있어야 함
- 평가를 위한 설문 시에 내용을 수화로 통역해주어야 함
- 자발적 참여자를 모으기 위해서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잘 정해야 함

## 나. 프로그램 개발

1단계: 서울도서관의 장애인 담당 사서와 프로그램 협의

- 사전 작성된 교육문화프로그램, 정보서비스 계획을 제시
- 서울도서관의 공간 여유에 따른 장소 배정 문제 협의
  -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시간대에 1실 이용 가능
  -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수를 불가피하게 줄임
- 서울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녹아있는 프로그램 포함시킬 것에 대한 의견 제시
  - 디지털카메라 사진 촬영 대신 수화문자쓰기와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추가
  - 독서력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보원 제공 방안 마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각장애인 가정 꾸리기
- 청각장애 프로그램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논을 하지 못함, 이 당시 청각장애인 참가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음. 하지만 연구진에서의 규모는 소규모 : 4-7명, 중규모 : 8-12명, 대규모 : 13명 이상 정도로 계획함

## 다. 운영환경 구축

### 1) 홍보

1단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를 위해 청각장애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진의 인맥에 따라 참가 요청 기관 분담

- 기관 : 농아인협회중앙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학교 :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 단체 : 한국농문화연구원, 소리를 보는 사람들

2단계: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배너 등의 홍보 게시 방안 마련

- 배너는 김한빛 농통역사가 제작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게시판에 게시

3단계: 기관 홍보와 함께 청각장애인과의 면 대 면 홍보

- ※ 연구진이 청각장애 관련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참가자 모집이 성공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청각장애 개인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매개 역할 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함

### 2) 강사섭외 및 수강생 모집

1단계: 강사 섭외 대상자 논의

- 강사는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함
- 예) 이미지메이킹 - 서은영(김연아 및 유명 배우 스타일리스트)

2단계: 수강생 모집을 위해 상기 기관, 학교, 단체의 기관장과 담당자와 수차례 사전 협의

3단계: 농학교와 농기관, 농 관련 단체에 산학협력단에서 협조공문 발송

4단계: 소보사, 삼성농학교, 서울농학교를 통해 참여 기본 인원 확보

### 3)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1단계: 농인 통역사 서울도서관에 상주시킴

2단계: 원격 수화 통역서비스 체제 구축

- 태블릿pc 2대 : 서울도서관 비치용 1대, 건청수화통역사용 1대
- LTE망 사용 ※ LTE망 속도이면 수화 영상에 잔상이 거의 없음

3단계: QR코드를 이용한 도서관 안내 수화동영상 제작

- 도서관 각 실의 이용 안내를 수화 영상으로 제공

4단계: 수화번역도서 비치

### 라. 운영

1단계: 프로그램 영역별로 담당 연구진 배정

2단계: 세부 운영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실시 전 진행계획서 작성
- 참여자의 사전 경험을 고려한 주제 및 소재 설정
- 활동 중심 프로그램 진행 지향
- 강의 내용을 가능한 시각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 촬영을 통한 차시 진행 개선
- 농식수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 배치
- 농문화에 익숙한 수화통역사 배치

3단계: 서울도서관과 프로그램 참여도 및 성과 중간 평가

-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평가 방법 사용 : 질문지를 수화 통역

4단계: 프로그램 진행자와 청각장애 전문가와 진행 내용 및 방법 협의

- 사전 작성된 간행 계획서를 청각장애 전문가인 연구진과 청각장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

### 마. 평가

1단계: 평가의 취지와 성격 규정

-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효과 검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호감도, 이해도를 확인하는 성격을 지님

- 평가의 결과는 향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을 개관할 시에 프로그램 설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2단계: 평가지 작성

- 평가는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계획서 작성 시 평가지도 함께 작성

3단계: 평가 실시

- 평가는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시
- 평가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수화 통역 제공

### 바. 모델 및 매뉴얼 개발

1단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운영 결과 논의

2단계: 모델 개발 기본 방침 설정

- 중간 평가와 종료 평가를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
- 거점 도서관 모델은 기존 도서관을 이용한 통합도서관 형태를 기본으로 함
- 청각장애관련 전문가와 문헌정보학관련 전문가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함
- 실행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델 개발
-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모델 개발

3단계: 모델 및 매뉴얼 개발

<표 III.1> 시범 운영 절차

단계	과업	담당
I. 기반조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시범) 도서관 선정 협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진 거점도서관장 및 담당 사서
	▽	
	거점(시범) 도서관 선정	연구진 거점도서관장
	▽	
	거점(시범) 도서관 운영 협의	연구진, 담당사서 자문운영위원
↓		
II. 프로그램 개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 사서 교육 등 협의	연구진, 담당 사서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 추진계획 작성 및 확정	연구진, 담당 사서 거점도서관장
III. 운영환경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 홍보 (배너 및 인터넷, 농인 관련 기관 등)	연구진, 담당 사서 농인 통역사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	연구진, 담당 사서 농인 통역사
	▽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연구진, 담당 사서 농인 통역사
IV. 운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담당 사서 및 강사
	▽ 정보 서비스 제공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수화낭독서비스, 도서관안내 수화콘텐츠 탑재, 수화번역도서 등 확충)	담당 사서 거점도서관 책임자 농인 통역사
V, 평가	시범 운영 평가	연구진, 담당 사서 청각장애인 이용자
VI. 모델개발	거점(시범) 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연구진

## 2. 청각장애 교육·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

### 가. 교육·문화프로그램 추진계획

#### 1) 기반조성 및 추진개요

##### 가) 기반조성

2013년 8월22일 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발주 :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대학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범운영 기관으로는 서울도서관이, 프로그램 시범그룹으로는 삼성농학교, 서울농학교, 농인야학 '소리를 보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청각장애인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 나)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3. 8.22 ~ 2013. 11.30
- 추진목표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안 도출,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
- 추진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기획·시행
- 추진방법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서울도서관장애인자료실 담당자가 협력하여 청각장애 특화프로그램 진행
- 협력 농 커뮤니티 :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서울농학교, 삼성농학교 등

## 다) 청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 환경구축

### (1) 외적환경

- 북유럽을 비롯한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장애인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지원정책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 통합을 이루어 자기 개발을 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교육 및 재활의 방향 전환
- 이러한 패러다임 이동에 맞추어 도서관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2003년~2004년 :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도서관 서비스 TF 조직 운영
- 2004년 : 소외계층도서관서비스 TF활동을 통하여 문화관광부에 장애인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국립장애인 도서관지원센터설립’ 건의
- 2006년 10월 4일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운영
-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의무화
- 2012년 9월 개정 도서관법 시행에 즈음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확대 설립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편중되어 있던 장애인서비스를 기타 유형의 장애인서비스로 확대 실시하기 시작
- 그동안 ‘숨겨진 장애’로 장애인서비스에 사각이었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정책 기틀 마련

(2) 내적환경

- 본 프로젝트를 위한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된 서울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을 포함한 일반열람 자료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콘텐츠, 서비스 현황, 교육·문화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의실 현황 조사
- 연구진과 장애인자료실 담당자의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선정과 강의실 확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제반 사항 논의
-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에서 진행한 ‘북 힐링 프로그램’ 및 2008년~2012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분석
  - 청각장애인 야학 ‘소리를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 힐링 프로그램’의 도서목록과 수업계획 참고
  - 2008년~2012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중 청각장애인에게 적용가능한 유사 독서프로그램 분석

2)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가) 문화프로그램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표 III.2> 단기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대상	강좌일시	장소	참가인원	강사
1	도서관 이해 및 이용교육	청각장애 (성인)	8월 22일(목) 13:00~ 15:00	사서 교육장 서울도서관 (투어)	10명	이효성 (서울도서관 사서)
2	이미지 메이킹	청각장애 (성인)	9월 7일(토) 14:00~15:40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10명	서은영 (스타일 리스트)

〈표 III.3〉 장기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대상	강좌일시	장소	강사	참가인원	강좌횟수	기간
1	독서치료	성인	9월14일~ 11월30 토, 09:30-10:30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박미영 (서울여대 초빙교수)	9	10회	10주
2	독서지도	청소년	9월14일~ 1월30일 토, 10:40-11:40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박미영 (서울여대 초빙교수)	9	10회	10주
3	스토리텔링	6~7세	9월25일~ 1월30일 수, 10:30~11:20	삼성농학교	박미영 (서울여대 초빙교수)	9	10회	10주
		초등 5학년	10월17일~11월30일 목, 10:40~11:40	서울농학교	김혜주 (연구원)	4	6회	6주
4	자녀 독서 지도	청각 장애 부모	10월2일~10월23일 화, 14:00~15:30	삼성농학교	김혜주 (연구원)	3	2회	2주
			11월5일~11월12일 화, 10:20~11:50	서울농학교	김혜주 (연구원)	7	2회	2주

나) 역할 담당

- 문화프로그램 기획 : 연구진, 서울도서관 장애인열람실 담당 사서
- 문화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관련부서 섭외 : 서울도서관 장애인열람실 담당 사서
- 문화프로그램 진행 : 연구진, 프로그램 담당 강사,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 강의실 섭외 및 관리운영 : 서울도서관 장애인열람실 담당 사서

다) 홍보방법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 농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 서울시 소재 농 커뮤니티 및 농학교, 복지관 등 청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조공문 발송

나.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1) 단기프로그램

가) 도서관 이용 안내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여름에 떠나는 도서관여행

## (1) 기획의도 및 목적

### (가) 기획의도

-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을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 문화공간으로서 낯선 장소인 도서관을 소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도한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이용법을 소개하여 청각장애인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률 향상을 도모한다.

### (나)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1 : 청각장애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PPT를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이용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목표 1 : 스마트폰을 사용한 전자도서관 이용법을 소개하고 전자도서관 이용률을 높인다.
  - 전자도서관을 소개하여 전자책 대출을 향상을 도모한다.
- 목적 2 :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구(舊) 서울 시청사로 이용되었던 현(現)서울도서관 건물의 역사를 소개한다.
  - 목표 1 : 투어방식의 프로그램 진행 시 수화통역사가 동반, 청각장애인들과 투어 진행자와의 소통을 도움으로서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 목표 2 : 서울도서관 건물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이 낯선 기관이라는 인식 개선과 친밀감을 유도한다.
  - 청각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소개하여 문화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프로그램 진행 세부계획

### (가) 도서관 투어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법 프로그램 기획

- 시범사업 연구진과 강의를 담당할 서울도서관 투어 담당사서가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진행청각 특화 프로그램 기획회의

- 연구진이 제공한 청각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울도서관 안내자료 편집
- 서울도서관 건물의 역사 및 (전자)도서관 이용법 PPT 자료를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편집

(나) 협조부서

- 행정지원과 : 서울도서관 사서연수장 대여 및 도서관투어

(다) 참가인원 : 총 16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 10명
- 청인 수화통역사 : 1명
- 농인 수화통역사 : 1명
- 도서관투어 담당사서 : 1명
- 연구진 : 3명

(라) 소요예산 : 총 203,000원(농인수화통역사 사례비 제외)

- 다과비 : 100, 000원
- 설문지 인쇄비 : 3,000원
- 청인수화통역사 사례비 : 100,000원
- 농인수화통역사 사례비 : 1,368,000원(프로그램 스텝으로 월급지급)

(마) 세부 강좌 일정

<표 III.4> 세부강좌일정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준비사항	서울도서관 협조사항	비고
1	8.22	사서 연수장/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이해 및 (전자)도서관 이용방법소개	사전홍보	청각장애인용 PPT 제작	

(3) 성과

-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참가자들에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소개하였다.
- 청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소개하였다.
-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였다.
- 프로그램 시행 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청각장애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수업자료와 투어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 시행 후 실시한 설문과 인터뷰 결과 한 화면에서 이미지가 팝업으로 제공되는 수업자료는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용지도 PPT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한 이미지만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III. 1> 도서관 투어 강좌

#### (4) 평가

##### (가)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 ① 평가방법 : 강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10명)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 실시
- ② 평가내용 : 수업내용, 강사(전문성, 열의), 수화통역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사항,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의 장단점
- ③ 평가결과
  - 수업내용 및 과정에 관한 질문(7문항)
    - 총 10명의 참가자 대부분이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5>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강좌의 주제가 명확했나?	3	7
2	강좌의 내용이 기대하는 내용과 일치했나?	2	8
3	강좌내용이 도움이 되었나?	6	4
4	강좌의 시간배분은 적절했나?	3	7
5	강좌에 사용된 수업자료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5	5
6	강좌 내용의 구성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나?	6	4
7	강사와 수화통역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나?	4	6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8문항)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 역시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참가자 대부분이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6과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6〉 수업내용 및 과정

번호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강사가 열성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8	2
2	강의는 철저히 준비하였나?	8	2
3	강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나?	7	3
4	강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8	2
5	강사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나?	8	2
6	강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6	4
7	강사는 강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였나?	4	6
8	강사는 강의하는 동안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였나?	8	2

그 밖에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장점으로는 ‘도서관의 기능과 서울도서관 건물의 역사에 관하여 알게 되어 좋았다’는 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단점으로는 PPT 수업자료에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팝업창이 떠서 내용이해에 방해되었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바라는 점으로는 농인전용 열람실이나 스터디 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용 자료 구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데스크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다.

(나)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호감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7〉 수업내용 및 과정

평 가	목 표	
평가지표	참가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	
측정도구	설문지	도서관 투어를 통한 도서관의 친밀감 테스트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참가자의 수업태도, 재방문 의사, 문화프로그램 재 참여의사

- 프로그램 참여도 및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 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의 진행은 1시간 20분~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의 과정이 포함되므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30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도와 집중력으로 인하여 투어 담당 사서의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어 프로그램 진행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 연구자가 투어 참가자들과 동행하면서 참가자들의 투어 태도를 관찰한 결과 도서관 건물에 대한 관심도,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 자료나 시설에 대한 관찰력 등 투어담당사서의 설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 투어 후 설문지와 인터뷰 결과 역시 이상의 참가자들의 평가에서 본 바와 같이 도서관 재방문 의사나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에 관한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 프로그램명 : **이미지 메이킹** - 관심사 중심의 감성 & 취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 그것이 바로 스타일이다.

#### (1)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목적

##### (가) 기획의도

- 청각장애인에게 낯선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함
-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독서의지 유도 및 독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대인기피 경향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본 강좌를 통하여 퍼스널 패션 스타일을 발견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기대

##### (나)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1 :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강좌로 PPT와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시범을 통하여 자신만의 퍼스널 패션 스타일 발견을 유도한다.
- 목표 1 : 청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 목표 2 :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서관을 지역사회 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개하여 문화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목적 2 : 청각장애인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한다.
  - 목표 1 : 이미지 메이킹, 패션 등 관련 도서를 소개하여 도서관의 다양한 소장 자료이용 경험을 제공한다.
  - 목표 2 : 새로운 이용자층의 확장과 다양한 주제의 장서개발 기회를 마련한다.

## (2) 프로그램 진행 세부계획

### (가) 진행 단계

- 시범사업 연구진과 「이미지 메이킹」 강사 및 장애인자료실 사서가 함께 참여한 기획회의를 거친 후 청각장애인을 특화한 강좌 기획
- 기획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강좌 내용을 시각적인 콘텐츠로 구성하여 PPT 수업자료 제작
- 이용자 요구사항과 강의 만족도 조사용 설문지 개발
-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해 실험집단에게 강좌 전·후로 설문을 실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나) 협조부서

- 행정지원과 : 서울도서관 사서연수장 대여

### (다) 참가인원 : 총 15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 10명
- 청인 수화통역사 : 1명
- 농인 수화통역사 : 1명
- 강사 : 1명
- 연구진 : 2명

(라) 소요예산 : 총 653,000원(농인수화통역사 사례비 제외)

- 다과비 : 50, 000원
- 설문지 인쇄비 : 3,000원
- 강사사례비 : 500,000원
- 청인수화통역사 사례비 : 100,000원
- 농인수화통역사 사례비 : 1,368,000원(프로그램 스텝으로 월급 지급)

(마) 세부 강좌 일정

<표 III.8> 세부 강좌 일정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준비사항	서울도서관 협조사항	비고
1	9.07	사서 연수장	강좌와 관련자료 이용법 실습 및 퍼스널 패션 스타일 advice를 통하여 자신만의 패션스타일을 발견함으로써 자존감 증대 유도	사전 홍보	멀티미디어 장비 세팅	

(3)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여 청각장애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기억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 행정지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청각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교육 모델을 개발한다.
-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전자도서관 이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개발한다.
- 전자도서관 이용법 교육을 통하여 전자도서 이용률 증진방안을 기획한다.
- 청각장애인들이 선호하는 도서관장서의 주제 분야와 자료유형의 확장기회를 모색한다.

(4) 성과

-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참가자들에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청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소개하였다.
-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였다.
- 프로그램 시행 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청각장애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수업자료와 투어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III. 2> 이미지 메이킹 강좌

## (5) 평가

### (가)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 ❶ 평가방법 : 강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10명)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 실시
- ❷ 평가내용 : 수업내용, 강사(전문성, 열의), 수화통역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사항,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의 장단점
- ❸ 평가결과
  - 수업내용 및 과정에 관한 질문(7문항)
    - 총 10명의 참가자 대부분이 “수업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9와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9〉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번호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강좌의 주제가 명확했나?	4	6
2	강좌의 내용이 기대하는 내용과 일치했나?	5	5
3	강좌내용이 도움이 되었나?	6	4
4	강좌의 시간배분은 적절했나?	4	6
5	강좌에 사용된 수업자료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2	8
6	강좌 내용의 구성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나?	7	3
7	강사와 수화통역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나?	4	6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8문항)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 역시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참가자 대부분이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10과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10〉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번호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강사가 열성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8	2
2	강의는 철저히 준비하였나?	8	2
3	강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나?	7	3
4	강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8	2
5	강사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나?	8	2
6	강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8	2
7	강사는 강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였나?	7	3
8	강사는 강의하는 동안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였나?	9	1

- 그 밖에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장점으로는 『이미지 메이킹』 강좌를 통하여 셀프 스타일링이 단순히 외모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과 건강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사가 열정을 갖고 표정과 몸짓을 이용하여 연기하듯 수업하여 내용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단점으로는 ‘내게 맞는 구체적인 스타일을 알려주는 강좌로 알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는 답이 가장 많았다.
- 도서관에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영화상영, 문화·예술 공간 방문,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희망하였다.

(나)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호감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11>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평 가	목 표	
평가지표	참가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호감도	
측정도구	인터뷰·관찰	『이미지 메이킹』강좌를 통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호감도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참가자의 수업태도, 재방문 의사, 문화프로그램 재 참여의사

- 프로그램 참여도 및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 강좌 내내 진지한 태도로 강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강사 역시 진지하며 강사의 질문과 행동에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 강좌 후 강사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하여 강좌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 연구자는 강사의 느린 강좌 진행속도에 약간 지루함을 느껴 참가자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으나, 강좌 후 설문지와 인터뷰 결과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강사의 느린 속도의 말과 다양한 몸짓, 표정 등이 내용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앞서 진행한 『도서관투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설문지와 인터뷰 결과 역시 도서관 재방문 의사나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에 관한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장기 프로그램

가) 청각장애 유아 스토리텔링

□ 프로그램명: 책이랑 놀자

(1) 기획의도 및 목적

(가) 기획의도

- 청각장애 아동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동화내용과 연결된 활동을 통하여 독서애호감을 높이고 어휘력 향상을 도모한다.
- 독서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책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접할 기회 제공한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

- 또래 친구들과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애호감을 증진시킨다.
-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 '동기와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
- 다양한 책읽기 활동을 통해 어휘력, 어휘 추론력 및 문장 구사 능력 등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

(2)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가) 프로그램 추진배경

- 최근 인공와우 시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유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의 채널을 통하여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공와우 시스템은 각각의 단일 청신경을 독립적으로 자극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청각시스템을 통한 소리정보만큼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유아들은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서야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므로, 초등과정 전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불완전하다.
- 그러나 독서환경 조성과 조기 독서지도는 청각장애유아에게도 독서능력과 인지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소개하고 독서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나) 강좌 설계 단계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담당 연구진과 청각장애 전문가가 기획회의를 거친 후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특성을 고려한 강좌 구성
- 청인보다 듣는 것으로 인한 간접경험의 기회가 적으므로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책을 통하여 간접경험의 기회를 넓히도록 유도
- 기획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강좌 내용을 구성하여 수업계획안 작성
- 매 수업 후 참가자의 반응을 분석 후 강좌교재 선정
- 관찰 연구를 위하여 매 강좌 참관하고 수업 내용을 분석하여 실험집단의 책에 대한 태도 및 흥미의 변화를 알아봄
- 프로그램 운영에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 모형 설계

(다) 추진일정

- 8월 14일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도서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공지 내용 기획·제작
- 8월 20일 :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홍보시작
- 8월 21일 : 삼성농학교에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9월 25일~11월 30일: 프로그램 진행

(라) 참가인원 : 총 16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 10명
- 유치부담임선생님 : 1명
- 보조교사(삼성농학교) : 3명
- 강사 : 1명
- 연구진 : 1명

(마) 협력체계

- 삼성농학교 : 7세반 담임선생님, 보조 선생님의 수업 진행 협조 및 수업 진행 공간 제공

(바) 소요예산 : 총 1,500,000원

- 교재비 : 100,000원(10,000원/1권)
- 다과비 : 200,000원(20,000원/1회)
- 수업준비물(이름표, 독서 후 활동비 등) : 200,000원(20,000/1회)
- 강사사례비 : 1000,000원(100,000/1회)

(아) 세부 강좌 일정

<표 III.12> 세부강좌일정

회차	일시	교재	독후 활동
1	9.25	아낌없이 주는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함께 사과를 나누어 먹고 사과나무에 사과를 그려 붙이는 활동을 한다.</li> </ul>
2	10.02	아빠 달님을 따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 개인별로 도화지를 나누어주고 달과 별 등을 그린다.</li> <li>○ 아빠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달님을 따다줄 수 있다는 확신을 체험하는 활동을 한다.</li> <li>○ 사다리를 길게 연결하여 달님을 따도록 한다.</li> </ul>
3	10.09	콩콩이와 쿵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 개인별로 도화지와 색종이, 색 골판지를 나누어 주고 기차와 그 기차에 태우고 싶은 동물들을 만든다.</li> <li>○ 각 팀에서 만든 기차에 자신이 만든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면서 동물을 기차에 태우는 놀이를 한다.</li> <li>○ 놀이가 끝나면 의태어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책을 읽어 주면서 작은 몸짓을 표현하는 소리와 큰 몸짓을 표현하는 소리를 다시 한 번 익힌다.</li> </ul>
4	10.16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에게 개인별 도화지를 나누어주고 무지개 꽃을 아름답게 꾸민다.</li> <li>○ 무지개 꽃의 색을 확인하면서 색깔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유도한다.</li> <li>○ 색종이를 통해 다양한 색을 익히고 자신의 표현과 연계한다.</li> </ul>
5	10.23	무지개 물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직포를 이용하여 바다 속의 무지개 물고기와 친구들을 만든다.</li> <li>○ 물고기의 모양은 자유롭게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색종이를 잘라 붙여 예쁜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만든다.</li> <li>○ 자신이 만든 물고기에 반짝이 비늘을 부치고 마음껏 뽐내도록 한다.</li> <li>○ 반짝이 비늘을 친구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한다.</li> <li>○ 친구에게 나누어주면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li> </ul>
6	10.30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을 생각하면서 도서관을 탐방한다.</li> <li>○ 도서관에서 일련의 도서 대출 활동을 경험한다.</li> <li>○ 도서관에서 선정한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도서관을 더욱 친숙한 장소로 생각할 수 있다.</li> </ul>
7	11.06	요정들과 구두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지책, 도화지, 풀, 색연필, 가위, 고무찰흙</li> <li>○ 요정에게 선물할 옷, 신발 등을 잡지책에서 오려 붙이고 멋지게 장식한다.</li> <li>○ 각자 만든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한다.</li> </ul>
8	11.13	구름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닝빵, 빵튀기, 젤리, 새알 초콜릿 등을 이용하여 구름빵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하늘은 나는 놀이를 한다.</li> </ul>
9	11.20	캐스터와 페페의 엉뚱한 수리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공구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고 맞추는 게임을 통하여 사물의 이름을 익힌다.</li> </ul>
10	11.27	공구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트 우드락 보드, 셀로판테이프, 색연필, 색종이, 색 골판지, 장식용 반짝이 등</li> <li>○ 이야기책에 나온 고장 난 물건들을 고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서 작업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li> </ul>

#### (4) 기대효과

- 책 읽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독서애호감을 키운다.
- 동화를 활용한 언어지도를 시도하여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
-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서와 인성발달을 도모한다.
- 언어문자로서 실생활을 자세히 묘한 동화를 통하여 어휘력과 언어기반 향상을 도모한다.
-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표현력을 풍부히 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킨다.
- 책 읽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재능 발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5) 성과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각장애 아동들은 책 읽는 즐거움과 관찰력,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 시범강좌를 통하여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적합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특화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언어능력 및 독서애호감이 높아졌다.
- 수업에 집중도가 높아지자 청각장애 아동의 장점인 관찰력을 발휘하여 그림책의 장면에 대한 훌륭한 해석을 표현하였다.
- 그림책 장면을 그림이나 서투른 글씨로 표현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소통의 폭도 넓어지고 표현력도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 평가

(가)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아동의 수업태도를 지식이해면, 기능적용면, 정의적·태도 면에서 관찰하였다.

<표 III.13> 강사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및 관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지식 이해면	○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태도 관찰	수업 중	잘함
기능 적용면	○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발표	수업 중	보통
정의적·태도면	○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태도 관찰	수업 중	매우 잘함

(나) 프로그램 참가 보조교사

총 4명의 프로그램 참가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수업내용, 교재, 수업방법, 강사의 열의 등의 측면에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는 다음의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프로그램 참가 보조교사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수업교재 및 자료	• 수업에 사용한 교재는 적당했나?	0	4
	• 독후활동에 사용된 학습자료가 수업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나?	0	4
수업내용 및 구성	• 수업내용은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었나?	4	0
	• 수업내용에 대한 시간 배분은 적당했나?	4	0
	• 제공된 수업내용이 대상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었나?	4	0
강사의 수업 방법 및 태도	• 강사는 열의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4	0
	• 강사는 참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0	4
	• 강사는 대상아동들의 흥미를 꾸준히 유지시켜 주었나?	4	0
	• 강사는 수업준비를 잘 하였다고 생각하나?	4	0

본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으로는 늘 수업하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스토리텔링 이후에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스토리텔링 내용과 잘 연계해서 활동했던 점을 꼽았다.

고쳐야 할 점으로는 “청각장애 유아는 일반 유아들과는 달리 동화책이 안 보이면 시각적 단서가 없어지므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여 동화책과 유아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점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의 개선사항 및 바라는 점으로는 스토리텔링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청력에 제한으로 인해 한 번 들은 것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동화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청각장애 유아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동화책으로 2~3차시의 수업)해서 들려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수업태도와 독서애호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15〉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평 가	목 표	
평가지표	참가자들의 스토리텔링 수업 태도변화, 독서애호감 변화	
측정도구	관찰	수업시간에 동참하여 참가자들의 수업태도 관찰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참가자의 수업태도, 집중력 변화정도, 독후 활동 참여정도

- 수업태도 및 집중력의 변화
  - 첫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 모두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였으나 마지막 수업에서는 인공 와우 시술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여 듣기가 거의 안 되는 아동과 중복장애가 있어 5분 이상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 했던 아동까지 전원이 이야기에 집중할 뿐 아니라 선생님이 놓치고 지나간 장면들까지 꼼꼼히 보고 알려줄 정도로 집중력과 관찰력이 향상되었다.
- 독후활동 참여정도
  - 독후 활동 역시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울음을 터트렸던 아동들의 태도가 서로 나누고 기다리는 자세로 변화되었다.
  - 그리거나 자르기 등의 독후활동을 스스로하지 않고 선생님이 해주기를 바라던 중복장애아동도 마지막 시간에는 스스로 가위질을 하고 자신의 작품을 도화지에 붙이는 독후활동을 하게 되었다.
  - 이상의 변화를 살펴볼 때 청각장애아동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청각장애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청각장애인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독서능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프로그램명 : 청각장애어린이 스토리텔링

(1)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목적

(가) 기획의도

- 청각장애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청각장애 특성상 어려움을 느끼는

형용사, 의성어·의태어 등의 어휘설명과 이야기 배경, 등장인물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책 읽는 재미를 알려준다.

-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언어능력과 다양한 표현방법을 익혀 언어표현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시각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하여 언어표현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프로그램의 목적

- 청각장애 어린이의 독서능력과 문장 이해력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림 중심의 만화책보다 문장 중심의 그림동화를 읽음으로 독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하여 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
-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자애개념의 형성과 안정적인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다) 프로그램의 목표

- 청각장애 어린이의 독서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선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조기 독서지원 환경을 마련한다.
-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독서에 대한 동기유발을 유도한다.
- 글씨위주의 책 일기 습관을 키워주고, 다양한 표현을 익히도록 돕는다.

(2)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가) 프로그램 추진배경

- 청각장애 학생의 독서능력은 초·중등 학령기 단계에서 학부모와 초·중등학교 담임교사의 동기유발과 독서환경 조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 조기에 청각장애자녀가 독서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각장애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조기 독서지원은 청각장애 학생의 독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독서일기 쓰기, 신문 읽기, 인터넷 활용, 독서토론, 다독에 대한 보상, 부모 동행 독서, 다양한 현장(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체험학습 실시, 현장 체험학습보고서 작성,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책 읽기 도움 등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

(나) 추진일정

- 8월 14일 : 연구진이 서울농학교 사서선생님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전화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설명
- 8월 20일 :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계획안 발송
- 8월 30일 : 서울농학교 사서선생님을 농 커뮤니티 운영위원으로 선정, 회의참석
- 9월 10일 : 서울농학교에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10월 17일~11월 30일: 프로그램 진행

(다) 참가인원 : 총 4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2명
- 사서선생님(서울농학교) : 1명
- 연구진 : 1명

(라) 협력체계

- 서울농학교 : 사서선생님의 수화통역 및 참가자 섭외, 초등 5학년 담임선생님의 학생 인솔 및 프로그램 참가 협조 및 수업 공간 제공

(마) 소요예산 : 총 90,000원

- 교재비 : 60,000원(10,000원/1권)
- 다과비 : 10,000원
- 수업준비물(이름표, 색도화지, 색연필) : 20,000원
- 강사사례비 : 없음(연구진이 진행)

(아) 세부 강좌 일정

<표 III.16> 세부강좌일정

회차	일시	장소	교재/주요내용	준비사항
1	10.17	서울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재 : 알리키 인성교육 3 대화</li><li>• 내용 : 바른 언어 습관에 관한 책.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길러 준다. 또,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전화하기를 통해 대화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함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낱말카드</li></ul>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2	10.24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 알리기 인성교육 3 대화</li> <li>• 내용 : 바른 언어 습관에 관한 책.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길러 준다. 또,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전화하기를 통해 대화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도화지</li> <li>• 색연필</li> </ul>
3	11.07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 틀려도 괜찮아</li> <li>• 내용 : 선생님은 대답할 때 틀려도 괜찮다며 두려워말고 대답하라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낱말카드</li> <li>• 색도화지</li> <li>• 색연필</li> </ul>
4	11.14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 훨훨 간다.</li> <li>• 내용 : 어느 산골 외딴집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무명 한필을 주며 '이야기 한 자리'하고 바꿔 오라고 했어요. 과연 할아버지가 무명을 재미있는 이야기랑 바꿔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랑 바꿔올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류사진</li> <li>• 낱말카드</li> <li>• 낱말퀴즈</li> </ul>
5	11.21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 도서관에 간 사자</li> <li>• 내용 : 『도서관에 간 사자』는 도서관에 대한 애정 어린 찬사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주인공 사자가 어느날 도서관에 나타나 이야기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경청하고 차차 도서관의 규칙을 배우면서, 도서관에 온 아이들과 사서 선생님과 즐겁게 어울린다는 즐거운 내용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물건</li> </ul>
6	11.28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귀만세</li> <li>• 내용 : 저학년용을 위한 그래픽. 수업 중에 일어난 방귀 사건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실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 (3) 기대효과

- 청각장애 학생은 하나가 텍스트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미지만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특징이 있다. 선생님과 함께 동반읽기를 함으로서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른다.
-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의성어·의태어가 주는 느낌을 이해하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 그림만 보고 페이지를 넘기는 청각장애 학생의 일반적인 독서법에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사고력 증진을 위한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법을 교수한다.
- 책읽기 후 내용의 심층 이해를 돕는 독후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
- 다양한 주제의 독서를 통하여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재능 발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책읽기 활동을 통해 어휘력 및 언어 기반 향상을 도모한다.

### (4) 성과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각장애 어린이들은 책 읽는 즐거움과 관찰력,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 시범강좌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적합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특화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언어능력 및 독서애호감이 높아졌다.
- 청각장애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강좌를 계획하려면 서비스 대상 집단 구성원의 독서능력 편차, 중복장애아 유무, 가족이나 성장배경 등에 대한 사전정보 조사를 거친 후 대상별 수업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평가

#### (가) 참가자 평가

- ❶ 평가방법 : 강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2명)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② 평가내용 : 수업내용, 강사(전문성, 열의), 주제선정 관련

③ 평가결과

• 수업내용 및 과정에 관한 질문(5문항)

- 총 2명의 참가자 대부분이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17과 같다.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17>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선생님의 책 읽기 방법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	2	0
2	새로운 단어나 배경지식 설명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2	0
3	강좌에 사용된 수업자료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2	0
4	강좌의 시간배분은 적절했나?	2	0
5	강사와 수화통역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나?	2	0

(나) 수화통역교사(서울농학교 사서교사) 평가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8문항)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 역시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을 맡은 서울농학교 사서교사 역시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8과 같다.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18> 수화통역교사 평가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강사가 열성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1	0
2	강의는 철저히 준비하였나?	1	0
3	강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나?	1	0
4	강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1	0
5	강사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나?	1	0
6	강사와 학생들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1	0
7	강사는 강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였나?	0	1
8	강사는 강의하는 동안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였나?	2	0

(다) 프로그램 진행자(연구진) 평가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수업태도와 독서애호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19>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평 가	목 표	
평가지표	참가자들의 스토리텔링 수업 태도변화, 독서애호감 변화	
측정도구	관찰	수업시간에 동참하여 참가자들의 수업태도 관찰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참가자의 수업태도, 집중력 변화정도, 독후 활동 참여정도

- 수업태도 및 독서애호감 변화
  - 본 수업에 참가한 두 명의 어린이 중 몽고에서 온지 3년 된 여자 어린이는 수화도 자신 없고 구화도 자신 없어 처음에는 전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책 읽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 스토리텔링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차차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 독후 활동 참여정도
  - 두 명의 참가자 중 앞서 언급하지 않은 남자 어린이는 청각장애가 있을 뿐 청인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와 다르지 않았다. 청인 초등 5학년보다 어휘력은 풍부하지 못했지만 독서애호감도 높았고 독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여자 어린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을 익히지 못하여 의사표현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후활동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의사표현을 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 본 프로그램을 6회 밖에 진행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매우 조심스러우나 책에 대한 배경설명과 전체적인 스토리와 어려운 어휘를 설명한 다음 다시 한 번 천천히 책을 읽고 책 내용과 관련된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계속 진행한다면 분명히 독서능력과 의사표현능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프로그램명: 청각장애 청소년 독서지도

(1) 기획의도 및 목적

(가) 기획의도

- 청각장애 청소년 학습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독해력 증진을 위하여 소설, 동화 등의 이야기 글에 대한 읽기 학습 프로그램과 설명문, 논설문 등에 대한 개념 글에 대한 읽기 학습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
- 프로그램 참여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읽기를 하도록 유도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교우 또는 가족과의 문제를 책을 통하여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도록 유도 함

(나) 프로그램의 목적

- 독서는 청각장애인이 주위 세계와 원활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며, 청각장애인이 독서를 통하여 건청인의 세계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건청인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신체적·정신적·지적으로 가장 변화가 극심한 청소년기에 청각장애로 인한 분노와 좌절, 절망 등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며 자아정체감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
- 정서적 기반 형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습득뿐 아니라 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문제들을 책을 통하여 선생님, 참여자와 함께 나누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자 함

(다) 프로그램의 목표

- 청소년기에 당면한 정체성의 혼란, 교우 및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일상의 문제를 책을 읽고 선생님과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동일시(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경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내용

(가) 프로그램 추진배경

- 청각장애인이 갖는 듣기의 어려움은 음성언어 발달의 지체를 초래함 이에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통사능력 등 언어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읽기와 쓰기학습을 시작하는 최고도 청각장애인(90dBHL)의 평균 읽기 수준은 4-5학년을 넘기 힘들며 오직 3%만이 또래의 듣는 학생들의 평균 읽기 수준과 같으므로(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편, 2012) 다양한 시각적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시각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도구인 수화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게 되며 또한 일반 청인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주변 문제와 더불어 다른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므로(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편, 2012) 건청인들과는 차별화된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함

(나) 추진일정

- 8월 24일 :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도서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공지 내용 작성
- 8월 30일 :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홍보시작
- 9월 10일 : 삼성농학교에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9월 14일~11월 30일: 프로그램 진행

(다) 참가인원 : 총 16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 2명
- 사서교사(서울농학교) : 1명
- 연구진 : 1명

(라) 협력체계

- 삼성농학교 : 참가자 섭외 및 인솔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강의실 지원
- 서울도서관 장애인열람실 : 프로그램 진행 협조

(마) 소요예산 : 총 1,474,000원(농통역사 사례비 제외)

- 교재비 : 60,000원(10,000원/1권)
- 아침식사비 : 400,000원(40,000/1회)

- 수업준비물(이름표, 색도화지, 색연필, 인쇄비) : 50,000원
- 리움미술관 진행비 : 총 64,000원[입장료 24,000원(6,000/1인), 식사비 40,000원]
- 강사사례비 : 900,000원(100,000/1회)
- 수화통역사 사례비 : 900,000원(100,000/1회)
- 농통역사 사례비 : 1,368,000원(프로그램 스텝으로 월급 지급)

(바) 강좌세부계획

<표 III.20> 강좌세부계획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준비사항	서울도서관 협조사항
1	9.14	사서 연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li> <li>• 상황에 맞는 책임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잠복해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여 글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li> <li>•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통찰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책 만들기』 자료 준비</li> <li>• 수업에 임하는 자세 서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 커뮤니티 홍보</li> <li>•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li> </ul>
2	9.28	사서 연수장	두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독후활동 준비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 커뮤니티 홍보</li> <li>•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li> </ul>
3	10.05	사서 연수장	오백 원짜리 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독후활동 준비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li> </ul>
4	10.12	사서	오백 원짜리 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실 및</li> </ul>

		연수장		· 독후활동 준비물	멀티미디어 제공
5	10.19	사서 연수장	개구리왕자	· 교재 · 독후활동 준비물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6	10.26	사서 연수장	마시멜로 이야기 : 공부에 마법을 거는 마시멜로	· 교재 · 독후활동 준비물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7	11.02	사서 연수장	마시멜로 이야기 : 자신감을 주는 마시멜로	· 교재 · 독후활동 준비물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8	11.09	사서 연수장	영화감상	· DVD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9	11.16	사서 연수장	영화감상 후 토론	· DVD · 영화 감상 후 활동 준비물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10	11.30	사서 연수장	리움미술관 견학	· 사전견학 · 식당예약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사) 프로그램 관찰일지

<표 III.21> 프로그램 관찰일지

▪ 1차 : 9/14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들의 이름과 수화이름을 소개하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자기 서약서를 작성하였다.</li> <li>- '나의 빈칸 책'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li> <li>- '신선하다' 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등 어휘력과 표현력의 부족으로 참가자들이 '나의 빈칸 책'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음. 참가자 중 2/3정도가 빈칸을 거의 채우지 못하였다.</li> <li>- 예상했던 것 보다 독서능력, 어휘력, 이해력 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처음 기획했던 '독서치료'보다는 '독서지도' 방식으로 수업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li> </ul>	
▪ 2차 : 9/28	• 주제 :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들이 책을 읽어오지 않아 선생님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참가자들과 함께 책을 보며 이야기 하였다.</li> <li>- 책에서는 사물을 비유하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li> </ul>	

<p>책의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의 독서능력을 보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초반에는 내용과 어휘력 이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li> <li>- 청소년인 만큼 흥미를 지속할 만한 다양한 독후활동 계획이 요구된다.</li> </ul>	
<p>▪ 3차 : 10/05</p>	<p>• 주제 : 욕심과 허영(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문내용을 확인하였다.</li> <li>-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음</li> <li>- 본문에 욕심과 허영이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 확인</li> <li>- 선생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li> <li>- 아직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라 독서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li> <li>-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li> </ul>	
<p>▪ 4차 : 10/12</p>	<p>• 주제 : 욕심과 허영(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도 구화도 잘 못하여 의사표현을 어려워하는 참가자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함 : 권력을 휘두르는 왕보다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li> <li>- 의사표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내용을 발표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다.</li> </ul>	
<p>▪ 5차 : 10/19</p>	<p>• 주제 : 참된 헌신과 사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독서치료와는 다르게 아직 부모와 학교의 보호에 있는 참가자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교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읽어오지 않아 내용요약 시간이 필요하다.</li> </ul>	
<p>▪ 5차 : 10/19</p>	<p>• 주제 : 참된 헌신과 사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시간에 어릴 때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만약에~”질문에 다양한 답을 하였다. 이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청인 청소년과 다름없이 밝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갖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li> <li>-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참가자 A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li> </ul>	
<p>▪ 6차 : 10/26</p>	<p>• 주제 : 즐거움을 미루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거움을 미루고 공부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함</li> <li>- 좋은 직장, 풍족한 생활 등등을 답하였다.</li> <li>-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 게임, 친구와 놀기, 엄마의 잔소리, 공부를 방해하는 호기심 등을 답함 청인과 다르게 TV가 방해된다는 참가자는 없었다.</li> <li>- 즐거움을 미루고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을 나누었다.</li> <li>- 어린 시절 대학진학을 위하여 운동을 선택했다가 실패하여 다시 공부하기로 결</li> </ul>	

<p>심하고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에게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낼 수 있었다.</li> <li>-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옆의 친구들이 자신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li> </ul>	
<p>▪ 7차 : 11/09</p>	<p>• 주제 : 용서를 통한 자기 사랑</p>
<p>- 영화 “굿 윌 헌팅” 감상</p>	
<p>▪ 8차 : 11/16</p>	<p>• 주제 : 용서를 통한 자기 사랑</p>
<p>- 영화 “굿 윌 헌팅” 감상 후 가장 인상 깊은 장면과 등장인물의 성격을 색깔, 동물, 꽃 등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p> <p>- 부모가 청인일 경우 부모와 의사소통의 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 고민 등을 학교선생님과 의논하는 경우가 많아 손 교수가 윌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다독여주는 장면을 보았을 때 자신의 경우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한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p> <p>- 다양한 동물과 색깔, 꽃 등으로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에게서 느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p>	
<p>▪ 9차 : 11/30</p>	<p>• 주제 : 한국 고·현대 미술의 이해</p>
<p>-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한국의 고대미술과 현대미술을 공부하고 감상하였다.</p> <p>- 미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은 도슨트의 설명과 작품 감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p> <p>- 그 밖의 참가자들도 훌륭한 건축물에서 멋진 작품을 감상하였다.</p>	

(4) 프로그램 운영계획

- 『청각장애 성인 독서치료』 강좌 담당자와 청각장애 전문가가 기획회의를 거친 후 청각장애인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수업계획안 개발
- 매 강좌를 참관하고 수업내용을 녹음하여 참여자들의 도서관에 관한 인식 변화와 삶의 태도, 관심도 변화 등 관찰 후 청각장애인의 관심주제 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청각장애 이용자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그림 III.3 > 청각장애 청소년 독서지도 : 자기소개**

(5) 기대효과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월 간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생활 속에서 책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른다.
- 어려운 낱말과 표현, 내용 요약 등의 독후 활동을 통하여 어휘력 및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 읽기에 부담 없는 성인동화 중심의 도서를 선정하여 '읽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읽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개선한다.
- 독서를 통하여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청각장애로 인한 분노와 좌절, 절망감을 극복하고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념 확립의 어려움이나 어휘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6) 성과

-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과 낯설지 않은 내용의 도서를 읽음으로써 책 읽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었다.
- 독서를 통하여 자신과 주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다.
- 청각장애 학생의 수업시간마다 진행된 내용요약 시간을 통하여 책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7) 평가

(가) 참가자 평가

- ❶ 평가방법 : 강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9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❷ 평가내용 : 수업내용, 강사(전문성, 열의), 주제선정 관련
- ❸ 평가결과
  - 수업내용 및 과정에 관한 질문(5문항)
    - 총 9명의 참가자 중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22와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22>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수업내용과 과정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	강좌의 주제가 명확했나?	7	2	0
2	강좌의 내용이 기대하는 내용과 일치했나?	6	2	1
3	강좌내용이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었나?	6	1	2
4	강좌의 시간배분은 적절했나?	5	3	1
5	강좌에 사용된 수업자료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4	4	2
6	강좌 내용의 구성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나?	5	1	3
7	강사와 수화통역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나?	8	1	0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8문항)
  - 상세한 내용은 표 III.23과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23〉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강사의 교수 기술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	강사가 열성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6	2	1
2	강의는 철저히 준비하였나?	5	3	1
3	강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나?	4	3	2
4	강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5	2	2
5	강사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나?	5	2	2
6	강사와 학생들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4	2	3
7	강사는 강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였나?	5	2	2
8	강사는 강의하는 동안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였나?	4	3	2

(나) 강사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하였다.

〈표 III.24〉 강사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및 관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지식 이해면	○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 태도 관찰	수업 중	보통
기능 적용면	○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 발표	수업 중	잘함
정의적 · 태도면	○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 태도 관찰	수업 중	보통

(다) 프로그램 진행자(연구진) 평가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수업태도와 독서애호감의 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25〉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평가	목 표	
평가지표	참가자들의 스토리텔링 수업 태도변화, 독서애호감 변화	
측정도구	관찰	수업시간에 동참하여 참가자들의 수업태도 관찰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참가자의 수업태도, 집중력 변화정도, 독후 활동 참여정도

- 수업태도 변화, 독후활동 참여 정도
  -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참가자들은 청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본 프로그램을 수업의 연장이라 생각하여 기대했던 것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참가자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수화, 구화 모두 불편을 느꼈던 한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용기를 내어 발표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 청소년의 경우 독서지도 수업에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프로그램명: 청각장애 성인 독서치료

(1) 기획의도와 목적

(가) 기획의도

- 책을 인생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독서를 통하여 찾아보고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도
- 사랑과 집착, 문제회피에 대하여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독서를 통해 주변 일반(청인) 세계를 이해하는 기회 제공
- 책을 통해 주변의 가족 및 친구 등 일반(청인) 세계와의 통합 도모

(나) 프로그램의 목적

- 수화사용 청각장애인의 다른 의사소통 양식과 문화를 고려한 독서 치료 프로그램 제공

-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소통의 단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 치료와 건강한 자아 찾기 유도
- 책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카타르시스의 경험 공유
- 독서를 통하여 일상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본질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방법 습득

##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내용

### (가) 프로그램 추진배경

-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책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책을 이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하여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들과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얻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치료 참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러운 통합을 목적으로 함
- 청인과 다른 의사소통 양식 때문에 발생하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일상의 문제를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독후활동을 통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함
- 책읽기를 통하여 의사소통과 표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제공과 언어 선택권을 보장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나) 추진일정

- 8월 14일 : 청각장애 성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도서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공지 내용 작성
- 8월 20일 :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홍보시작
- 8월 21일 : 야학 『소리를 보는 사람들』에 청각장애 성인 대상 독서치료 강좌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9월 7일~11월 30일: 프로그램 진행

(다) 참가인원 : 총 13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 9명
- 강사 : 1명
- 수화통역사 : 1명
- 농통역사 : 1명
- 연구진 : 1명

(라) 협력체계

- 청각장애 야학 소리를 보는 사람들 : 참가자 섭외 및 인솔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강의실 지원
- 서울도서관 장애인열람실 : 프로그램 진행 협조

(마) 소요예산 : 총 1,800,000원(농통역사 사례비 제외)

- 교재비 : 60,000원(10,000원/1권)
- 아침식사비 : 400,000원(40,000/1회)
- 수업준비물(이름표, 색도화지, 색연필, 인쇄비) : 50,000원
- 리움 미술관 진행비 : 총 190,000원 [입장료 90,000(6,000/1인), 식사비 100,000원]
- 강사사례비 : 1,100,000원(100,000/1회)
- 수화통역사 사례비 : 900,000원(100,000/1회)
- 농통역사 사례비 : 1,368,000원(프로그램 스텝으로 월급 지급)

(바) 강좌세부일정

<표 III.26> 강좌 세부 일정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준비사항	서울도서관 협조사항
1	9.14 10:40 ~ 11:40	사서 연수장	참여자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농기관 및 단체 홍보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2	9.28	사서 연수장	두 사람	교재	· 농기관 및 단체 홍보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3	10.05	사서 연수장	오백 원짜리 왕관	교재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4	10.12	사서 연수장	오백 원짜리 왕관	교재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5	10.19	사서 연수장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교재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6	10.26	사서 연수장	천국의 색연필	교재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7	11.2	사서 연수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교재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8	11.9	사서 연수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9	11.16	사서 연수장	영화감상	· DVD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10	11.23	사서 연수장	영화감상 후 토론	· DVD · 영화감상 후 활동 준비물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11	11.30	사서 연수장	리움미술관 견학	· 사전견학 · 식당예약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제공

(사) 프로그램 관찰일지

▪ 1차 : 9/14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독서능력을 가진 참가자들로 구성되었으며, 1명은 경증의 중복장애가 있다.</li> <li>- 초등 3~4학년 독서력 : 3명, 중등독서력 : 3명, 대학생독서력 : 3명</li> <li>- 중복장애가 있는 참가자는 독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된다.</li> <li>- 본 프로그램 담당 연구진은 성인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자들과 함께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으나, 독서치료 프로그램 담당 강사는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경험이 없으므로 매주 강좌를 진행한 후 반응을 살피고 다음 수업교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li> <li>- 기본적인 원칙은 대학생 수준의 독서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li> <li>- 독서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생활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청인들과 함께하는 대학생활의 두려움, 어려움, 정체성 등)에 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li> <li>- 참가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수업이므로 첫 수업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다음시간에 진행할 교재를 모두 읽어 올 것을 약속하였다.</li> </ul>	
▪ 2차 : 9/28	• 주제 :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친구들과의 갈등, 이성친구과의 갈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고 조언해주었다.</li> <li>- 아직은 속내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참가자가 한두 명에 불과하나 소보사에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친구들이어서 차수를 거듭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li> <li>- 대학진학 후 청인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li> <li>- 한편 청인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li> <li>- 수화통역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휘설명과 내용정리를 간단히 하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수업 설계가 요구된다.</li> </ul>	
▪ 3차 : 10/05	• 비뚤어진 욕심과 허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문내용을 확인하였다.</li> <li>- B군은 중복장애가 있는 참가자이지만,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책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책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재연하였다.</li> <li>- ‘욕심과 허영을 7글자로 표현하기’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모두 매우 어려워하는 기색을 역력히 보였다. 대학생 정도의 독서능력과 사고능력이 있는 참가자들 역시 많이 어려워하여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li> </ul>	
▪ 4차 : 10/12	• 주제 : 비뚤어진 욕심과 허영(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백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가볍게 수업을 시작하였다. 20세가 넘는 성인 참가자들이어서 그런지 오백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우유나 아이스크림 사먹기, 난민 구제 기부함에 기부하기 등...</li> <li>- 허영을 부렸던 경험과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였다. 창피한 기억일 수도 있지만 A군은 말할 수 없다는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하여 호기를 부렸던 기억을 자신이 허영을 부렸던 경험으로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li> </ul>	
▪ 5차 : 10/19	• 주제 : 참된 헌신과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는 주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애벌레의 생각이 자신이 대학을 가려고 결심했던 순간에 했던 생각과 일치했다고 생각했다.</li> <li>- 중복장애가 있는 B는 이 책을 읽으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li> <li>-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C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했다.</li> <li>- D는 책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li> <li>- 늘 쾌활한 E는 배수선수로 열심히 연습했던 경험과 청각장애로 대표선수에 선 발되지 못했던 가슴 아픈 경험과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이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지금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li> </ul>	

<p>자신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는 사회사업가가 되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하였다.</li> <li>- A는 풍물패에 들어가 연주하고 싶어 혼자 밤새 연습하여 발표회에서 실수 없이 발표를 완성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li> <li>- F는 청인처럼 살기 위하여 구화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24년간의 삶에서 25살이 되어 수화를 사용하면서 청각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고 이야기 하였다.</li> <li>- 수업시간에 진행된 발표내용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참된 헌신과 사랑을 위해서는 우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li> </ul>	
▪ 6차 : 10/26	• 주제 : 진정한 자아존중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테스트를 하였다. 테스트결과 모든 참가자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li> <li>- 10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 아이가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돌봐주는 친구들,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른스런 마음씨에 놀랐으며, 한 때 청각장애 때문에 디자이너의 꿈을 접어야 했던 슬픔으로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때가 생각났다.</li> </ul>	
▪ 6차 : 10/26	• 주제 : 진정한 자아존중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이 진행 될수록 각자 힘들었던 기억들을 공유하며 힐링의 기회를 갖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li> <li>- 수업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li> </ul>	
▪ 7차 : 11/02	• 주제 : 사랑, 위대한 힘(1)
<p>- 내용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 말이 없던 D가 오늘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시간 발표를 하였다. 수업 후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면낭독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간 오늘 수업교재를 읽었다고 수화통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li> </ul> <p>수업 시간마다 말이 없던 D가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p> <p>대면낭독에서 수화통역사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수업에 참가한 D는 자신 있게 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p>	
▪ 8차 : 11/09	• 주제 : 사랑, 위대한 힘(2)
<p>☞ 질문 : 추운 겨울 밤 알몸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경찰서에 데려다준다. B: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함께 도와준다. C: 신경이 쓰이지만 그냥 집으로 가서 계속 걱정한다. 등의 대답을 하였다.</li> <li>- 수업을 관찰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청인 수험생에게서는 볼 수 없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한 참가자의 말이 다시 생각났다.</li> </ul>	
▪ 9차 : 11/16~23	• 주제 : 용서를 통한 자기 사랑

-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영원한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 다양한 이미지들로 등장인물을 표현하였으며, A는 인상에 남는 내용으로는 친구의 성공을 위하여 기꺼이 떠나보내는 친구의 진정한 우정을 이야기 했으며, B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주인공의 잘못이 아니라며 다독이는 손의 모습, C는 손과 랭보교수가 서로 월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로 이끌기 위하여 언쟁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 사실상 마지막 수업이었던 오늘은 첫 수업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참가자들의 많은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 10차 : 11/30

• 주제 : 한국의 고·현대미술의 이해

-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한국의 고대미술과 현대미술을 공부하고 감상하였다.
- 미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은 도슨트의 설명과 작품 감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 그 밖의 참가자들도 훌륭한 건축물에서 멋진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아) 사진



<그림 III.4> 청각장애 성인 독서치료 : 자기소개

### (3) 기대효과

- 강좌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책을 통하여 자아발견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하고 직면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학습
- 사랑과 집착, 문제회피에 대하여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청각장애 성인을 위해 특화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성인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독서력 향상 도모
- 청각장애 성인을 위해 특화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4) 성과

- 시범강좌를 통하여 청각장애 성인들에게 적합한 독서치료 모형을 개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 자아정체성을 주제로 한 도서를 읽고 독후활동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11주간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발표하는데 자신감 상승
- 매주 한 권씩 꾸준한 책 읽기를 함으로서 독서능력이 향상되었다.
- 책을 읽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서 친구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힐링의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 (5) 평가

#### (가) 참가자 평가

- ① 평가방법 : 강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9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② 평가내용 : 수업내용, 강사(전문성, 열의), 주제선정 관련
- ③ 평가결과
  - 수업내용 및 과정에 관한 질문(5문항)
    - 총 9명의 참가자 중 “수업내용에 만족한다.” 고 답하였으며 그 밖에 부정적인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III.27과 같다.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27>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1	강좌의 주제가 명확했나?	5	3	1
2	강좌의 내용이 기대하는 내용과 일치했나?	4	4	1
3	강좌내용이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었나?	4	3	2
4	강좌의 시간배분은 적절했나?	5	2	2
5	강좌에 사용된 수업자료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4	3	2
6	강좌 내용의 구성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나?	3	4	2
7	강사와 수화통역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나?	4	2	3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8문항)

- 상세한 내용은 표 III.28과 같다.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28>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1	강사가 열성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4	2	3
2	강의는 철저히 준비하였나?	4	3	2
3	강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나?	3	4	2
4	강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4	4	1
5	강사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나?	3	4	2
6	강사와 학생들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3	2	4
7	강사는 강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였나?	4	2	3
8	강사는 강의하는 동안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였나?	3	2	4

(나) 강사 평가

강사는 다음 표 III.29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평가했다.

〈표 III.29〉 강사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및 관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지식 이해면	○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 태도 관찰	수업 중	잘함
기능 적용면	○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 발표	수업 중	잘함
정의적·태도면	○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 태도 관찰	수업 중	매우 잘함

(다) 프로그램 진행자(연구진) 평가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수업태도와 독서에호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30〉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평가	목표	
평가지표	참가자들의 스토리텔링 수업 태도변화, 독서에호감 변화	
측정도구	관찰	수업시간에 동참하여 참가자들의 수업태도 관찰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참가자의 수업태도, 집중력 변화정도, 독후 활동 참여정도

- 수업태도 및 독후 활동 참여정도
  - 대체적으로 수업 전에 교재를 충분히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수업에 참석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배경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조기 독서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내용요약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 미술관 견학을 제외하고 총 10회로 진행된 청각장애성인 독서치료를 관찰하였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의 경우 청인 대상 독서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선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성인의 경우 독서능

력이 청인 초등 4~5학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용기, 헌신, 사랑 등 자아발견과 인생의 목표 설정 등의 주제를 다루는 그림책을 교재로 선정하였다.

-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분량에 부담을 느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프로그램에서 그림책을 접하면서 책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 □ 프로그램명 : 자녀독서지도

### (1) 기획의도 및 목적

#### (가) 기획의도

- 장애인서비스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하여 청각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특강 실시
-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청각장애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청각장애자녀와 청인부모의 경우 청인부모가 수화를 배워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서의 중요성, 청각장애아동의 특징, 부모가 수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인부모가 청각장애아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 기획

#### (나) 프로그램의 목적

-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갑자기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인 부모들에게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청각장애아 교육에 조언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교육 방향, 독서의 중요성, 수화로 동화 읽어주기의 중요성 등 청각장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다) 프로그램의 목표

- 청각장애유아를 둔 부모에게 책 읽어주기와 수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함

##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내용

### (가) 프로그램 추진배경

- 청각장애 학생의 독서능력 저하원인 관련 연구 검토결과 청각장애 전문 조기 독서지도 프로그램의 부재가 청각장애인의 독서능력 부진의 커다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유아기부터 부모와 함께 책 읽기를 한 장애아들의 사례를 보고 청각장애 아를 둔 부모도 유아기부터 꾸준히 수화로 책 읽기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치명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는 낮은 독서능력을 같은 또래 청인들의 독서능력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을 부모에게 인지시켜 가정독서지도의 생활화 추진

### (나) 추진일정

- 8월 14일 : 연구진이 서울삼성학교와 서울농학교 사서교사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전화로 프로그램 설명
- 8월 20일 :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계획안 발송
- 8월 30일 : 서울삼성학교와 서울농학교 담당선생님을 농학교 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정, 자문회의참석
- 9월 10일 : 서울삼성학교, 서울농학교에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10월 17일~11월 30일: 프로그램 진행

### (다) 참가인원 : 총 14명

- 프로그램 참가인원 : 13명
- 강사(연구진) : 1명

### (라) 협력체계

- 삼성농학교, 서울농학교 선생님: 참가자 섭외 및 강의실 지원

### (마) 소요예산 : 없음

### (바) 강좌세부일정

〈표 III.31〉 강좌 세부 일정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준비사항
1	10.17	삼성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학습과 독서의 중요성</li> <li>• 다독보다는 신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히자.</li> <li>• 책임기에 빠져본 아이는 공부에도 빠질 수 있다.</li> <li>• 유아기부터 수화로 동화책을 읽어 주면 청인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어휘력과 독서능력을 키울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안</li> <li>• 청각장애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 목록</li> </ul>
2	10.24	삼성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인부모가 수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li> <li>• 수화는 단순히 정보를 익히는 수단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공통 분모를 갖고 서로 이해하며 이야기하기 위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안</li> <li>• 청각장애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 목록</li> </ul>
3	11.07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 농학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안</li> <li>• 청각장애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 목록.</li> </ul>
4	11.14	서울 농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 농학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안</li> <li>• 청각장애아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 목록</li> </ul>

(3) 기대효과

- 청각장애아 어머니에게 청각장애아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아 양육에 있어 정보부족으로 겪는 자녀양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인다.
- 장애아 양육에 관련된 도서를 읽고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아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 청각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자녀 적기도서 선정 기준과 청각장애아 양육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목록을 제공하여 독서습관의 일상화를 꾀한다.

#### (4) 성과

- 소수의 참가자로 구성된 강좌로 강사와 참가자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독서와 자녀의 조기 수화교육의 중요성, 부모의 수화습득의 중요성 등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청각장애아의 어머니로 받는 주변의 스트레스를 함께 나눔으로써 힐링의 기회가 되었다.
- 자녀에 대한 양육 방향설정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고 어머니 자신의 자존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 자녀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아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장애아 부모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 (5) 추천도서목록

- 어린이를 위한 추천도서 목록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고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

「실수해도 괜찮아」. 케이트 벅크스·보리스 쿨리코프.

「실수해도 괜찮아!」. 안네테 노이바우어·미레탈 포르투나토.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하세가와 토모코.

「파스칼의 실수」. 플로랑스 세이보스.

- 생활동화를 이용할 것

- 아이 눈앞에 닥친 현실문제들에 관한 생활동화를 읽게 하면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됨

- 아이의 고민을 파악할 것

- 생활동화는 전집을 구매하기보다 아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책 몇 권을 구입해 한정적으로 읽힐 것

〈생활동화〉

「또또가 달라졌어요 시리즈」. 안나카살리스.

「찰리와 롤라 시리즈」. 로렌 차일드.

「체피토, 뭐 하니?」. 엘리사 아마도 글, 마누엘 몬로이 그림, 노경실 역.

「나 학교 안 갈래!」. 미셸린느 먼디 저, 노은정 역. 대상 4~7세.

「학교 가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준비된 1학년 생활백과」 김성은 글

「책벌레 피요」. 비비안 만소우르 만수르 글, 정희경 그림, 권미선 역.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하르트무트 폰 헤티히 글.

(6) 평가

(가) 참가자 평가

- ❶ 평가방법 : 강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13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❷ 평가내용 : 수업내용, 강사(전문성, 열의), 주제선정
- ❸ 평가결과
  - 수업내용 및 과정에 관한 질문(5문항)
    - 삼성농학교 4명, 서울농학교 9명 총 13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한 강좌에 대한 평가결과 강좌의 주제나 내용, 시간배분, 수업 자료 등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상세한 평가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32>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수업내용 및 과정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	강좌의 주제가 명확했나?	9	2	2
2	강좌의 내용이 기대하는 내용과 일치했나?	8	3	2
3	강좌내용이 도움이 되었나?	11	1	1
4	강좌의 시간배분은 적절했나?	9	2	2
5	강좌에 사용된 수업자료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10	1	2
6	강좌 내용의 구성이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나?	8	2	2

- 강사의 교수기술에 관한 질문(8문항)
  - 강사의 열의나, 수업준비, 전문성, 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등과 관련된 질문에 설문에 응한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상세한 평가결과는 표 III.33과 같다.
  - ※ 질문지에는 ‘아니다, 모르겠다’의 항목도 제시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어 평가결과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 III.33〉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강사

번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	강사가 열성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나?	12	1	0
2	강의는 철저히 준비하였나?	11	1	1
3	강사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나?	12	1	0
4	강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12	1	0
5	강사가 준비한 자료는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나?	10	2	1
6	강사와 참가자들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나?	12	1	0
7	강사는 강좌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였나?	11	1	1
8	강사는 강의하는 동안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였나?	11	1	1

(다) 프로그램 진행자(연구진) 평가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들의 수화교육 및 독서지도에 대한 태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II.34〉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평가	목표	
평가지표	참가자들의 자녀독서지도 및 수화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	
측정도구	관찰	참가자의 출석횟수, 참가자들의 반응 관찰
평가방법	프로그램 참여도	1회 수업 후 수업내용 실천도 평가

- 참가자의 출석횟수 및 반응
  - 삼성농학교 학부모의 경우 1회 차에 4명, 2회 차에 3명이 참가하였으며, 자녀독서지도에 관한 내용에는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부모와 자녀의 수화교육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서울농학교 학부모는 1회 차에 4명, 2회 차에 10이 참가하였으며 강좌를 연장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또 강좌내용에서도 자녀독서지도나 부모와 자녀의 수화교육에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참가자들의 자녀독서지도 및 수화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
  - 2회에 걸친 자녀독서지도 강좌 후 삼성농학교 학부모는 독서지도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를 보였으나 수화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삼성농학교를 다니는 다수의 청각장애학생은 인공 와우 수술이 성공적인 케이스로 구화연습을 위한 언어치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반면 서울농학교 학부모는 수화를 이용한 조기 독서지도에 매우 긍정적이며 수화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조기 독서지도와 수화교육의 중요성에 상당히 공감하였다.
  - 이상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의 독서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수화를 이용한 조기독서지도 강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 가. 추진계획

##### 1) 「수화문자쓰기」 기본 방향 및 추진 개요

##### 가)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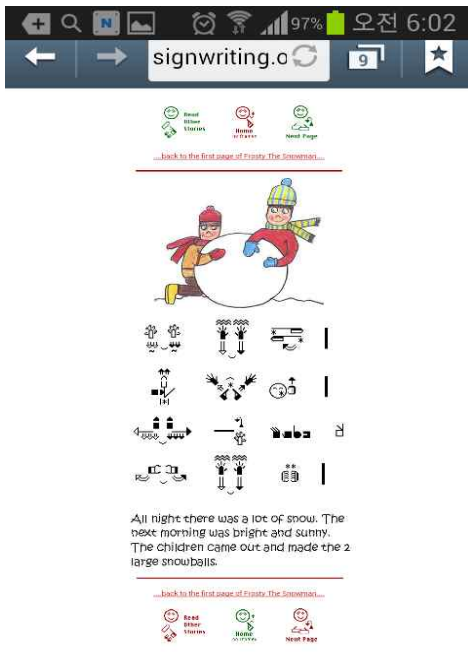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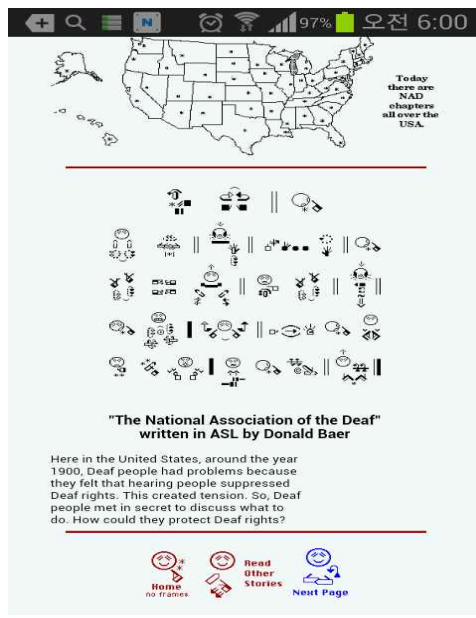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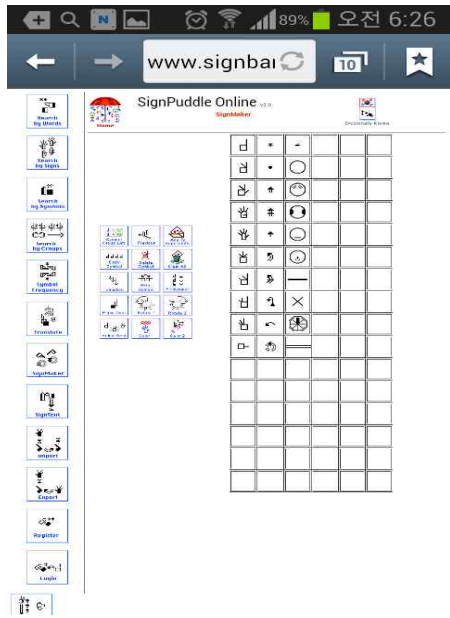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학교 위촉 의뢰』 정보서비스과-5503(2013.8.8)

##### 나) 추진 배경

지금까지 한국어와 달라 한국수화는 기록 문자가 없어, 주류 사회의 문자 언어인 한글을 통해 수화를 기록함으로써, 수화 사용 농인의 정보 교환 및 기록, 문해 능력에 제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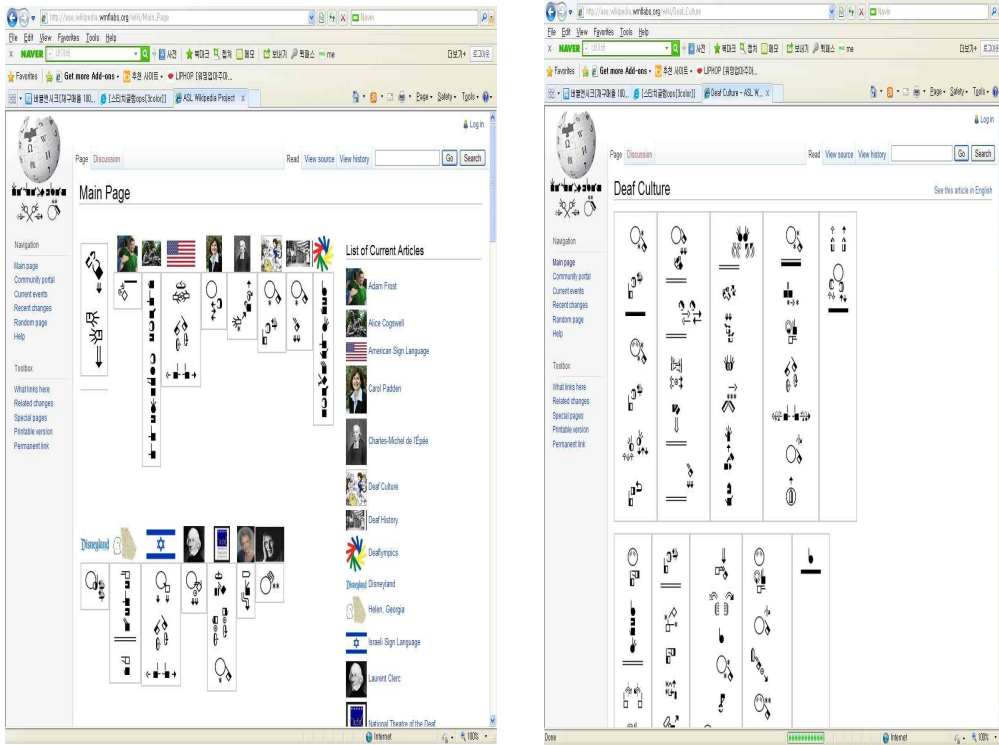
전세계 80개국 이상에서 농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수화)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화문자(SignWriting)를 소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인들도 문자 기반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문화 육성이 필요하다.

수기로 작성하던 수화문자를 최근 수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개발로 수화 문자의 작성 및 저장, 불러오기, 수정이 용이해졌다.



<그림 III.5 수화문자>

선진국에서는 수화 문자 및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백과사전 번역, 수화책 발행, 수화문자 축하카드 등 다양한 출판물이 종이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림 III.6 수화문자 온라인 출판물>

다) 추진방향

- 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수화 문자를 쓸 수 있게 한다.
- 한국 수화 및 한국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시각언어인 수화를 수화답게 기록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수정할 수 있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한국수화-한국어 혼영도서(수화책)를 만들게 한다.

라) 교육목표

- 한국 농인의 언어이고 시각언어인 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수화 문자를 배워 기록하고,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한국수화 및 한국어(한글) 문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국수화-한국어 혼영도서(수화책) 만들기와 보급을 통해 수화 사용 농인의 정보 교환 및 정보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마) 추진 계획

- 명 칭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문자 및 수화책 만들기 강좌
- 일 시 : 2013. 10월 ~ 11월
- 장 소 : 소보사 강의실(청각장애인 야학 수유역 부근)
- 대 상 : 청각장애 학생 및 성인 15명 남짓
- 방 식 :
  - 농인 강사(김한빛 농인 통역사)가 야학을 방문
  - 모든 강의 내용은 농식수화 사용
- 인 원 :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 이용자) 15명
  - 농인 통역사 1명
  - 보조 강사 1명

나. 운영

1) 수화문자 프로그램 세부 추진 일정

가) 운영계획

- 수화문자 강의 가능 통역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 및 수업 방식 논의
- 농학교 및 농아인협회 등 농인 관련 기관에 홍보
- 장소 및 강의 인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화문자 강좌 제공
- 20시간 정도의 목표 강의 시간 설정
- 수화 문자 및 수화 워드프로세서, 수화책 만들기 강좌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추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활용

나) 운영일정

- 10월 8일 : 수화 문자 및 수화책 강좌 홍보 배너·공지 내용 작성
- 10월 10일 :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홍보시작
- 10월 10일 : 농학교 및 농아인협회 등에 수화 대면상담 서비스 협조 의뢰
- 10월~11월 : 수화문자 강좌 제공

다) 강의내용

회차	강의 날짜	강의 내용	장소	준비물
1	10월 14일	수화문자 역사 및 활용범위	소보사 강의실 (수유역 부근)	노트북, 빔, 필기도구
2	10월 21일	손 모양 기록		
3	10월 28일	손 위치 및 방향 기록		
4	11월 4일	손 움직임 및 NMS 기록		
5	11월 11일	수화 워드 사용법		
6	11월 18일	수화책 만들기 실습1		
7	11월 25일	수화책 만들기 실습2		

라) 소요 예산

- 농인 강사 인건비 : 10만원/1회
- 교재 및 유인물 복사비 : 30만원

마) 기대효과

- 수화 사용 농인에게 자신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 학습 기회 제공
- 청각장애인의 문자 생활 육성
- 한국수화 및 한국어 혼용도서(수화책) 제작 및 보급을 통한 한국수화 및 한국어 문해 능력 향상

2) 수업





<그림 III.7 수화문자 수업>

※ 스마트폰에서 Daum이나 Naver 어플 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인식하면 수화문자 강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음

### 다. 수화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수화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 프로그램 참가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 1) 좋았던 점

- 수화의 형태와 유사한 기호(수화문자)의 연관성이 확실하여 어떠한 기호(수화문자)를 볼 때 자동적으로 수화의 단어와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 농인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내용과 교수법으로 학습의 유익함이 크다
- 농인중심의 수업방식이 만족스럽다.
- 이러한 수화문자가 문맹인 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 수화문자가 여러 통신수단에 적용이 되면 농인들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 기존에 수화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러한 수화문자로 인해 수화가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안심이 된다.
- 강사가 기초부터 자세하고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어 쉽게 학습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수화문자의 보급이 활성화 될 시 논문과 같은 고등학문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 기대가 된다.

- 현재 한국에서 수화기호는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농인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 사용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치면 적지 않은 수가 되기에 언젠가 대중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대중화된다면 기록할 수 없고 추상적인 언어에 가까운 수화를 기호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건청인이 이것을 농인의 언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농인은 누군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수화기호를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대화할 수 있다면 탕고, 시드 같은 앱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글로 표현하기에 어려워하는 농인이 수화기호로 표현함으로써 더 간단할 수 있을 것이고, 수화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앱들이 나올 것 같네요. 좋은 점은 수화기호는 농인의 언어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고 농인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스런 기호다.

## 2) 개선점

### [강의]

- 강사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보조강사가 그에 맞는 수화문자를 칠판에 기록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 같다.
- 보조강사의 역할이 좀 더 확대가 되어 이용자들이 수화문자를 직접 그려볼 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현재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차후 한국어로 된 교재가 나오면 좋겠다.
- 단순히 내용만 한글로 바꿀 것이 아니라, 한국수화를 예문으로 둔 수화문자 책이 나오면 좋겠다.
- 강의 시 사용되는 예문(단어)도 영어수화가 아닌 한국수화일 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
- 영어단어암기장 같이 수화단어암기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매번 수화문자를 직접 표기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화문자 몇 가지는 카드(자석부착)로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수화문자(손등, 손바닥 등)를 미리 칠판 한 칸에 제시한 뒤 수업을 진행하면 잘 따라오지 못하는 소수의 학생들 까지도 무난히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 [환경]

- 보조강사 수가 늘어서 강의를 소화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뒤에 앉은 학생의 경우는 수화를 보기가 무척 힘들다. 모두 둘러앉아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넓은 강의 장소가 필요하다.
- 지금의 장소로는 강사가 학생들의 수화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조차 할 수 없는 구조다.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하다.

## 3) 향후계획

- 시범 운영을 통해 청각장애인 수화 문자 강좌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추후 수화문자 관련 강좌 확대 개설
- 2014년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수화문자 기록사를 양성하여 수화 문자 보급 및 한국어-수화 번역 사업 확대를 통해 농인 일자리 창출
- 수화문자 기록사를 활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어 책을 수화 책으로 번역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

## 4. 청각장애 정보 서비스 운영

### 가. 추진 계획

#### 1)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 가) 기본 방향

##### [추진근거]

- 『청각장애인을위한 거점도서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학교 위촉 의뢰』 정보서비스과-5503(2013.8.8)

##### [추진방향]

- 청각장애인의 언어 다양성을 고려한 독서(정보) 서비스를 제공 한다.
- 다양한 장르의 책을 수화 낭독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 청각장애인에게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수화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에 배치된 다양한 도서들과 자료들을 청각장애인들이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한국어(한글) 독해력 향상을 위해 농인/청인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 제시하여, 한국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수화 사용 농인의 한국어 문해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 추진 배경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언어(한국어와 다른 문법 구조 및 의미역 등) 차이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한글 책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정보습득 향상 도모
-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편의증진법, 한국수어기본법(제정 준비 중)에서 규정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언어 선택권 등을 보장하여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다) 서비스 개요

- 명 칭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 일 시 : 2013. 10월 ~ 11월
- 장 소 : 대면낭독실(서울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 대 상 : 청각장애 학생 및 성인
- 서비스 제공 방식 : 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활용 인력에 여부에 따라 수시 서비스 제공
- 인 원
  - 수화사용 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 이용자) 1명 또는 소집단
  - 농인 통역사 1명
  - 청인 수화통역사 1명

라) 기대 효과

- 수화 사용 농인에게 한글 책을 인생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확대
- 한국어(한글) 책에 담긴 정확하고 풍부한 의미 전달

- 청각장애인 친화적 도서관 환경 마련
-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

## 2)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 가) 기본 방향

#### [추진근거]

- 『청각장애인을위한 거점도서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학교 위촉 의뢰』 정보서비스과-5503(2013.8.8.)

#### [추진방향]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도서관에 수화 가능 사서 및 통역사(농인/청인) 배치가 바람직하겠으나, 사서의 업무 부담 과다,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수화 사용 농인 이용 수요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인 통역사 배치와 함께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를 병행 시범 운영
- Wifi 및 LTE 기반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수화통역사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통역 비용 절감과 도서관 내 단말기(태블릿PC) 배치 위치의 융통성 이점 활용

#### [서비스 목표]

- 청각장애인에게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수화 가능 사서(통역사)가 없는 경우에도 태블릿PC를 통한 영상 통화를 이용,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도서관 사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사서의 청각장애인 이용자 서비스 능력과 자신감 증대를 도모하고,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확대 도모

나) 추진 배경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한국어 사용 도서관 사서의 언어 불일치 문제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해결의 필요
- 수화 가능 사서 및 통역사 확보의 어려움(사서의 업무 부담 과다,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수화 사용 농인의 도서관 이용 수요의 부족 및 편포
- 청각장애인 도서관 이용 수요에 따라 수요가 많은 경우, 수화 가능 사서나 통역사의 배치가 바람직하나, 수요가 적은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 서비스 개요

- 명 칭 : 청각장애인을 위한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 일 시 : 2013. 9월 ~ 11월, 오전 9시-6시
- 장 소 : 서울도서관 안내 데스크 혹은 대출 데스크(서울도서관 장애인 자료실에는 농인 통역사 배치)
- 대 상 : 청각장애 학생 및 성인
- 서비스 제공 방식 : 안내 혹은 대출 데스크에 방문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사서가 원격수화통역 담당 통역사와 통화하여 원격통역을 통해 사서와 청각장애인이 대화하고, 필요한 안내 및 정보 서비스 제공함.
- 인 원
  - 수화사용 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 이용자) 1명
  - 원격수화통역 담당 통역사 1명
  - 서울도서관 사서 1명(안내 혹은 대출 데스크)

라) 기대 효과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도서관 사서간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확대
- 도서관 사서의 청각장애인 이용자 응대 자신감 증대
- 청각장애인 도서관 이용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의 현실적 대안 마련
- 청각장애인 친화적 도서관 환경 마련

### 3) 스마트폰 기반 도서관 이용법 수화안내 콘텐츠 제공

#### 가) 기본 방향 및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학교 위촉 의뢰』 - 정보서비스과5503(2013.8.8)

##### [추진배경]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서울도서관 정보 접근권 보장
- 서울도서관 이용 방법 및 이용 시설, 공간별 배치 도서 등에 설명을 수화로 제공하여 '청각장애인 친화적 도서관 환경' 구축

##### [기대 효과]

- 도서관 이용 방법 및 이용 시설 등에 관한 이해 증진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확대 및 참여 의지 고취

#### 나) 서비스 개요

- 명 칭 : 서울도서관 이용 방법 및 시설 안내 수화 동영상 제작 및 탑재
- 일 시 : 2013. 9-10월
- 장 소 : 서울도서관(촬영 장소 및 QR코드 병기), 한국복지대학교(제작 및 편집)
- 대 상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
- 제작 방향 및 내용 : 서울도서관 이용 방법(회원증 만들기, 대출 및 반납, 전자자료 이용방법 등) 및 각 자료실별 주제 분야 도서 안내 등

### 4) 수화번역도서 배치

#### 가)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학교 위촉 의뢰』 - 정보서비스과5503(2013.8.8)

- 장애인 자료실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 프로젝트』 추진계획 정보서비스과5873(2013.9.6)

[추진 배경]

- 청각장애인들은 청각 채널의 손상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 출처(한글 도서 및 온라인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지식기반 확충 및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들은 수화 등과 같은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이 도서관 등의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문제가 없고, 시각장애인과 달리 시각채널을 통한 정보 수용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시각채널을 통해 기존의 인쇄도서 등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각장애학생들은 음성언어 습득의 곤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문자 언어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어 문해수준이 낮으며, 건청인과 다른 의사소통 방법(수화)으로 인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보다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인 한글 도서(printed book) 및 전자 책 등의 도서관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학습권 향상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즉, 청각장애인이 보다 더 잘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의 시각화와 같은 청각장애학생의 강점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고, 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들과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개요

- 명 칭 : 수화번역도서 장기대여 및 배치
- 대여기간 : 2013년 9월- 2014년 3월(청각장애인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장 가능)
- 장 소
  - 서울도서관 장애인 자료실에서 이용자 자료 열람
- 대 상 :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
- 한국복지대학교 도서관 장기대여 목록
  - 수화번역도서 17권



<그림 III.8 수화번역도서>

- 수화번역도서(한국어-수화 혼용도서): 한글 책의 내용을 문장 혹은 문단마다 번역한 수화동영상을 서버에서 탑재하고, 해당 URL 주소가 삽입된 바코드를 스티커나 OHP 필름 위에 인쇄하여 한글 책에 함께 제시함. 수화로 책을 읽고 싶은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 옆의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으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수화번역 동영상이 재생됨. 동영상을 수화번역문장을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영한번역도서(왼쪽 페이지에 한국어, 오른쪽 페이지에 영어)와 유사함.
- 장기대여 수화번역도서 목록(17권)

연번	도서명
1	가방 들어주는 아이
2	갈매기의 꿈
3	게으르지 않고 느리게 산다는 것
4	기초한국수화
5	꽃들에게 희망을
6	나무 심은 사람
7	마시멜로 이야기
8	매장시물레이션
9	무소유
10	애들아 아빠가 가방에 편지 넣어줬다
11	언어와 문화
12	컬러리스트
13	화성남자 금성여자
14	주얼리 렌더링
15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16	실기교육방법론
17	유니버설디자인

#### 다) 기대 효과

- 한국복지대학교 제작 수화번역도서 장기 대여 및 배치를 통해 한국어-혼용 도서(청각장애인 대체도서, Two-Way Book for the Deaf) 시범 제공
-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콘텐츠 접근 및 이용 활성화, 특히 일반 인쇄 도서에 대한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학습 자료 제공(특히 문장별 수화동영상 링크 자료의 경우)
- 수화통역사 시험 준비 신청인을 위한 수화 및 통역 학습자료 제공

### 나. 운영

#### 1) 수화 대면 낭독 서비스

##### 가) 운영계획

-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제공 가능 통역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하여 김한빛(농인 통역사)와 서비스 제공방식 논의
- 농학교 및 농아인협회 등 농인 관련 기관에 홍보

-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인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화 대면 낭독 서비스 제공
- 예약제를 원칙으로 카톡 혹은 문자, 수화영상전화로 접수항 후 수화 낭독 서비스를 제공하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낭독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과 장소 활용 여부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현장 요청에 따라 시스템 조성
- 수화 대면낭독서비스 요청 책 목록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추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정보 서비스 제공에 활용

나) 운영일정

- 9월 13일 : 수화 대면 낭독 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공지 내용 작성
- 9월 23일 :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홍보시작
- 9월 23일 : 농학교 및 농아인협회 등에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협조 공문 발송
- 10월~11월 :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제공

<표 III.35>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일정

제공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제공방식	대상
화 2-5시	김한빛 농인통역사	수화영상실	1주 전 예약 1일 1-2명 원칙	중고등학생 및 성인
수 2-5시		수화영상실		
목 2-5시		수화영상실		
금 10-12시		서울농학교 도서관	국어수업 시간이용	
토 10-12시	김만영 청인통역사	수화영상실	1주 전 예약 1일 1-2명 원칙	대학생 및 성인
금 2-5시		수화영상실		
토 2-5시		수화영상실		

다) 소요 예산

- 청인 수화통역사 인건비 : 1시간 당 5-10만원
-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제공은 김한빛 농인 통역사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제공하되, 전문수화낭독 제공을 위한 추가 통역사 확보에 따른 통역비(1시간 당 5-10만원)는 연구비 예산에서 부담함

라) 서비스 제공 실제

서울도서관 수화 대면낭독서비스(매주 화-토)



<그림 III.9 서울도서관 수화낭독서비스>

※ 스마트폰에서 Daum이나 Naver 어플 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인식하면 수화낭독서비스 제공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음

▪ 서울농학교 수화 대면낭독서비스(매주 금요일 오전)



<그림 III.10 서울농학교 독서실 수화낭독서비스>

## 수화대면낭독 서비스 매뉴얼

### ■ 수화대면낭독서비스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화사용 청각장애인 중 한국어[한글] 문해 능력이 부족한 농인을 위해 한국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 책을 읽어주는 수화대면낭독 서비스입니다.

### ■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신청방법

- 문 자 : 0506-864-9663
- 영상전화 : 070-7947-8883
- E-mail : [light229@nate.com](mailto:light229@nate.com)
- 방문신청  
(최소 2일 전 예약, 1일 1~2명 원칙)

### ■ 수화대면낭독서비스 방법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에 배치된 다양한 도서들과 자료들을 수화 낭독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의 한국어[한글] 독해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 제시하여, 한국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용자의 요망을 들으면서 진행시켜줍니다.

### ■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일시 및 시간

- 낭독자 : 농인통역사 김한빛 , 수화통역사 김만영
- 일 시 :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 11월 30일 토요일
- 시 간

### ■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신청자 응대 순서

1. 수화대면낭독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2. 날짜 및 시간 조율
3. 대면낭독 예약현황판 기입

4.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원하는 책 한 권을 다 읽어주기
  - 이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기
  -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주거나 대화하듯이 이야기로 풀기
  - 문해력 향상을 목적인 이용자에게 활동지 작성 등의 독후활동
  - 독서활동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소감나누기 및 다양한 독후활동
5. 수화대면낭독 서비스 후, 수화대면낭독 서비스 일지 작성

■ 수화영상실 (대면낭독실 병행)

- 대 상 : 청각장애인
- 대면낭독실로 사용 시, 보조의자, 독서대를 함께 비치해주기
- 이용방법 : 최소 2일 전에 전화, 문자로 낭독자와 매칭 후, 사용
- 낭독자료 : 이용자가 책을 가져오거나 도서관 자료는 이용자의 본인 회원카드로 대출
- 수화영상실의 예약이 찻을 경우, 대면낭독실을 이용

■ 수화대면낭독서비스 할 때의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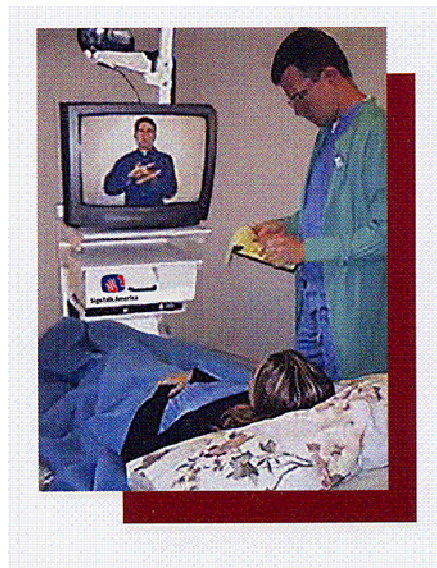
- E-mail 또는 문자로 예약 신청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 한국어(한글) 책에 담긴 정확하고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낭독 시,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단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수화단어에 대한 의미가 다를 때에는 서로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국어사전 필요시, 이용자의 본인 회원카드로 대출해서 가져올 수 있다.

요일	시간	담당	대상
화요일	오후 2 - 5시	농인통역사 김한빛	중고등학생 및 성인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 - 12시		
금요일	오후 2- 5시	수화통역사 김만영	대학생 및 성인
토요일			

## 2)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 가) 운영계획

-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가능 통역사를 확보하여 서울도서관과 서비스 제공방식 논의
- 농학교 및 농아인협회 등 농인 관련 기관에 홍보
- Wifi와 LTE 가능 태블릿 PC를 2개 구입(LTE 무제한요금제 가입)하여 서울도서관 안내 혹은 대출 데스크에 1대 배치하고, 다른 수화통역사가 1대 소지
- 청각장애인이 서울도서관 안내 및 대출 데스크에 방문하여 한국어 음성언어(구화법) 혹은 문자언어(필담)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사서가 의사소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화 사용 농인이 수화로 의사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원격수화통역 담당 통역사에 태블릿 PC로 영상통화 전화를 걸어 원격수화통역을 받아 '청각장애인과 사서가' 의사소통함.
- 서울도서관 다른 층에 안내 데스크 및 대출 데스크에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이 방문한 경우, 사서는 태블릿 PC가 배치된 데스크에 전화하여 태블릿PC를 가져와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를 이용함.
- 원격통역서비스 예: 손말이음센터



<http://www.relaycall.or.kr/service/remote5.asp>

<그림 III.10 원격수화통역 예>

## 나) 운영 일정 및 시간

### [운영일정]

- 9월 13일 :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공지 내용 작성
- 9월 23일 :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홍보시작
- 9월 23일 : 농학교 및 농아인협회 등에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협조 공문 발송
- 10월~11월 :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9월27일 이전 서울도서관 테블릿 PC 배치 완료 및 이용법 사전 교육)

###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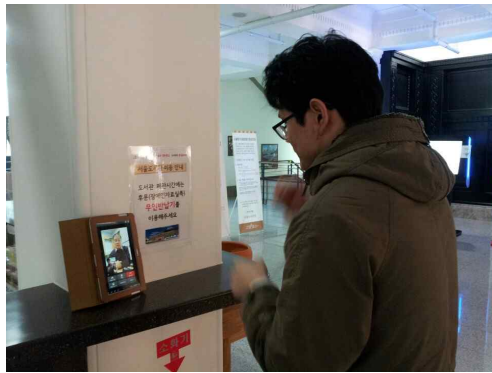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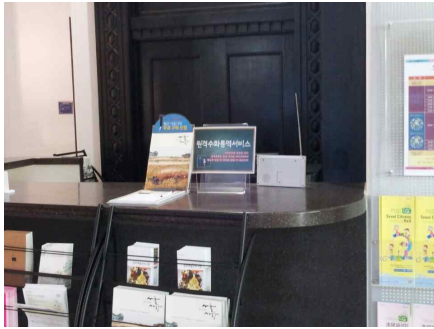
- 시범운영기간: 10월 1일(화) ~ 11월 29일(금)
- 시범운영시간: 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안내 및 대출 데스크에 수화 사용 농인이 오는 경우 테블릿PC로 청인 통역사와 통신하여(skype나 마이어플 이용)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받음
- 토요일과 일요일은 통역사 사정에 따라 원격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다) 소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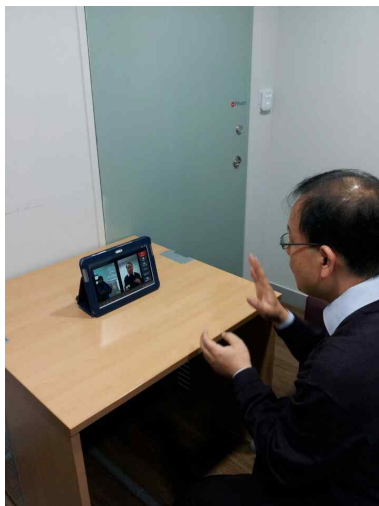
- 청인 수화통역사 인건비 : 1시간 당 5-10만원
  - 시범기간 중 원격수화통역 제공 총 시간을 누적하여 통역비 제공
- 테블릿PC(2대) 구입 및 LTE 무제한 요금제 3개월 가입비
  - 테블릿PC 구입 120만원
  -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3개월) 30만원

라) 운영 실제

- 서울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농인 이용 모습



- 수화통역사가 원격 수화 통역하는 모습



마) 이용 방법

(1) 사서 및 자원봉사자용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소개

### 원격 수화 서비스

태블릿PC 정보 및 서비스 방법 소개

수화 가능 사서(통역사) 부재시,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도서관 사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 태블릿PC 정보**  
 서울도서관 소장 태블릿PC 전화번호 : 010-3165-7624  
 기본이메일 : [seoulilb@gamil.com](mailto:seoulilb@gamil.com) / 비밀번호 : seoulilb  
 김만영 수화통역사 전화번호 : 010-9239-7624

- 1개월에 최대 300분 이용가능  
 -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ARS번호는 추가요금 발생 (금지)


**☐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방법 소개**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총 3가지

1. 영상통화 300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영상통화 300분을 사용한 경우
3. 영상통화 600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이때 각 경우에 따라 지시된 사항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1. 영상통화 300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전화(☎)를 선택합니다.



2. 김만영 수화통역사를 선택 후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가 표시되면

3. 영상통화(영상통화)를 선택하여 영상통화를 시작합니다.

#### 2. 300분을 모두 사용한 경우



1. 통화(☎) 버튼을 눌러 김만영 수화통역사와 통화 후
2. 김만영 수화통역사가 서울도서관 쪽으로 영상통화를 걸도록 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3. 영상통화 총 600분(10시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



1. 스카이프, 행아웃 그리고 시드(Skype, 행아웃, 시드) 등의 영상통화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 (2) 안내데스크 표시문



## 3) 스마트폰 기반 서울도서관 수화안내 동영상 제작 및 탑재

### 가) 추진 내용

- 수화 안내 동영상 내용

- ▶ 서울도서관에 청각장애인이 방문하여 각 실의 열람실 이용 방법 및 자료 찾는 방법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함.
- ▶ 영상물 내용
  - 서울도서관 역사 소개
  - 도서관 회원증 발급
  - 각 실의 열람실 이용방법 및 주제별 도서위치 안내
  - 도서검색 하는 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능 활용 방법
- ▶ 제작 및 촬영 기법
  - 수화해설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한국복지대학교 촬영 스튜디오 촬영 병행
  - 한국복지대학교 편집기기 활용 수화동영상 편집 및 렌더링

- 서울도서관 서버 수화 동영상 탑재 및 URL 확정
  - 지속적인 수화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도서관 서버에 수화 동영상 탑재
  - 수화동영상 탑재 url 주소 결정 후 QR코드 생성(다양한 무료 생성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예 <http://lib.seoul.go.kr/sign/libraryUseInf01.wmv>

- QR 코드 병기
  - 서울도서관 안내표지판 및 안내 데스크, 브로셔, 홈페이지 등에 수화 동영상 탑재 url이 삽입된 QR 코드 병기
  - QR코드 병기 예



-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및 수화 동영상 이용
  -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알고 싶은 정보 등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 후 이용
  - QR 코드 인식 후 수화 동영상 시청
    - 예: <http://youtu.be/Z9I4StP7-5A>

나) 추진 일정

- 9월 : 수화 해설 대상 및 내용 협의
- 9월 : 수화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수화 동영상 탑재 확정 및 QR 코드 생성
- 10월-11월 : 수화 동영상 탑재 및 QR 코드 병기

다) 추진 과정

<표 III.36> 추진 과정

추진과정	담당	내용	비고
수화 안내 내용 결정	서울도서 관 투어 담당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도서관 공간별, 이용방법별 수화번역 내용 작성</li> <li>• 공간별 예: 일반자료실1, 장애인자료실, 모유 수유실, 북카페, 서울자료실, 서울기록문화관 등</li> <li>• 이용방법별 예: 회원증 만들기, 운영시간, 서울도서관 간략 소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G나 와이파이로 수화 안내 동영상을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소개 내용은 간략해야 함(A4 절반 이하, 3-5 줄 권장)</li> <li>• QR 코드 병기 장소와 매칭가능한 내용이어야 함</li> </ul>
서울도서 관 현장 사진 촬영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로 안내할 내용에 따라 동영상에 삽입할 서울도서관 현장 사진 촬영</li> <li>• 예: 세계자료실 안내에 맞는 세계자료실 스틸 사진 촬영 후 수화 안내 동영상에 삽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 안내 내용에 따라 서울도서관 홍보 스틸 사진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li> </ul>
수화 안내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 및 수화 영상 화질 문제로 한국복지대학교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li> <li>• 수화 동영상과 스틸 사진 편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시청가능하도록 mp4 파일로 렌더링</li> </ul>
동영상 탑재 및 URL 주소 확정	서울도서 관 전산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 안내 동영상 서울도서관 서버 탑재</li> <li>• URL 주소 확정</li> <li>• URL 주소 담긴 QR 코드 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QR코드 생성프로그램 연구진 제공</li> </ul>
QR코드 도서관 병기	서울도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별,이용방법별 수화안내 QR코드병기</li> <li>• 예: 세계자료실 입구에 QR코드 병기(세계자료실 수화 안내 동영상 URL 담긴 QR 코드)</li> </ul>	
스마트폰 기반 수화 안내 서비스	청각장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프로그램(다음이나 네이버 어플 내장) 이용 수화 안내 동영상 시청</li> </ul>	

#### 라) 소요 예산

- 예산액 : 없음
  - 수화 동영상 탑재 및 QR코드 생성 비용 들지 않음
  - 만약 수화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비용 부담이 생길 경우 연구진이 부담
  - 안내 표지판 등에 QR병기 추가로 인한 비용 발생시 연구진과 추가 협의

#### 4) 수화번역도서 배치

##### 가) 추진 내용

- 한국복지대학교 도서관에 장기 대여 공문 발송
- 한국복지대학교 도서관 장기 대여
- 수화번역도서 15권 장애인 자료실 서가 배치
- 전자책 pdf 파일의 경우 장애인 자료실 자료 열람용 컴퓨터 바탕화면 수화번역도서 폴더에 배치
-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수화번역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사서의 허락을 받아 수화번역도서 열람용 컴퓨터에서 전용 리더기를 통해 수화번역도서 이용

##### 나) 수화번역도서 이용 및 장비 활용 방법

- 수화번역도서 이용에 필요한 장비
  -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서울도서관 제공
  - 전용 리더기(보이스아이 PC-Mate): 한국복지대학교 장기 대여
- 수화번역도서 이용 방법
  - 수화번역도서 이용방법 첨부자료 참조(붙임1)
  - 수화번역도서 이용 동영상

<http://youtu.be/Z9I4StP7-5A>



## 다. 평가

### 1) 수화 대면낭독 서비스

#### 가) 좋은 점

- 모르는 부분만 질문할 수 있어서 자세히 배운 점이 좋았음
-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음
- 수화 낭독자가 설명해 주는 거 최고임. 설명해 주고 배경지식으로, 꼼꼼하게 해 주는 거 장점임.
- 전문용어와 배경지식 함께 설명해서 더 이해하게 됨,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여 소화해서 도움이 돼서 좋음.
- 지문에서 사회적 배경 지식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낭독 서비스 점 설명까지 해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됨. 농인 환경에서 자라온 저는 일반화된 지문에서 읽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낭독 서비스 덕에 공부가 더 수월해짐.
- 모의고사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때마다 즐기도 함
- 수능완성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 배경지식이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주심과, 모르는 단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쉬워졌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르게 쉽게 설명해주심이 좋았다.
- 수능 실전모의고사의 지문에 나온 비언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눈을 흘기다, 누그러진 목소리, 머쓱한 듯이 웃는다)을 이해할 때 실제로 어떻게 표현한 건지 궁금했다. 통역 서비스를 받고나니 내가 상상했던 것이 통역에 의해 알게 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새삼스럽게 알았음. 낭독서비스 덕분에 잘못 알 뻔했던 저를 구한 것 같습니다.
- 몰랐던 배경지식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쌓을 수 있음
- 처음 보는 단어의 개념을 동시에 배경지식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농인 대학생이 전공과목을 배울 때,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 배경지식이 부족해 전공과목을 가지고 수화 낭독서비스를 통해 전공 관련 지식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낭독자가 모의고사를 읽어주셔서 기억이 용이함. 왜냐하면 우리 농인들은 ‘발음, 노래, 판소리’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낭독자는 청인 입장으로 배경지식을 설명해 주는 거 많이 도움이 된다. 그거 필요하다.
- 노래 관련 지문의 궁금증을 해결되어 꽤 도움이 되었음. 게다가 노래는 어느 상황에 쓰는지, 다양한 용도의 목적까지 친절히 설득해 주셔서, 노래의 문화를 조금 알게 되었음. 이를 통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네요.

- 청인들은 아리랑이라는 것을 알아듣는데, 농인이 듣지 못해서 아리랑이라는 뜻을 몰랐음. 아리랑에 대해 들어보니 알게 되었음.
- 저는 개인적 질문을 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 예술[미술, 음악] 영역, 과학에 대한 공부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배경지식과 뜻이 쉽게 설명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구요.
- 낭독자는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 주고,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주고 좋았음. 그리고 비문학(예술) 영역의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친절히 해주고 좋았음.
- 수능 책에는 미술, 음악에 관한 내용을 읽어도 어려웠어요. 미술, 음악에 관심 없긴 했지만,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설명해줘서 도움을 받았어요.
- 미술에 관한 내용에 관심 있는 저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읽으면서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음. 그런데 좀더 쉽게, 또는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기본개념을 익히고 나니 한결 수월해졌어요(수화 낭독서비스덕!!)
- 과학, 예술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익혀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더 넓은 지식의 폭이 넓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 이번에는 예술 분야이다. 예술 분야에 음악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음악을 알아도 설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근접할 수 있도록 수화 낭독해주시니, 음악 해석, 음악이 중요성이라는 설명을 이해되었다. 음악과 거리를 멀어도 이해 쉽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심이 좋았고, 음악에 대한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낯선 '미학'을 수화로 설명해주셔서 미학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론이 있는데 이론을 읽는가 문제가 없어도 행여나 오해할까봐 노심초사 했는데 수화를 해주시니 생각했던 대로 맞았다. 수화로 낭독해주시니 좋았고 도움이 꽤 되었다.
- 농인이 이해하기엔 난감한 음악 부분을 낭독자가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이해하는데 수월했었다. 과학, 물리, 각운동량, 우리가 이해하도록 낭독 방향을 잘 잡고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쓴 덕에 더 이해되었다. 정말, 낭독서비스는 농인들에게 필요하다.
- 수능형 연습문제, 실전 모의고사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좋겠지만, 본인이 이해가 좀 힘들 듯 일대일로 다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본인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습효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난 문장력 약간 미흡해서 좀 어렵지만, 낭독자랑 많이 도움을 받아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 계속 도움받고 싶어요.
- 난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단어만 모르게 물어보고 그 정도 책을 설명해줬어요.
- 수능 국어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이 비문학이다.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과

학에서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맞는가? 저런 것이 맞는가?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잘못 이해하면 문제를 틀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화낭독서비스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한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하마터면 잘못 이해할 뻔 했네라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난다.

- 법칙에 대한 설명에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심이 좋았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되었다.
- 낭독자는 비문학에 대해서 간절히 해주는 거, 수고하는 거 좋다. 그리고 낭독자는 읽어주셔서 나 입장으로 시원합니다.
- 과학, 사회, 경제와 관련된 지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 비문학에 대한 관심 없었는데도 어려운 내용으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되었어도
- 비문학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우주 관련으로 다른 비문학이어서 천체관측방법, 이론적 내용을 봐도 어려웠는데, 수화로 통해서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전적인 관측 방법과 근대적인 관측 방법을 알게되어,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수능 공부에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 어떤 단어에 관련된 정보를 바로 묻고 답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 쓰이는 단어를 깊게 음미하게 만든다.
-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를 알도록 수화로 농인이 알게 쉬운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결국 편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다.
- 대학에서 배운 농인 대학생을 위한 좋은 수화대면낭독서비스인 것 같다.
-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지식을 가지고 부족한 지식을 더 배울 수 있다.
- 배경지식까지 더 설득해주셨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공부하는데 참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나는 모르는 글자로 설명해준 거 오히려 도움이 크다. 그리고 배경지식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아주 좋다.
- 모르는 내용, 단어를 설명해 줘서 도움이 되었어요.
-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더 상세한 상식을 부여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쉬워졌고 뿐만 아니라 헛갈릴 수 있는 문장을 수화로 낭독해주시기에 훨씬 더 쉬워졌다. 덕분에 문제풀이가 수월해지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글을 읽고 나니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여러 가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모르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을 꼭집어서 설명해서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 나는 수화를 잘 보았지만, 이해력을 약하게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 낭독자께서 책의 내용을 읽어주셔서 낭독 시간이 참 빠르고 아는 것만큼 줄거리 요약에 활용하는 것처럼 농인에게 배경지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자기가 맞는 수준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부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은 점이다.
-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지식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100% 됩니다.
- 특수학교 특성상 배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일반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엮어 만든 모의고사의 내용을 듣어보지도 못한 문법이 많이 있어서 생소합니다 (농문화에서 자라왔으므로 방식이나 언어, 시각 의존 등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난생 처음 듣는 청인들이 사용하는 일반화된 문법을 수화로 대면낭독서비스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화 덕에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앞당길 수 있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좋습니다.
- 내가 어려운 내용을 읽으면서 모르고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 수화낭독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것을 보니 도움을 받는다는 장점이다.
- 일반화된 문장을 구체화된 수화를 해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문장을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다.
- 농인들에게 맞는 수화를 볼 수 있다.
- 책을 통해 학교에서 빠진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다. 일반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 낭독자는 한국역사에 대한 관심, 풍부한 배경지식이 있었고, 탁월하게 수화로 통역해 주시다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미리 알고 부연해주시고(기본 역할에서 확장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올바르게 이끌어냈다. 효과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 수화로 읽어주는 거 좋다. 자세히 읽어주는 거 장점이다.
- 수화낭독자께서 수화로 해주시니, 설명이 훨씬 더 쉬웠고 이해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뿐만 아니라 문제 풀기도 수월해졌다. 다시 한 번 읽어도 여전히 기억이 나고 이해력이 높아졌다. 읽어주었던 내용은 역사 지문인데 혼자서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수화 낭독자께서 낭독해 주시니 혼자서 하는 시간보다 더 절약되었고, 역사 지문 내용에 대해서 쉬워졌다는 효과가 컸다.

#### 나) 문제점 및 개선점

- 수화 설명을 집해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음
- 지금은 문제점 없음
- 수능 모의고사 낭독이 어려움. 지식이 부족하고, 수화가 너무 약해서 집중해도 이해하기 어려움

- 낭독 중간에 5분만 쉬었으면 좋겠음
- 수화낭독실이 좁다. 인원수가 많아 자리가 부족해서 불편하게 보는 자리라서 아 쉬웠다.
- 인원 2-3명이 적절할 듯.
- 월화수목금토일 각 요일마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예술 전문용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 책 속의 내용을 TV 혹은 빔으로 서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수화 보면서 동시에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한권 밖에 없어서 남감해지는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 과학은 여전히 어렵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계에 대해서는 시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힘들었다. 약간. 전문적인 수화 낭독인이 있음 좋겠다. 어렵겠지만 나중에 그럴 수 있도록.
- 비문학(과학, 경제, 사회) 어려운 용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는지 없다. 그거 단 점이에요
- 전문용어는 자세히 설명해 주기
- 더 쉽게 설명하는게 좋겠어요. 배운 적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문학(과학)에는 태평양에 대해 배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히 설명 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 과학용어를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과학 분야를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설명해 줘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다. 과학을 배울 때 쉬운 예를 넣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 수화로 표현하기에 난해한 단어가 있는데, 낭독자에 연관 없으며 농사회가 쓰는 수화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화사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 지식을 아는 만큼 쉬운 문제라면 설명해줄 수 있으나, 각 분야 지식전문 대면낭 독 쉽게 말해 각 분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배우고 싶은 지식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각 분야 지식을 갖고 있는 대면낭독자의 인력이 늘어나야. 예를 들어 예술전문이라면 예술에 대해 아는 사람 하나 있어야 한다.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내용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수화해줬으면 좋겠어요.
- 공학 관련 지식이 없고, 공학 관련 수화가 없다.
- 낭독자가 책을 편히 볼 수 있도록 독서대나 농인 이용자가 수화를 잘 볼 수 있도록 원으로 된 책상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용자 이용 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 문제점, 개선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 국어 전문성이 있으면 좋다. 수화가 더 잘하면 좋다.
- 수화 낭독자 더 많이 늘리기
- 문제점은 없었으나, 아쉬운 것은 수화낭독자의 수가 늘렸으면 좋겠다. 낭독해 달라는 농민 수가 많은데 한 명이어서 낭독해주기 벅차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 다) 향후계획

- 시범 운영을 통해 청각장애인 관심 도서와 서비스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수화영상도서, 수화번역도서, 수화해설도서 등) 제작에 기초자료로 제공
- 지속적인 수화낭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화통역 가능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원격 수화낭독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2)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 가) 이용자 평가

#### <좋은 점>

- 갤럭시 탭을 이용한 원격수화통역서비스는 농민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였다. 고정된 장치가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안내데스크 한 곳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부서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단절과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농민이 원하는 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고 재차 질문을 하거나 반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안내데스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들고 가서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된다.
- 농민이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농민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것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이용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농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주 유용할 것이다.

〈문제점〉

- 도서관에 농인이 가더라도 당연히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도서관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농인이용자가 원격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느끼게 해준다.
- 도서관 직원들이 원격수화통역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농인이용자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어폰을 사용하지도 않고 갖고 다니지도 않지만 도서관 직원은 수화통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수화통역사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상통화를 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아 화면을 농인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향하는 등 미숙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다.
-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나 직원들이 농인이용자가 방문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농인을 접해보지 않은 청인들(도서관 직원들 - 사서, 안내데스크 직원, 자원봉사자 등)은 아무래도 제3자를 통해서 대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점에서 익숙하지 않으며 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농인이용자를 대할 때 유난을 떨거나 어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향후 계획

- 시범 운영을 통해 청각장애인 및 도서관 사서의 의사소통 향상 정도와 만족감을 분석, 청각장애인 도서관 이용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의 대안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장애인도서관에 제시(원격수화통역 및 낭독센터 설립)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화통역 가능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방안 제시(도서관 원격수

화통역 및 원격수화낭독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수화 대면낭독 및 수화통역 전문 인력 파견제도 도입,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수화번역 전문 인력 양성 및 수화번역센터 설립 등)

### 3) 스마트폰 기반 서울도서관 수화안내 동영상 제작 및 탑재

#### 가) 향후 계획

- 청각장애인 및 서울도서관이 요청하는 수화 해설 요구 자료 추가 제작
- 홈페이지 주요 정보 및 청각장애인 관련 홍보 자료에 대한 수화 동영상 추가 제작

### 4) 수화번역도서 배치

#### 가) 향후 계획

-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요구가 많은 경우, 한국복지대학교 도서관과 협의 후 대여 기간 연장
- 수화번역도서 이용자가 많고, 수화번역도서 추가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추가 제작 협의

## IV.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및 지침

### 1. 거점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 가. 물리적 환경 구축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구축은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의사소통이나 안전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불이나 긴급 상황을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경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부록1 참조)
- ② 도서관 안내 및 도서 설명을 위한 QR코드 등을 이용한 수화영상안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청각장애인의 가청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보청기, 자유음장증폭시스템 등의 보청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록2 참조)
- ④ 실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서관에서의 실내 음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어음 명료도와 배경 소음의 통제이다.
  - 이를 위해 실내 반사음과 말소리 방해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흡음재 사용 장소와 범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말소리 명료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반사음의 반사 시간을 1초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250Hz-2KHz에서의 평균 흡음 계수 형태를 나타내는 소음저감계수 (*NRC*, Noise Reduction Coefficient)를 가능한 높게 유지해야 한다 (*NRC*= 1 ~ 0, ※1이 완벽한 흡음)
  -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배경 소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보청기기를 사용할 경우 배경 소음의 방해로 인해 화자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 ⑤ 폐쇄자막 기능이 있는 TV와 같은 문자정보 수용이 가능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나. 인적 환경 구축

### 1) 인적 구성

거점도서관은 운영의 효율성과 청각장애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① 청각장애 전문사서(농사회와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함)
- ② 청각장애 당사자(수화통역 및 청각장애인 안내)

### 2) 인력 확보 지침

- ①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실행 및 운영은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전문사서가 담당한다.
  - 전문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각장애인통역사나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한다.
  - 이런 자격을 갖춘 전문사서가 없는 경우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나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한다.
- ②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을 채용할 때, 도서관에서는 농사회와 신뢰관계가 있거나 신뢰관계 구축이 가능한 청각장애 당사자를 고용한다.
  - 청각장애인의 특성 상 의사소통 양식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즐기고 편안해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 당사자 직원은 농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청각장애인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 및 개발에는 농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농사회 구성원인 청각장애인 당사자 직원이 바람직하다.
- ③ 청각장애인 서비스 담당 직원은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의 사용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담당 직원은 수화 능력 뿐 아니라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 및 프로그램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과의 원

- 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과 청각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시킨다.
- 수화사용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이를 수화로 번역하고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청각장애인 서비스 담당 직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담당 직원은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 특성 상 수화 문자 교육 또는 수화대면 낭독 등의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크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는 농사회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 ⑤ 거점도서관의 직원은 수화 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거점도서관의 직원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거점도서관의 직원은 원활한 수화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간단한 수화와 청각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각장애 이용자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사용자 뿐 아니라,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하고 청각을 통해 또는 청각과 독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수화와 말, 수화와 문자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람 등 그 의사소통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 ⑥ 거점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에서의 청각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모임이나 협의체를 만든다.
- 거점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프로그램 및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공공도서관에 원격수화통역, 직원 수화 교육,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춘다.
- ⑦ 거점도서관은 수화자원봉사자 모임의 활용을 통해 수화사용 이용자가 많은 경우 수준 높은 정보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거점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수화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 ⑧ 농사회 구성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활용한다.
- 수화봉사자의 활용을 위해 농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한다.

## 다. 정보접근 환경 구축

### 1) 홈페이지 정보접근을 위한 지침

- ① 도서관 웹 콘텐츠 인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웹 콘텐츠는 청각장애인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웹 콘텐츠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1. 텍스트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 ①-2 텍스트와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 a)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스키(ASCII) 그림문자, 기호(Bullet)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이모티콘(Emoticon), 릿스피크(Leetspeak) 등과 같이 표준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글 부호의 경우,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b)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한글 텍스트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텍스트를 의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 혹은 핵심 내용을 수화로 번역하여 동영상 등 대체 미디어, 수화문자, 수화 아바타, QR코드, 수화 아이콘을 통하여 수화 텍스트를 제공한다.

- c) 대체 미디어(Alternative media): 텍스트 콘텐츠를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 콘텐츠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은 대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 d)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대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을 들 수 있다. 보조 기술은 보조공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e)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해당 이미지와 동등하게 인식할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지양하여야 하나,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대체 텍스트 및 대체 미디어를 텍스트와 함께 병행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 f) 대체 미디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내용을 수화로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의 경우, 해당 비디오 파일에 대한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텍스트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g)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를 제공하는 경우: 텍스트 전체를 동영상 등 대체 미디어나, 수화문자, 수화 아바타, QR코드, 수화 아이콘을 통하여 수화 텍스트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요점 혹은 핵심 내용만을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3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①-4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a)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또 다른 포맷과 동기화하여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혹은 콘텐츠 재생 과정의 특정 시점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대화가 필요한 매체를 말한다.

- b) 자막(Captions): 영상매체에 포함된 말, 음향 및 주변소리 등을 텍스트로 표현한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막은 영상매체의 진행에 따라 해당 이벤트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자막은 크게 닫힌 자막(Closed caption)과 열린 자막(Open caption)이 범용으로 활용된다. 닫힌 자막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있는 데 반해, 열린 자막은 비디오 콘텐츠에 자막정보가 함께 녹화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없다.
- c) 대체 수단: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는 자막, 구술된 내용을 글로 옮긴 원고(Transcript), 수화(Sign language) 등이 있다.
- d)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닫힌 자막(Closed 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Synchronized)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Video)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원고)을 제공하고,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e) 자막(Caption)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이 제공되거나 전용 재생 장치(Player), 별도의 자막 재생 장치 또는 현존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자막을 인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자막으로 인해 중요한 음향효과나 음성이 끊기게 되면 이 검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된다.
- f) 원고(Transcript)를 제공하는 콘텐츠: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원고 또는 대본(Scenario)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g)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5 도서관 웹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①-6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①-7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a)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웹 페이지의 언어 명시: 웹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보조 기술로 전달한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도록 제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웹 페이지의 기본 언어는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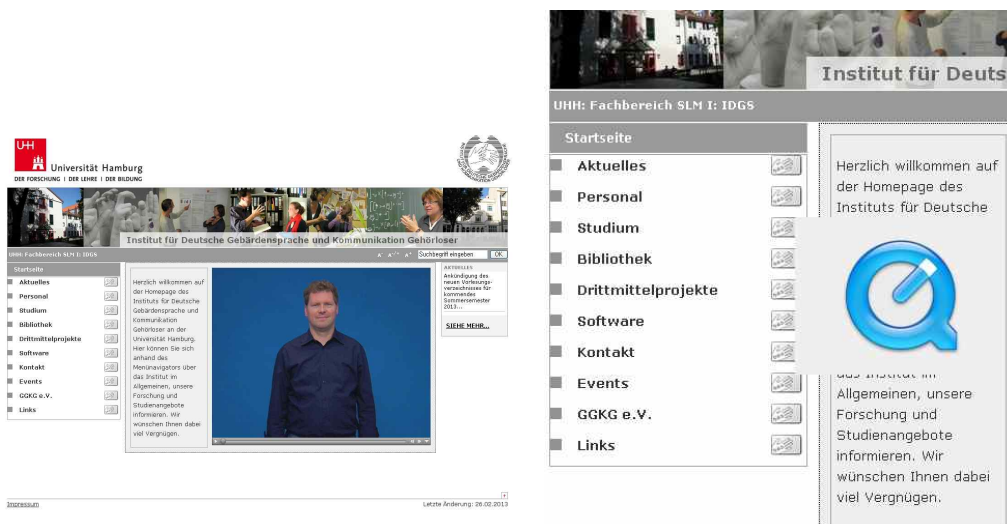
② 청각장애인 자신이 선택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장애인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의견의 자유와 정보접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형태·형식들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 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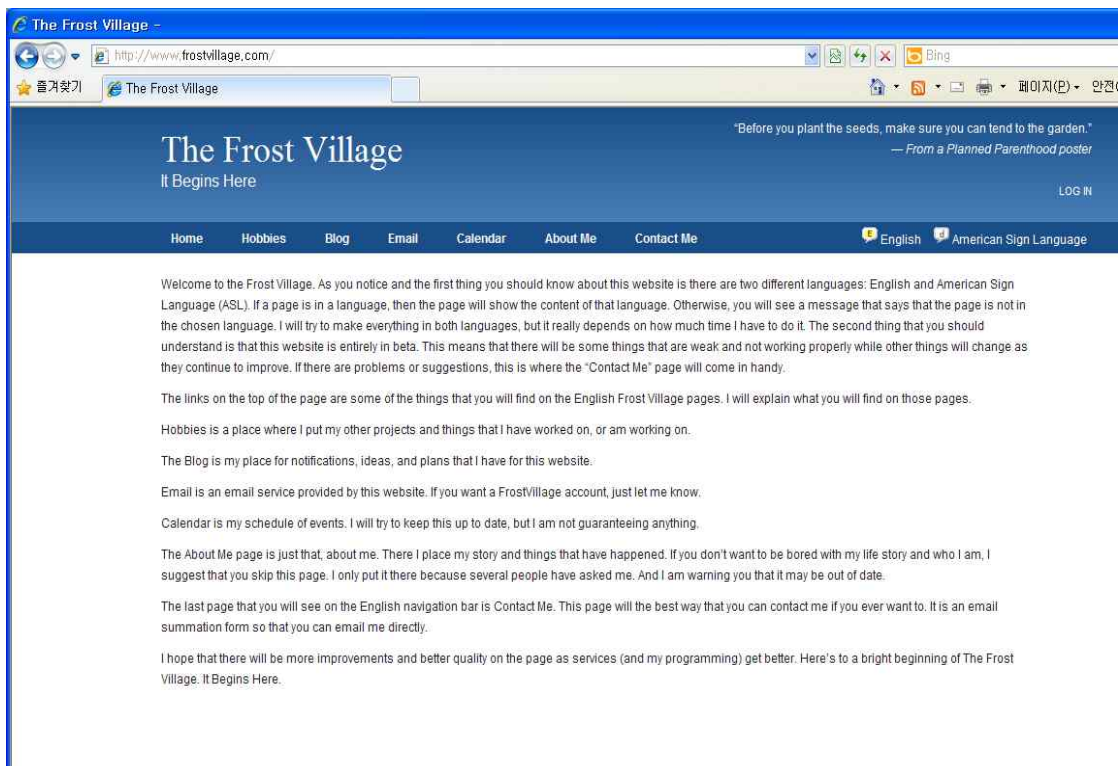
[그림 IV. 1] 수화 동영상이 탑재된 홈페이지 예  
<http://vl2.gallaude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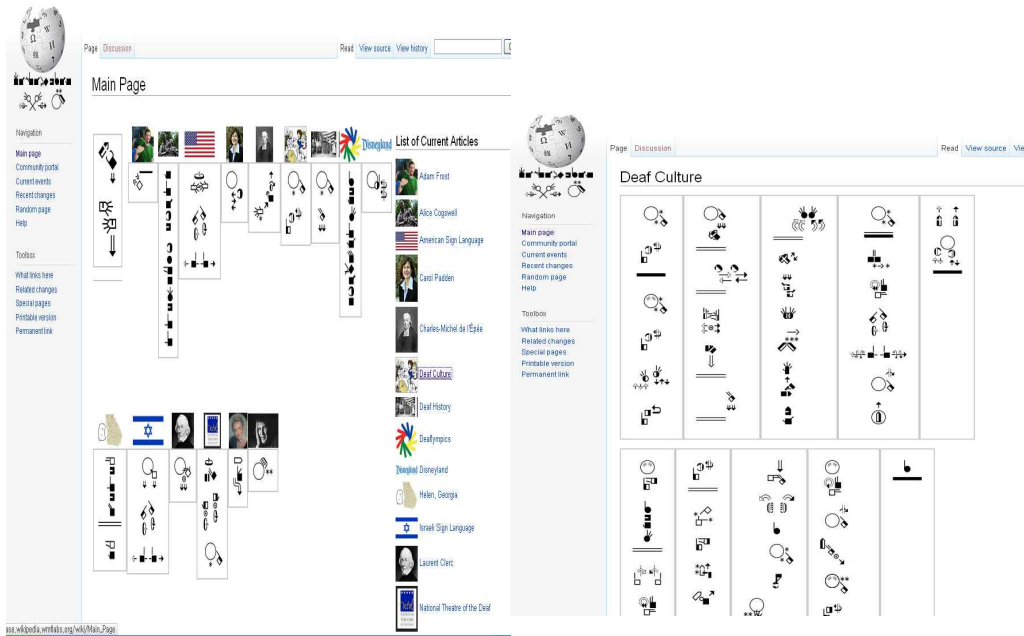


[그림 IV. 2] 수화아이콘과 동영상이 탑재된 홈페이지 예  
<http://www.sign-lang.uni-hamburg.de/#>



[그림 IV. 3] 수화문자가 병기된 홈페이지 예  
[www.signwriting.org](http://www.signwriting.org)





[그림 IV. 4] 수화문자로 제작한 홈페이지 예

<http://www.frostvillage.com/>

[http://ase.wikipedia.wmflabs.org/wiki/Main\\_Page](http://ase.wikipedia.wmflabs.org/wiki/Main_Page)

## 2) 도서관 방문 시 정보접근을 위한 지침

### 가) 도서관 내·외부의 물리적 접근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들(건청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접근권)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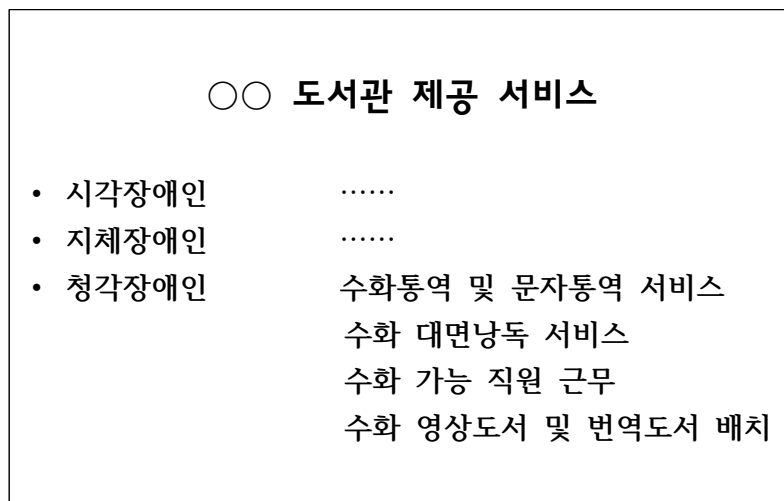
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 내·외부의 시설과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음성 언어를 듣고 말하며 의사소통하는 청각 장애인이든(구화인 혹은 난청인), 독화(입술 읽기 포함), 문자 언어, 수화 등 시각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이든(농인 혹은 농아인) 도서관 내·외부의 시설 및 자료 등에 접근할 때 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 혹은 청각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존중하고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도서관 직원들은 청각장애인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disability)이 아니라 건청인들과는 다른 방법(필담, 수화, 독화, 보조청취기

기를 통한 청취 등)을 통해 도서관 시설과 자료,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서관 건물로의 진입

- 도서관 이용을 위한 출입구 및 통로, 도서관 외부의 정원이나 기타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는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청각 채널과 음성 언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시각 채널, 시각 언어,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도서관 시설 안내 표지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시설 안내 아이콘(예, 화장실 마크 등), 수화 단어 그림, QR 코드를 이용한 수화 안내 동영상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도서관 입구에는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림 IV. 5] 정보서비스 안내문 예

- 도서관 주요 서가 및 통로, 도서관 외부 시설에는 청각장애인이 위급 상황 및 안내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벨(도움벨 혹은 호출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IV. 6] 도움 벨 예

-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 주출입문 부근에 안내 각 실과 시설에 대한 안내 책자 및 수화 동영상(도서관 이용 정보 제공 컴퓨터 혹은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안내 각 실과 시설에 대한 수화해설 동영상을 탑재된 url 주소를 QR 코드에 삽입하고 안내 표시에 병기하고, 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QR 코드 인식 프로그램(다음이나 네이버 어플 등에 기본 탑재)을 통해 수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안내 데스크에는 수화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수화 및 필담으로 대화하기, 독화, 보청기 및 인공와우 사용 청각장애인 대화하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원격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문이 게시되어야 한다(수화통역 가능 직원 및 수화통역 이용 가능 여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한 원격통역 이용 방법, 수화통역사 예약 방법 등).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청각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각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공되는 도서관 홍보 및 이용 안내 동영상에는 수화 번역 동영상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승강기가 고장 나거나 멈추는 등 비상 및 위급 상황에서 인터폰으로 직원과 대화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나, 음성 언어를 듣고 말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승강기 고장 혹은 위급 상황을 문자나 영상, 사진 등

으로 알릴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SNS 아이디가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탑승자가 비상호출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대화하였으나 응답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나고 반복해서 비상호출벨을 누르는 경우, 장난으로 치부하지 말고, 음성 언어나 한국어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이 누른 것일 수도 있으므로, CCTV 영상이나 직접 확인을 통해 승강기 고장이나 비상 상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안내 데스크 및 대출 데스크

- 도서관 안내 데스크 및 대출 데스크에는 수화통역사 혹은 수화로 대화 가능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안내 데스크 및 대출 데스크에 배치된 직원은 수화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필담 및 문자통역(속기 포함), 독화 등 청각장애인이 선호하고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 안내 데스크 및 대출 데스크에는 필담을 나눌 수 있는 수첩이나 용지, 필기도구 혹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된 두 대의 단말기(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과 청각장애인이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이 사전에 예약한 경우,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담당 직원이 도서 검색 및 대출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서가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들(수화영상도서, 수화번역도서, 수화 및 문자 자막 자료 등)을 장애인 자료실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이외에 영상물이나 도서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문자 자막이 삽입된 자료들도 검색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서지 정보 및 검색 시스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 및 수화 자막 이용 여부 추가).
- 청각장애인 관련 도서 및 영상물 등을 별도 코너로 분류하여 수화(농인

의 언어), 농인 자서선, 농인 문학 작품, 농인 관련 단체 출판물, 장애학 및 농학(Disabilities and Deaf Studies) 관련 서적은 한 자리에 배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서가 주변에 컴퓨터 단말기 및 정보기기를 배치하고 청각장애인 우선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화장실



[그림 IV. 7] 화장실 사용 표시 예

-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어야 한다.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하나 만들거나, 성별에 따라 남성장애인 화장실, 여성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남성 장애인은 남성 화장실을, 여성 장애인은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인이 화장실 내 부스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이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문에 이용 여부 알림 표시 혹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경보 및 피난 설비

-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경광등, 피난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도서관 직원 등은 장애인의 우선 대피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의 핸드폰 번호 등을 도서관 관련 정보 및 위급 상황 공지를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확보한 후, 위급 상황시 자동 혹은 직원이 위급 상황 정보를 입력·발송하여 청각장애인의 위급 상황 인지 및 대피를 도와야 한다.

## 나) 장서 구축

도서관 장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 중 사용 언어가 한국어(Korean)가 아닌 수화(Korean Sign Language 혹은 Signed Korean)여서 한국어 인쇄물을 읽는데 한계가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은 이들의 언어에 맞는 대체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과 달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쇄 도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청각장애인들 중 한국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인 수화(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체자료는 청각장애인들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변환된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문자 및 수화 자막이 삽입된 영상물: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에 문자나 수화 자막을 삽입한 자료로서, 몇몇 농민 관련 기관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하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뿐만 한국 영상물(DVD 등)에서는 여러 개의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화영상도서: 한글 책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여 수화로 번역·촬영한 영상자료. 한국어로 작성된 책의 내용을 수화로 제시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화 사용 농민이 수화로 생각한 내용을 수화로 표현한 것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제시한 자료도 이에 해당한다.
- 수화번역도서: 한국어 문장이나 문단, 이야기를 수화로 번역하여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이나 문단마다 수화 문장을 제시한 도서로서, 농민들이 한국어(한글) 책을 수화로 읽어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농민들의 한글 문해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고 있다. 동영상에 한

글과 수화 영상을 함께 제시하는 형태,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기존 인쇄 도서에 수화번역동상 URL을 링크시켜 스마트폰이나 전용 리더 등으로 수화번역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도서, E-Book 등에 수화번역 동영상을 링크시켜 한글 책의 문장을 클릭하면 수화번역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도서 등이 있다.

- 읽기 쉬운 책(Easy-to-Read Books): 청각장애 아동이나 학생들의 문해 수준을 고려하여 어휘 수준과 구문 수준 등을 수정하여 텍스트를 개작한 도서. 관련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제시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화문자도서: 한국어(한글) 책을 SignWriting 등의 수화문자로 번역·작성하여 출판한 도서를 말한다. 수화번역동영상으로 제시하는 대체도서와 달리 수화번역 결과물 제시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화번역문 저장 및 불러오기, 편집이 용이하다. 최근 수화워드프로세서의 무료 보급 및 사용으로 많은 나라 농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를 기록하는 문자로 활용하고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블로그 등에 수화문자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 녹취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업이나 회의 등의 음성정보를 녹음 혹은 촬영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실시간 속기한 자료를 편집하여 녹취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업이나 행사 이후에 녹음 혹은 촬영한 자료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녹취하여 생성된 대체자료를 말한다.
- 전자도서: 기본 E-Book이나 전자 문서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이나 수화번역동영상이 링크된 도서를 말한다.
- 한글·수화 혼용도서(Two Way Book for the Deaf): 수화번역동영상이나 수화문자 등을 통해 한국어와 수화가 함께 제시된 도서를 말한다. 농인들의 한글 문해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수화해설 비디오: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상물 등을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수화를 번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설명이나 해설을 수화로 제시한 영상물을 말한다. 관련 정보 추가 제시와 한국어-수화 문법 차이에 따른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원 영상물을 잠시 멈추고 수화로 충분히 설명한 후 다시 원영상물을 재생하면서 수화 번역과 해설을 첨가한다.

## 다) 서비스와 프로그램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독서활동이나 문화강좌 등에는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인쇄물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수화언어 사용자를 위한 수화(동영상 혹은 문자)로도 제공하여야 한다.

### □ 도서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 안내 데스크 직원은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면서(청각장애인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 음성이나 수화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한다. 한국어(음성언어)로 인사하고 말을 건넨 후, 응답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수화로 인사하거나 미리 준비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명함 형태)을 건네주며, 청각장애인이 선호하거나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필담, 독화, 수화, 메신저 탑재 단말기를 통한 문자 대화, 핸드폰 문자를 통한 대화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안내 데스크 혹은 대출 데스크의 직원 중 수화로 대화가 가능한 직원은 “수화 가능” 혹은 수화 마크가 찍힌 배지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산콜센터(120) 혹은 수화통역센터 등을 통한 원격통역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을 안내 및 대출 데스크에 게시하여야 하고, 수화 가능 직원을 배치되지 않았거나 관내 없는 경우, 도서관 직원 혹은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원격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 보청견 등의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하였을 때는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단절된 경우도, 청각장애인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건청인)과는

다른 방법(언어)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청각장애인이 선호하고 더 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 도서관 비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 비방문 청각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료의 방문대출, 우편대출, 택배대출, 온라인 서비스, 전화 서비스, 팩스 서비스, 문자 및 수화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서관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 등에 청각장애인을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문자 통화 혹은 영상 통화가 가능한 SNS 아이디(영상 전화기 번호 등), 문자 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 전용핸드폰 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인의 문의 및 자료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대답하여야 하며, 대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고는 내용의 답변을 먼저 하여야 한다.

#### 라)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학습, 업무, 이동 중 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고안된 기기이다. 거점도서관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여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필요시 거점도서관은 보조공학기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외 대출을 실시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독서와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청각장애인 보조공학 기술 및 기기

- 자막수신지, 음성증폭기, 진동신호장치 등
- 및 수화 자막 입력 SW 및 HW,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영상통화 가

능 태블릿 PC 및 SW(초당 30프레임 이상 전송 가능 유무선 통신망 포함), 수화 촬영 및 편집기기(조명 포함), 화장실 이용여부 시각알림장치, 도움요청벨 등

마)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 □ 웹 접근성

도서관은 한국어(음성 언어) 사용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수화 언어 사용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과년 지침의 준수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웹 사이트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정보통신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이트 내의 모든 요소들은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검색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홈페이지의 주유 내용과 메뉴 등은 한국어(음성언어, 문자언어)에 능숙한 청각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수화 언어 사용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동영상으로 번안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음성 정보 포함 동영상 콘텐츠에는 문자 및 수화 자막을 삽입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문자로 된 정보들은 수화로 전체 문장을 혹은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수화 동영상 직접 제시 혹은 QR 코드 병기)
- 온라인 참고봉사 시스템은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선호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Web-Form 메일, 게시판, 채팅, 영상 대화, 수화 동영상을 통한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유니버설 디자인

신체적, 경제적, 성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은 시설, 용품, 기기 등

을 구입 혹은 자체 제작하거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정신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장애인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설계는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이나 설비, 서비스를 말하며, 비장애인이 도서관 시설 및 설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A)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방법(B)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A+B)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건청인) 모두에게 유익되는 방법(A∩B)을 우선 찾아 적용하여야 한다.
- 보편적 설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아이디어로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비장애인(건청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거나 사용(익숙)하지 않는 방법이라 하여 청각장애인이 선호하고 더 잘 이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서비스 제공의 우선권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 장애인 집단은 서로 다른 요구와 특성을 가지며, 청각장애인 집단 내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일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제안된 보편적 설계 원리 및 실제(경사로 및 높낮이 책상, 웹 접근성 지침 등)를 청각장애인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More Universal Design for Library),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이용 후기 및 요청,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시설 및 설비, 서비스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

#### 바) 인력 자원의 개발 및 활용

도서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학습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힘써야 한다.

-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가 부가적인 것이 아니고, 도서관의 기본적, 필수적 서비스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도서관 단위에서는 사서연수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세미나 등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도서관들은 도서관장의 주도하에 자체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관에 적합한 장애인 서비스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다루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 지역대표 공공도서관 및 개별도서관들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한 사서를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로 지정해야 한다.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유자격자들을 도서관 사서 혹은 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에 대해서는 순환복직에서 일정기간 예외로 하거나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동일한 장애인 서비스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 및 직원은 장애인의 약점보다는 강점, 무능력보다는 유능함, 결함(지체)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담이나 독화, 수화 등의 비장애인(건청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것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 중에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보다 잘 듣고 말 잘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있고, 한국어(음성 언어)보다는 문자 언어나 수화, 독화 등을 통해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도 있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및 도서관 이용 특성이 존재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 및 직원은 정기적으로 청각장애인 포함 장애인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관련 연수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청각장애인 포함 도서관 장애인 이용자와의 만남(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존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제공 결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서관은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외 장애인 도서관, 복지관, 특수학교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도서관들은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분담 장서 개발, 종합목록 구축 및 자원 공유, 기타 협력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협력기반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의 정보복지 증진을 위해 해외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 도서관과 국제적 단체 등과의 협력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 국내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여러 형태의 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라. 자료 환경 구축

거점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 매체를 광범위하게 구성하며, 다양한 자료와 정보에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또는 새로이 제작한 자료를 구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해 자료 환경을 구축한다.

- ① 거점도서관은 청각장애인과 청인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농과 농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치한다.
  - 청각장애인들도 청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료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에 관심을 가진 청인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자료는 농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자료이다. 즉, 농교육의 역사, 유명한 농인에 대한 이야기, 농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 등 농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도서, 영상자료 등은 청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에 관심 있는 청인 모두가 흥미를 갖는 자료이다.
  - 이러한 자료는 교육용 도서, 전문 도서뿐 아니라 일반 수필이나 소설 등으로 된 것들도 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그와 관련된 영상자료들도 수집하여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거점도서관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인들을 위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농인 관련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지 않게 수집하여 제공한다.
- 이것은 농사회나 농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거점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거점도서관이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할 때 청각장애인의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은 깊어질 것이고 도서관 이용도 확대될 것이다.
- ③ 거점도서관은 기존의 영상물이나 도서 등의 자료에 수화 또는 문자를 삽입 하는 등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제작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치한다.
- **문자 및 수화 자막이 삽입된 영상물**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에 문자나 수화 자막을 삽입한 자료로서, 몇몇 농인 관련 기관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하여 농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뿐만 한국 영상물(DVD 등)에서는 여러 개의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화번역도서** : 한국어 문장이나 문단, 이야기를 수화로 번역하여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이나 문단마다 수화 문장을 제시한 도서로서, 농인들이 한국어(한글) 책을 수화로 읽어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농인들의 한글 문해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고 있다. 동영상에 한글과 수화 영상을 함께 제시하는 형태,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기존 인쇄 도서에 수화번역동상 URL을 링크시켜 스마트폰이나 전용 리더 등으로 수화번역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도서, E-Book 등에 수화번역 동영상을 링크시켜 한글 책의 문장을 클릭하면 수화번역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도서 등이 있다.
  - **녹취자료**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업이나 회의 등의 음성정보를 녹음 혹은 촬영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실시간 속기한 자료를 편집하여 녹취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업이나 행사 이후에 녹음 혹은 촬영한 자료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녹취하여 생성된 대체자료를 말한다.
  - **전자도서** : 기본 E-Book이나 전자 문서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이나 수화번역동영상이 링크된 도서를 말한다.

- 한글·수화 혼용도서(Two Way Book for the Deaf) : 수화번역동영상이나 수화문자 등을 통해 한국어와 수화가 함께 제시된 도서를 말한다. 농인들의 한글 문해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수화해설 비디오 :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영상물 등을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수화를 번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설명이나 해설을 수화 제시한 영상물을 말한다. 관련 정보 추가 제시와 한국어-수화 문법 차이에 따른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원 영상물을 잠시 멈추고 수화로 충분하게 설명한 후 다시 원영상물을 재생하면서 수화 번역과 해설을 첨가한다.
- ④ 거점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책의 내용을 수화로 번안하여 제공하거나, 수화로 제공되는 이야기 자료를 수집하여 비치한다.
- 수화영상도서 : 한글 책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여 수화로 번역·촬영한 영상자료. 한국어로 작성된 책의 내용을 수화로 제시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화 사용 농인이 수화로 생각한 내용을 수화로 표현한 것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제시한 자료도 이에 해당한다.
  - 수화문자도서 : 한국어(한글) 책을 SignWriting 등의 수화문자로 번역·작성하여 출판한 도서를 말한다. 수화번역동영상으로 제시하는 대체도서와 달리 수화번역 결과물 제시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화번역문 저장 및 불러오기, 편집이 용이하다. 최근 수화워드프로세서의 무료 보급 및 사용으로 많은 나라 농인들의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를 기록하는 문자로 활용하고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블로그 등에 수화문자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거점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문해 수준을 고려하여 개작된 읽기 쉬운 책을 수집하여 비치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문해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만화 등을 구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쉬운 읽기 책(Easy-to-Read Books) : 청각장애 아동이나 학생들의 문해 수준을 고려하여 어휘 수준과 구문 수준 등을 수정하여 텍스트를 개작한 도서. 관련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제시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마.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청각장애인과 도서관은 지금까지 상당히 거리가 먼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기로 쉽지가 않다. 다음은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본적 목적에 따라 IFLA, 미국 테네시주 도서관과 같은 외국의 대표적인 도서관과의 연계는 다루지 않았다.

### 1)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망

청각장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망은 직접형, 간접형, 혼합형의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청각장애 유관기관으로는 청각장애특수학교, 청각장애기관, 청각장애단체가 대표적이다.

세 가지 형태의 협력체계망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 참여자, 참여방법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협력체계망 형태에 따른 지원조직과 운영

	직접형 협력체계망	간접형 협력체계망	혼합형 협력체계망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장애거점도서관 전문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장애거점도서관 운영협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위원회</li> <li>• 운영협의회</li> </ul>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담당자</li> <li>• 청각장애관련전문가</li> <li>• 문헌정보학전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담당자</li> <li>• 청각장애 유관기관(기관, 학교, 단체) 담당자</li> <li>• 청각장애 당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도서관담당자</li> <li>• 청각장애관련전문가</li> <li>• 문헌정보학전문가</li> <li>• 거점도서관담당자</li> <li>• 청각장애 유관기관 담당자</li> <li>• 청각장애 당사자</li> </ul>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정보 제공</li> <li>• 운영 정책 조언</li> <li>• 간접적 사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프로그램 협의</li> <li>• 운영상의 역할 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에 따라 탄력적 참여</li> </ul>

가) 직접형 협력체계망

직접형은 「청각장애거점도서관」과 청각장애협회, 청각장애복지관, 청각장애학교, 청각장애단체와 같은 각각의 「청각장애 유관기관」과 직접 접촉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모형이다. 직접 접촉을 하는 과정에 청각장애거점도서관에 “청각장애거점도서관 전문가 운영지원단”을 두고 전문적 자문과 정책 협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는 거점도서관 담당자 외에 청각장애관련전문가와 문헌정보학전문가가 참여를 한다.

직접형 협력체계망은 청각장애거점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직접 함으로써 의사소통 단계가 단순하며, 청각장애거점도서관이 청각장애유관기관 관리를 직접 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접형 협력체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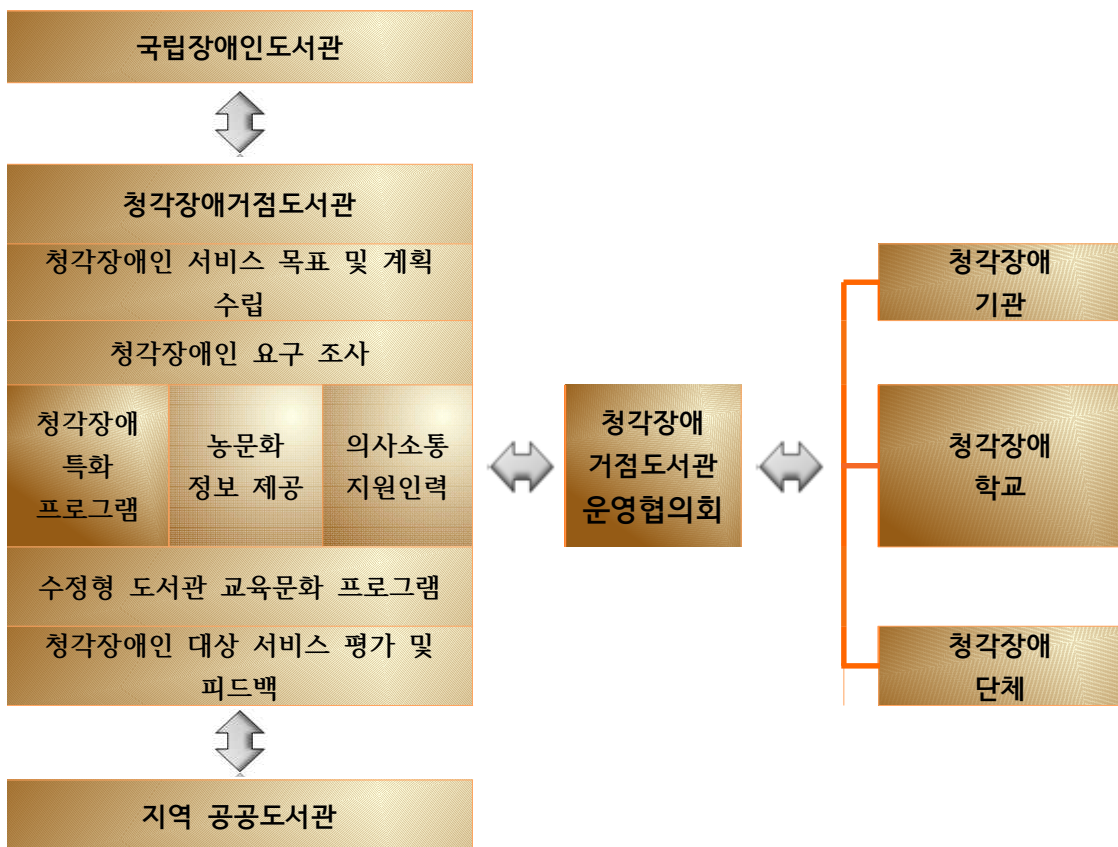


하지만 직접형은 초기 단계의 청각장애거점도서관 운영에서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특성상 청각장애 유관기관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데, 협력 정서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 상태에서 각각의 유관기관과의 직접 접촉이 원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청각장애거점도서관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도서관에서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 나) 간접형 협력체계망

간접형 협력체계망은 「청각장애거점도서관」이 청각장애협회, 청각장애복지관, 청각장애학교, 청각장애단체와 같은 「청각장애 유관기관」과 직접 접촉하는 대신 거점도서관 담당자와 청각장애 유관기관(기관, 학교, 단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청각장애거점도서관협의회」를 통하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 <간접형 협력체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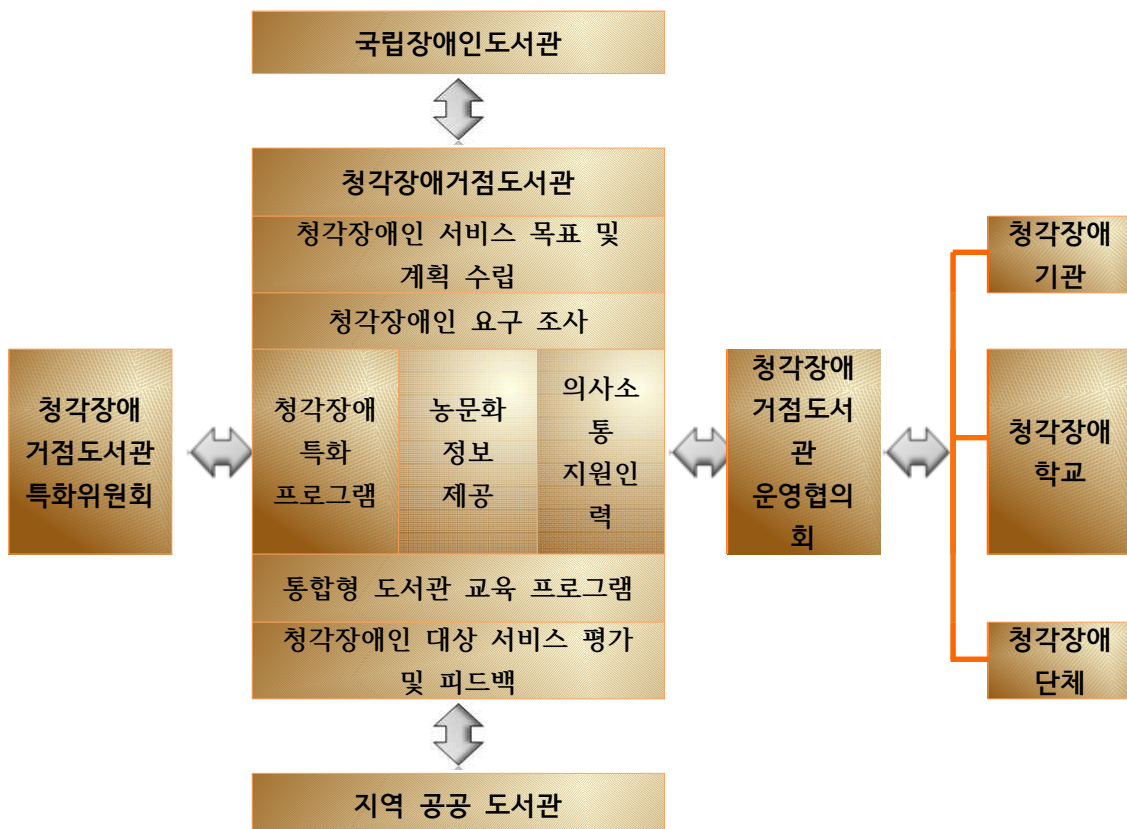


간접형 협력체계망은 청각장애거점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기관의 담당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나눔으로써 청각장애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에도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 및 문헌정보학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점도서관의 중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과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다) 혼합형 협력체계망

혼합형 협력체계망은 직접형과 간접형의 특징을 혼합한 것으로서 「청각장애거점도서관」 내의 전문위원회와 청각장애협회, 청각장애복지관, 청각장애 학교, 청각장애단체와 같은 「청각장애 유관기관」 담당자와 청각장애 당사자, 그리고 거점도서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청각장애거점도서관협의회」 운영함으로써 보완적 협력체계망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 <혼합형 협력체계망>



혼합형 협력체계망은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을 가져와 운영할 수 있다. 중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과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위원회와 청각장애유관기관 담당자와 청각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청각장애 유관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협의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청각장애 거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인력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와 협의회를 모두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의 고유 업무 외에 부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2) 청각장애 유관기관 정보

청각장애 유관기관으로는 크게 청각장애기관, 청각장애특수학교, 청각장애단체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청각장애기관에는 농아인협회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협회 지부들, 그리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같은 4개의 청각장애복지관이 있다.

청각장애학교는 이번 시범운영에 참가한 서울농학교, 삼성농학교 외 8개 농학교가 있다. 청각장애단체에는 이번 시범운영에 참가한 ‘소리를보는사람들’과 ‘한국농문화연구원’이 있는데 소규모의 지역별 단체로 운영됨을 인해 전국 단위에서 파악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각장애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을 지닌 deaf연대가 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는 청각장애단체의 대표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에 관한 상세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청각장애 기관 : <부록3>

■ 청각장애 학교 : <부록4>

■ 청각장애 단체 : <부록5>

## 3)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 <기본원칙>

①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Deaf First’ 원칙을 지킨다. 즉 청각장애 당사자의 필요와 의사를 최우선 고려한다.

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이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각 장애인들은 건청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는 경향이 크다. 공급자 입장이 강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소통은 청각장애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축된다. 협의회에 청각장애 유관기관 건청 담당자 외에 청각장애 당사자가 참여할 때는 반드시 협의회 참가자들이 수화로 의논을 하거나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 아울러 협의를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환경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가능한 35dB 이하의 소음이 있는 곳과 수화를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일반지침>

-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 ②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영사업과, 지역공공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기관의 연계 지원을 통한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 ③ 지역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거점도서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인력지원을 받아 부록에 첨부된 인근 지역 청각장애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④ 청각장애 유관기관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⑤ 협력은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정책 수립,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환경 구축, 기타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 ⑥ 청각장애 거점도서관 담당자와 청각장애 유관단체 담당자, 청각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협의회는 월별 정기회의, 비정기적 임시회의를 가진다.
- ⑦ 가능한 많은 회수의 정기적, 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이루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이 가진, 농문화라고 칭해지는 문화적 특성상 건청인과의 교류는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없이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 ⑧ 협력을 위한 협의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의 일치성을 재확인한다.

언어의 차이로 인해 동일 단어와 이야기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으로 협의의 말미에는 각각의 협의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⑨ 협의 시 건청인끼리의 대화로 청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⑩ 유관기관과의 초기 연계 시작 시에 대상 기관과 목적 집단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집단의 리더와 협의를 시작한다.
- ⑪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도서관 담당자 → 그룹 리더 → 그룹 회원'의 단계별 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⑫ 청각장애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구축 시 거점도서관은 신뢰와 권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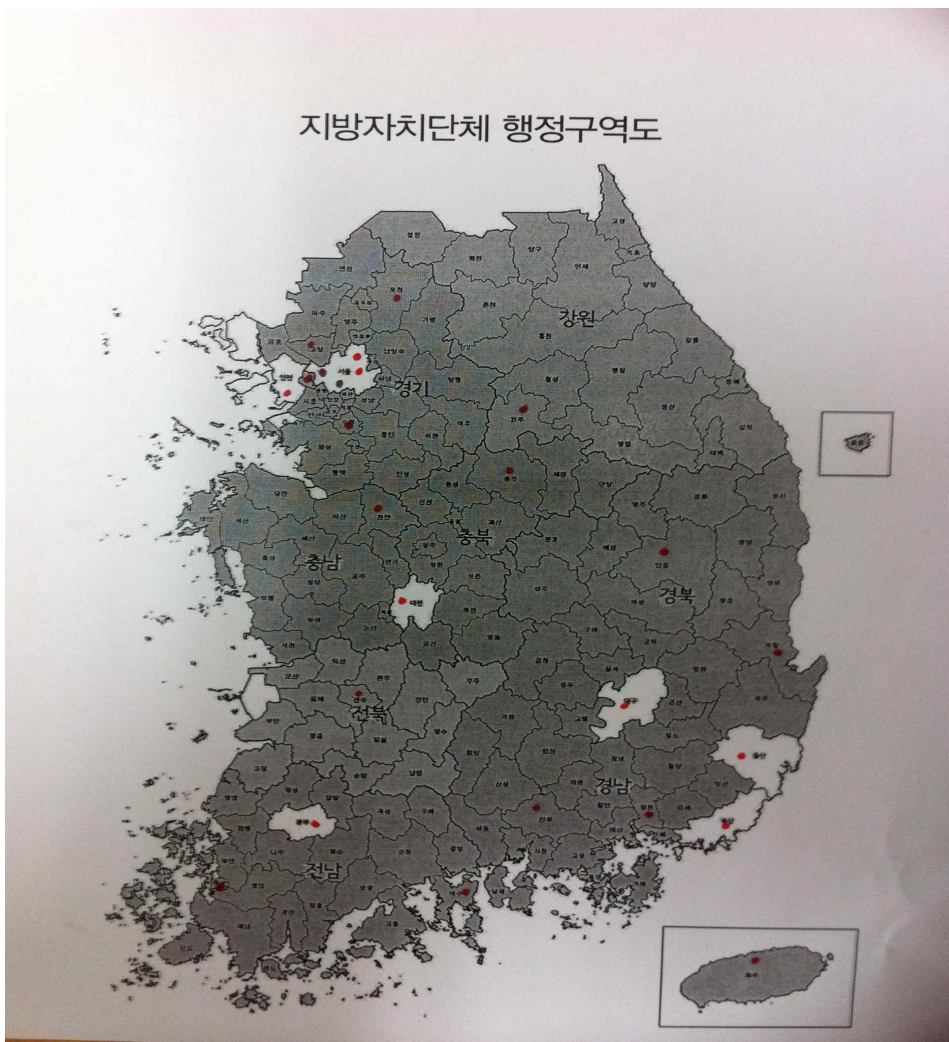
청각장애 문화의 특성상 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신뢰를 구축한 뒤에는 매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 아울러 권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 권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서관이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권위, 직원의 품위에서 오는 권위, 도서관장을 비롯한 도서관 사서들의 관심 등은 매우 중요한 성공 변인이다.

## 바. 청각장애인구 대비 지역별 청각장애 거점 도서관 요구 수

2012년 말 통계청 장애인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는 258,589명이다. 시군별 등록 청각장애인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41,977명, 부산광역시 14,405명, 대구광역시 11,629명, 인천광역시 13,471명, 광주광역시 8,289명, 대전광역시 7,540명, 울산광역시 6,286명, 경기도 47,814명, 강원도 11,197명, 충청북도 10,120명, 충청남도 13,656명, 전라북도 13,932명, 전라남도 17,045명, 경상북도 18,822명, 경상남도 17,351명, 제주도 4,292명이다. 이러한 청각장애인 인구를 볼 때 등록 청각장애인 수 10,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1관의 거점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4곳,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2곳, 그리고 그 외 광역시와 도에 각각 1곳씩 하여 총 25개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시도별로 청각장애인들의 거주 밀집지역과 접근용이성, 그리고 청각장애복지관과 청각장애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거점도서관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에 4개관,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포천시에 4개관을 설치한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목포시에 2개관, 경상북도: 포항시와 안동시에 2개관,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주시에 2개관을 설치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에 각각 1개관을 설치한다. 시도별 거점도서관 설치 지역은 그림(표)과 같다.



〈표 IV.1〉 시도별 거점도서관 설치 예상 지역

시도별	거점도서관 설치 지역	시도별	거점도서관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포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목포시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부산특별시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전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도	제주시

## 2. 청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표준 매뉴얼

### 가. 교육·문화프로그램 설계 흐름도



〈그림 IV.8〉 문화프로그램 설계 흐름도

※ 출처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나.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통(단계별) 매뉴얼

### □ 1단계: 요구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 ○ 활동 1. 이용자 요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한다.

청각장애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구조사 파악에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청각장애의 경우, 의사표현 방식을 초등학교 이후에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요구조사 방법 중 설문지나 델파이 기법 보다는 직접 혹은 비형식적인 인터뷰, 전문문헌 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 ○ 활동 2. 수집된 자료의 기록과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기술적인 자료 기록방법은 조사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면서 질적으로 기술해나가는 방법을 한다. 반면에 수량적인 기록방법은 수량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처리와 분석을 시도한다. 요구분석과정을 통해 최종 확인된 요구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초정보가 된다.

#### ○ 활동 3. 단계적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거친다.

우선순위 결정은 이화정(2006)에 의해 소개된 카파렐라(Caffarella, 1994)에 의해 소개된 우선순위 차트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이상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 2단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및 추진 여부 결정

#### ○ 활동 1. 청각장애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한다.

청각장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연령, 교육수준, 관심사, 독서력수준 등을 조사·분석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구분이나 생활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의 독서능력과 경험치의 편차가 심하므로 서비스 대상 농 커뮤니티 구성원의 관심사, 독서력 수준, 장애정도, 중복장애여부 등 문화 프로그램 대상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 활동 2. 타 도서관·복지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주제와 필요성을 명료하게 하고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타 도서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경우 진행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타 도서관이나 복지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

□ 3단계: 환경 분석

- 활동 1. 도서관의 외부환경을 평가한다(기회 및 위험요소의 분석).  
도서관의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현 사회, 국가, 세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교육의 정책적 변화 등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기회 및 위험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기회적인 요소인지,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결정하고 차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다.
- 활동 2. 도서관의 내부 상황을 분석한다(조직의 강점과 약점 분석).  
도서관 내부 환경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의 장단점 분석결과는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있다. 도서관 사서의 역량, 예산 범위, 도서관 시설 및 환경, 장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평가·분석한다.

□ 4단계: 자문위원회 구성

- 활동 1. 문화프로그램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한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위원회는 농 커뮤니티 관계자, 농학교 교사(현장전문가), 농 가족 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5단계: 프로그램 개발 단계 관리 및 역할 분담

- 활동 1. 문화프로그램 일정 계획표를 작성한다.  
프로그램별 일정 계획표를 작성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주요 프로그램을 세분화한 뒤, 월별로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표기한다.
- 활동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역할 분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다.
- 활동 3. 청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프로그램 개발은 담당사서만의 업무가 아닌 집단적이며 협동적인 일련의 과정이므로 지원체제 구축은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획 과정이다.

○ 활동 4. 세부 일정표를 만든다.

프로그램 개발 일정 계획표와 역할 분담 체크가 이루어지면,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부 일정 계획표를 작성하여 체크한다.

□ 5단계: 프로그램 목표 설정 및 주제 선정

○ 활동 1.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한다.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 이용자에게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목표설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한다.

○ 활동 2.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한다.

프로그램 주제(토픽)는 그 지역 사회의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정보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다.

□ 6단계: 프로그램 구성안 및 강의 계획

○ 활동 1. 프로그램 구성안(outlining the nuts and bolts)을 개발한다.

프로그램 기획자에게 이번 단계는 다양한 기반을 쌓는 단계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묘사하는 사전 예비단계로 수행될 것이다. 목표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적절한 프로그래밍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도서관의 정책을 명시하여 기획자는 프로그래밍 노력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 활동 2. 강의계획서를 작성한다.

○ 활동 3. 강의 방법을 결정한다.

강의 방법은 설정된 프로그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실제적인 부분이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 할 것인지 구조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계획을 위해 필요하다.

○ 활동 4. 프로그램 내용을 소량화한다.

일련의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다루게 될 주제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고 핵심주제 중심으로 전개한다.

○ 활동 5. 청각장애인의 요구조사를 참고하여 일상생활의 문제가 프로그램 내용의 주제가 되도록 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프로그램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 활동 6. 다양한 교수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

프로그램 내용과 주제가 선정되고 나면 적절한 학습방법을 결정한다. 학습 방법으로는 강의법, 토론, 워크샵, 조사, 영화상영 등이 있다. 도서관의 다양한 웹 콘텐츠, 멀티미디어 정보원 등을 활용할 경우 자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활동 7. 활동을 수반하는 교수방법을 선택한다.

청각장애인들은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참여자나 이용자들의 자기주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견학, 체험학습, 캠프, 탐방 등의 활동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활동 8.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

좋은 강사가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므로 강사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지역 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의 목록을 작성 관리한다면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7단계: 프로그램 예산 계획 수립

○ 활동 1. 적정예산을 수립한다.

프로그램 예산 선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 예산은 우선 전체 예산 과 맞아야 한다. 또한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진행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활동 2.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한다. : 기금확보(예산) 및 지원형태(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기금과 현물 기부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발전(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위해 명확한 계획을 개발하라 특정한 요구를 반영할 예산을 설계한다.

□ 8단계 마케팅 실행

○ 활동 1. 많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확실한 홍보와 광고 전략을 세운다.

모든 홍보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요일, 날짜, 시간, 프로그램 소요 시간, 비용, 참여자의 교육정도, 커뮤니케이션 방법, 독서력 수준, 생활 나이 수준 등의 정보를 입수한다. 저자나 강사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에 사용할 사진을 준비한다.

- 활동 2. 이용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접근한다.

청각장애인은 TV를 많이 보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도서관 홈페이지 배너 등을 이용하거나 농 커뮤니티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한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말로 전하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도서관 친구들이나 지역 관련 기관, 농 기관이나 단체에 전화 혹은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9단계 프로그램 유형, 실행 및 운영

- 활동 1. 적절한 프로그램 유형을 선택한다.

- 문화강좌
- 문화행사
- 독서교육 및 독서활동
- 교육프로그램

- 활동 2. 좋은 문화강좌 강사와 수화통역사를 섭외한다.

진행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지역 사회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 풀과 수화통역사 풀을 활용해 강의에 적합한 강사후보와 수화통역사의 섭외가 이루어지면, 선정된 강사와 수화통역사에게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개와 강의 의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요구사항,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등을 협의한다.

- 활동 3.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한다.

섭외한 강사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강의자료 준비시 유의할 점, 수화통역 과정에 대한 시간분배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 활동 4. 문화프로그램 장소를 선정한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장소와 관련된 체크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고 참여자의 적정인원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다.

#### □ 10단계 프로그램 평가

- 활동 1. 평가계획을 세운다.

❖ 피드백 : 평가 과정 - 어느 프로그램이 최고인가?

프로그램 평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평가 결과는 미래의 프로그램에 대해 성공적인 제작과 계획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프로그램 평가에는 참여자 평가와 직원, 관계자 평가가 있다.

❖ 참여자 평가

참여자 평가 형식은 간결하면서 미래 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바람직한 형식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쉽게 순위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한다.

❖ 직원, 관계자 평가

평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 진행한 직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계획자가 예산, 참여, 홍보 그리고 직원 책임시간 등의 면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 참여자 평가결과와 출석상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끝마치면 바로 프로그램의 평가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 활동 2. 평가목적에 맞는 평가지를 제작한다.

○ 활동 3. 프로그램 실패의 원인을 진단한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도 불만 사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할 수 없다. 실패의 원인이나 불만사항을 분석하여 다음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한다.

□ 11단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및 개선안

○ 활동 1. 관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한다.

○ 활동 2. 결과보고서를 프로그램 개선사항에 반영한다.

**다. 독서프로그램별 상세운영 매뉴얼**

현재까지 국내외 청각장애 독서지도 관련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12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은 청인 초등학

교 4학년 수준이며 10%만이 중학교 2학년과 동등한 독서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독서능력의 발달 정도도 건청아동보다 1/3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최영주 1990; 김미경 2002; 박정희 2002).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별 읽기 능력의 편차도 매우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 대상의 독서수준과 장애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 유아 스토리텔링 매뉴얼

가) 도입단계 : 선생님과 친해지기

####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셸 실버스타인 저. 이재명 옮김. 시공주니어, 2000.

#### (1) 읽기의 특징

##### ○ 풍부한 표정과 몸짓 사용하기

약간 높은 톤, 감탄사 및 소품을 이용하여 주의 환기(예: “ 어! 여기 사과가 있네!”), 너무 느리지 않은 속도, 잠깐 멈추었다 읽기, 높낮이 및 굵기에 변화주기 등을 사용한다.

##### ○ 그림에 대해 부연설명하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가며 읽는다. 그림 읽기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그림에 대한 관찰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 ○ 책의 내용에 참여시키기

청각장애 유아의 대부분은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으나 듣기와 말하기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수화교육을 받지 못하여 완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책을 읽는 중간 중간 어린이들이 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눈을 맞추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OO야 이 사과를 누구에게 줄까?” 등의 질문을 하여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하여 책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책 소개

<줄거리>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 스토리텔링

⌘ 활동자료 : 그림책, 사과,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

❶ 책표지 혹은 책의 그림을 스캔하여 스크린에 크게 보여주며 책의 내용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 이 빨간 과일이름이 뭘까?

- 어? 사과네! 사과를 들고 있는 이 소년은 누굴까? 소년 곁에 나무도 있네? 정말 시원한 그늘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나무구나! 이 소년과 나무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림 III.9>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도입

② 준비한 사과를 스크린 나무에 열매로 보여주고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림 III.10> 이야기 전개



<그림 III. 11> 이야기에 집중시키기

③ 독후 활동

⌘ 활동목표

- 친구들과 나눔에 대하여 배운다.
- 자신의 나무와 사과를 그려 친구의 나무에 붙여준다.

⌘ 활동자료

- 도화지, 크레용, 색연필, 가위, 풀, 사과

⌘ 활동방법

- 자신만의 나무를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사과를 그린 후 오려서 친구의 나무에 붙여준다.
- 좋아하는 친구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준다.



<그림 III.12> 독후활동 : 작품 전시

④ 마무리

-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책에서 가리켜 보세요.
- 사과와 관련된 책을 책꽂이에서 가져와 보세요.
- 친구와 사과를 나누어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과를 주었던 친구를 다시 한 번 안아주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책 (주제 : 나눔)

- 나누면 행복해요. 엘렌 사빈 저, 그림.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레이프 크리스티안손 지음.
- 내 사랑 사과나무. 구유선 지음.

☞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

- 나무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생각한다.
-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독후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알 수 있다.

나) 의성어·의태어 익히기



콩콩이와 쿵쿵이. 이형진 저. 국민서관, 1999.

(1) 읽기의 특징

○ 풍부한 표정과 몸짓 사용하기

작은 소리는 작은 몸짓과 표정으로 큰 소리는 큰 몸짓과 표정으로 읽어 주어 표정과 몸짓으로 어휘의 느낌을 표현한다.

○ 어휘에 대해 부연설명하기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므로 큰 몸짓과 작은 몸짓을 곁들여 가며 읽는다. 책을 읽으며 아이들과 눈 맞추고 애정 어린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정서안정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 책의 내용에 참여시키기

스토리텔링 후 이야기 내용과 연결된 독후활동을 진행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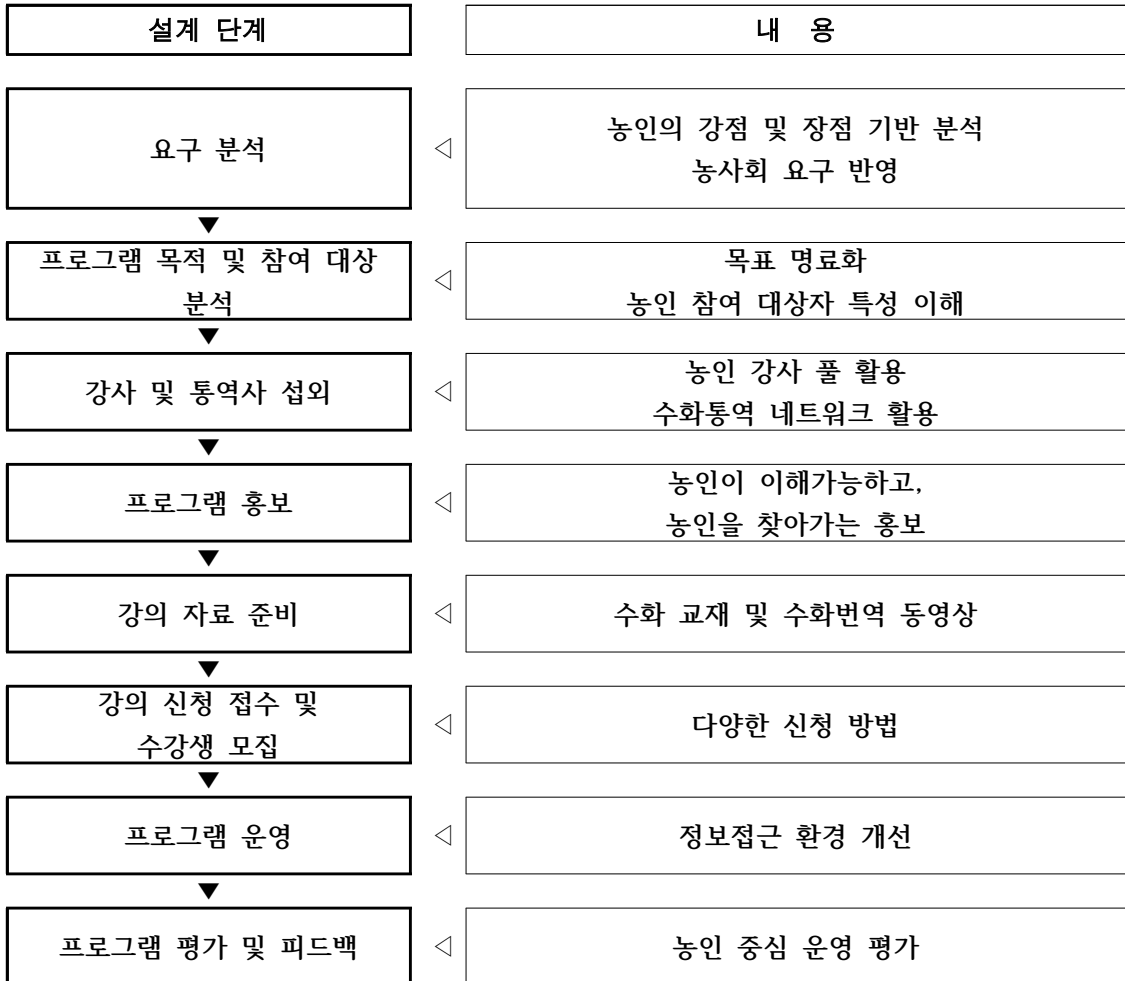
○ 책 소개

<줄거리>

하나, 혹은 몇 개의 낱말에서 발전하여 문장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말놀이 구조를 담은 유아 그림동화책. '콩콩아, 목욕하자.' '싫어, 싫어.' 등의 의성어, 의태어 같은 꾸밈말을 다양하게 실어 아이들이 문장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 3. 청각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매뉴얼

#### 가. 청각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설계 흐름도



#### 나.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1) 요구분석

-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통합형 프로그램이나 건청인들을 위한 일반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달리 청각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현재 상태(What it is)와 바람직한 상태(What should be)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

로그램 개발사서(기획자)가 일반 교육·문화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기 보다는 청각장애인들이 관심 있어 하고, 어떤 부분을 담당해하고, 어떤 내용의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개발사서는 가능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수화 등)를 배우고, 청각장애인의 삶과 문화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 혹은 그들의 공동체(농학교나 농인 교회, 농인 클럽 등)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삶과 문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원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 농인 공동체 혹은 청각장애인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한 적이 없는 경우, 농아인협회나 수화통역센터, 농인 교회, 농인 관련 복지기관 등에 종사하는 농인이나 청인 등의 자문이나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요구를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프로그램 개발 담당 사서가 청각장애인과 그들의 공동체와 평소 네트워크를 형성,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 2) 프로그램 목표 및 참여 대상 분석

- 요구 조사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명료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 설정을 위해 기초가 되는 요구에는 어떤 기준에 비추어 비교한 결과로 발생한 요구, 농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근거한 요구, 농인 관련 주변인이나 농인 본인이 바라는 요구, 어떤 농인들의 독특한 성향이나 바람에 의한 요구, 농인들의 2년 후 혹은 10년 후의 미래 세계에 기초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요구들에 기초하는 것이 특정 강사나 교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구 중심 접근)보다는 목표 중심 접근 프로그램이 일관성과 효과 검증, 수정 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목표는 프로그램 참여 후의 바라는 변화이다. 추상적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행동적 목표를 설정,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는 조건, 성취 행동, 도달 기준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 다음과 같이 목표를 명료화할 수 있다.

- 목표를 써 본다.

목표 성취 여부를 알려주는 농인의 행동들을 나열한다.

- 추상적 목표가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진술을 적어본다.

농인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이게 될 행동들이나 수행들을 목표 진술에 포함시킨다. 이 행동 진술들이 목표 달성의 증거물이 된다.

- 목표 진술을 평가한다.

농인이 그 성취 행동을 수행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자문한다. 각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혹은 제대로 시범을 보였는지 시물레이션을 해본다.

- 사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누구이며, 예상 참여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청각장애인의 사용 언어, 언어 능력이나 학습 경험, 사회 경험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대상 집단 특성을 이해한 다음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범주에는 농인과 난청인, 구화 사용 농인, 수화 사용 농인, 청인 마인드를 가진 농인, 청인과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농인 등 다양한 특성 차이를 가지고 있다.

- 프로그램 설계 전에 반드시 대상 농인 집단에 속한 농인을 만나거나 농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농인 통역사나 청인 수화통역사, 농학교 교사, 목사 등)를 만나 대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농인 이용자에 대한 이해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와 개설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농인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3) 강사 섭외 및 통역사 섭외

- 청각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되도록 농인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농인 강사는 농인들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농인 수강생 모집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수화 사용 농인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는 농인 강사 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농아인협회나 농아인복지관, 종교기관 등을 통해 섭외 가능한 농인 강사들 명단을 수시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농인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수화교육을 포함해서 강사 경력을 쌓고 있는 농인들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농인 강사 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인 강사 섭외가 어려운 경우, 농인 대상 강의 경험이 풍부하거나 농인 사회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농인 전문 청인 강사를 섭외한다. 평소 농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내지 평판을 파악하고, 농인이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추천을 받는 것이 좋다. 농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병리학적인 인식도 문제나 농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빼놓고는 청인과 똑같다는 낭만적, 온정주의적, 비현실적 평등 의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인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농인의 장점과 강점에 기초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 농인 전문 청인 강사도 섭외하기 어려운 경우, 청인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되, 강사의 강의를 농인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전달할 수 있는 양질의 청인통역사를 함께 프로그램에 투입해야 한다.

1997년 이후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많은 청인 통역사들이 양성되고 있다.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통역사 섭외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적이다. 통역사의 통역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와 농인들의 만족도, 참여율이 좌우된다.

- 통역사 섭외를 위해서는 지역 농아인협회 또는 수화통역센터, 농인 교회, 농인 사회 구성원들의 추천 받아 수화통역사와 접촉한 후 통역 내용과 통역 비용, 시간, 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통역은 내용과 대상자에 따라 그 질이 크게 달라진다.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나 통역 경험이 풍부한 통역사를 섭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 분야의 지식이나 통역 경험이 풍부한 통역사를 섭외하기 힘든 경우, 통역사가 통역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강의 교재나 유인물, 교안 등을 미리 제공하고, 강사와 통역사가 만나 강의내용을 공유하며, 강의를 어떻게 통역할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강의 시간 별도로 매회 30분-1시간 정도를 통역 준비를 위한 시간을 통역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역비용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 4) 프로그램 홍보

- 농인들이나 농인 관련 단체에 홍보할 때는 한글뿐만 아니라 수화로도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 배너나 포스터, 공문 등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수화동영상을 탑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화동영상을 탑재하여 수화 사용 농인들이 수화로도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들의 언어로도 프로그램이 소개되는 것을 보았을 때, 농인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QR코드를 이용하여 관련 사이트 및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배너나 포스터, 홍보 공문 등에 QR 코드를 삽입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는 수화 동영상을 도서관 서버나 Youtube 등에 올려 QR 코드에 링크시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수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 일반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도서관 배너 홍보나 포스트 부착만으로 수강생 모집 홍보를 하는 것과는 달리 농인 관련 사이트나 농인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를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

농인 유관 기관 등에 공문이나 포스터 발송도 필요하지만, 농인들 중에는 도서관이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곳이며 이용 경험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프로그램명이나 내용의 우수성이 주는 매력보다는 프로그램 담당 강사(농인이든 청인이든)나 사서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농인 사서나 강사와의 친분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도서관 서비스에 차츰 익숙해지거나 맛 들일 수 있도록 한다.

# 농인을 위한 서울도서관 환경조성



## 수화번역도서 확충

일반 인쇄 도서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복지대학교 제작 수화번역도서 배치 및 장기 대여를 통해 한국어-수화 혼용 도서 (청각장애인 대체도서, Two-Way Book for theDeaf) 시범 제공

## IT기술을 활용한 수화서비스 진행



### -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격통역을 통해 사서와 의사소통하여 필요한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울도서관 안내 데스크 혹은 대출 데스크에서 이용 가능)

### - 도서관이용안내 수화콘텐츠 탑재

도서관 이용법(회원증 만들기, 대출 및 반납, 전자자료 이용방법, 시설안내 등)과 공간 안내도 수화로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수화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



## 농인 통역사

도서관 이용 및 접근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에 농인 통역사

2013년 9월부터 12월초까지  
화 ~ 금 오전 10 : 00 - 19 : 00



## 문의

02 2133 0263(전화)  
070 7947 8883(영상전화)

## [그림 IV.13] 홍보 포스터 예

※ 포털사이트 어플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수화동영상을 볼 수 있음

## 5) 강의 자료의 준비

- 농인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강의 내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글 교재나 자료뿐만 아니라 수화 교재 혹은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강사나 통역사가 강의 중에 수화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도 하겠지만,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청인 수강생들이 강좌를 수강하듯이 사전 및 사후에 연습/복습이 가능하도록 수화 교재도 사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한글 교재뿐만 아니라 수화교재를 제공하는 것은 농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인들이라 농인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고,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로도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제공될 때 농인들은 프로그램과 강사, 담당 사서,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접고 보다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 나가 여행하거나 생활할 때 영어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전시물들이 설명된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에서 한국어 설명자막이나 해설 음성을 들었을 때와 같이 농인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존중되고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가 제공될 때 보다 높은 프로그램 참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 수화 교재 및 자료의 준비는 강의 진행 중에 준비할 수도 있으나, 강의 준비 단계나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시기에 수화번역사를 섭외하여 제작한다.

음성강의 중의 동시통역과 달리, 이는 청인 통역사뿐만 아니라 농인 통역사가 수화번역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시통역으로 인해 많은 정보들이 생략/왜곡 전달되는 경우도 많은데(수화통역사의 능력에 따라 정보 전달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인/청인 통역사가 한국어 텍스트를 수화로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한 후 촬영하여 교재에 삽입하면 농인들의 텍스트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제작된 수화번역도서(한국어-수화 혼용도서, Two-Way Book for the Korean Deaf)는 도서관에 상시 배치하여 농인들이 수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 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농인 교회, 농인 복지관 등의 전문인력의 도움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

수화번역 비용과 전문수화번역사 섭외의 어려움, 제작 시간, 수화 촬영 스튜디오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수화 교재 제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 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농인 교회, 농인 복지관 등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 교재만이라도 수화번역도서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인 사서나 농인 통역사를 상시 혹은 시간제 계약하여 프로그램 강사와 농인 관련 업무를 맡길 뿐만 아니라 수화번역도서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14] 한국어-수화 혼용교재 예

#### 6) 강좌 신청 접수 및 수강생 모집

- 수강 신청은 음성 전화뿐만 아니라 농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영상전화기 번호, 핸드폰 문자 신청, SNS 신청을 위한 카톡 등의 아이디,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홍보 배너나 포스터, 공문 등에 병기하여야 한다.
- 강의 문의가 왔을 때는 관련 내용을 그 즉시 답하여야 하며, 답변 내용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약속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의사소통 제약과 정보 빈곤을 넘어 박탈 속에서 살아왔던 농인들이 신청이나 질의를 하고 답변이 없는 경우, 답변을 기다리기 보다는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참여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고 작은 서비스인 듯하지만, 즉시 답변과 답변 예고 등의 서비스가

농인들에게 진정으로 농인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도서관 이용을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수화동영상으로 SNS 아이디나 이메일, 게시판 글, 그리고 의견 등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화 동영상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나 ID, 메일 주소도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7)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자 바람직하지만 강사와 수강생 여건에 따라 도서관 이외의 장소(농학교 도서관이나 교실, 농인 복지관, 농인 양로원 휴게실 등)에서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찾아가는 도서관처럼 찾아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농인들이 많이 보이는 장소나 기관 등에서 운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농인들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하고 점차 도서관과 도서관 콘텐츠 활용에 맞들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통상적인 도서관 방문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도서관에 오는 경우, 도서관 제반 환경이 농인들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오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서관 사서와 의사소통할 수 없고,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언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글 자료들만 있는 도서관에는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에 끝나고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도서관에서 수화 낭독서비스도 이용하고, 도서관 이용 수화 동영상도 시청하고, 수화 가능한 사서나 통역사(농인/청인)을 만나 대화하고, 도서관을 통해 자료와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자료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농인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농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도서관에 바라는 내용을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한 농인 이용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정리한 것들이다.

###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책 읽는 데 흥미가 없다.
-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놀러가는 것이 더 좋다.
- 만화나 기타 재미있는 잡지가 별로 없다.
- 한국어 독해가 어렵다.
- 분위기가 딱딱해서 싫다.
- 관심이 없어서(책에 흥미가 없어서, 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해서)
- 홍보 부족 (도서관 홍보, 책과 지식에 관한 인식개선,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홍보 등)
- 수화는 유창하지만 문해 수준이 낮은 농인들
- 지방에 거주하는 농인인 경우, 서울의 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오기 힘들고, 경기도 및 지방 도서관은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어서
- 본질적으로는 농교육의 문제 (어릴 적부터 수화로 책을 읽어주는 어른들이 없었음)

### <청각장애인의 이용 확대를 위해 도서관에 필요한 변화>

- 재미있는 책이나 잡지, 만화가 많으면 좋겠다.
- 수화를 하는 사서가 있으면 좋겠다.
- 수화해설사가 있으면 좋겠다(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 보면 수화로 알려주는 것)
- 최신 한국영화를 자막으로 처리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 청각장애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면 좋겠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자가 있으면 좋겠다(진로 및 개인 상담)
- 도서관에 대한 홍보(유익한 점, 위치, 행사.....)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모임 공간, 영화상영관.....)
-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인 혹은 청인 사서(통역사) 근무
- 서울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접했던 수화낭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 현재 농교육의 부재 및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또한 만일 지속적으로 서비스될 경우 시각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원탁으로 배치한 공간이 필요하다.
- 도서관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라도 지속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수화통역사가 직원으로 상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략적인 도서관 안내 사항을 모니터 등을 통해 수화로 확인 할 수 있으면 유용할 듯하다.
- 모바일 서비스 등에 농인을 위해 수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텍스트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 농인 사서(통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에 관한 안내를 위해서라도 농인 사서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사서 한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생겼다. 문자의 접근에 불편함을 느끼는 농인에게도 농인 사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농인이 사용하기에 편한 방음벽이 설치된 공간이 필요하다. 몇몇 농인의 경우 무의식중에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청인들이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눈치 안보며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
- 문맹농인 및 문장력이 약한 농인들을 위해 수화문자 강좌와 독서 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한글도서를 수화문자로 번역하거나 수화영상도서로 제작하는 것이 확대되길 바란다.
-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몰라서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그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형식적인 프로그램도 많았다. 사소한 부분일 지라도 (화장실, 도서공간, 대출 방법 등) 농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다르다.
- 숙련된 수화통역사가 항상 있었으면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것을 전달하는 통역사가 숙련된 수화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통역사의 수화 실력이 낮을 경우 의미가 없어진다.
-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수화통역사의 실력 문제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이번에 받은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것은 현실에 필요한 욕구를 바로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

었고(수화낭독서비스, 수화문자 강좌 등) 이것을 전달하는 수화통역사의 수화실력이 월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청각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성공은 프로그램만큼이나 도서관 환경과 정보접근 서비스 및 전문인력(농인 사서 혹은 통역사, 청인 통역사, 속기사 등)에 달려 있다. 미국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도서관에 영어와 함께 한국어도 가능한 교포나 이중언어 가능 사서나 직원을 고용하여 배치한다면 보다 많은 한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 지식을 쌓고 미국 사회에 통합하는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8)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 프로그램 운영 끝난 후에 강좌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농인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한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서답형으로 강의 만족도와 좋은 점, 문제점, 개선점 등을 자유롭게 적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농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고 열심히 수업하고 통역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지만 도서관을 다시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인들과 자주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서(농인이든 청인이든)이나 통역사가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수화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든 과정을 거쳐 소수의 신청자를 위해 청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쓴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농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야 또 오고 싶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 농인들과 더디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면서 프로그램과 도서관에 관한 의견을 묻고 듣는 의견 청취를 가능한 자주 시행한다.

수화를 사용하면서 한글 문해 수준이 낮은 농인에게 한글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영어 공포증과 콤플렉스에 시달리듯이, 자신들의 언어로 의견을 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프로그램과 도서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진솔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4.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모형 및 매뉴얼

##### 가.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설계 흐름도

###### 1)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운영 단계	내 용
수화통역사 섭외	1년 단위로 원격수화 통역 계약 통역시간 및 통역 조건 협의
기가 구입 및 배치	태플릿PC 2대 이상 구입 안내 또는 대출 데스크 배치
기기 사용 교육 및 연습	수화통역사 및 사서, 자원봉사 대상 영상 통화 방법 및 어플 사용법, 기기 충전 방법 등
기기 및 서비스 매뉴얼 제작 및 데스크 배치	기기 사용법 및 농인 요청시 서비스 제공 방법
안내 데스크에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공지	안내 표시판 부착 도서관 홍보
서비스 담당자 예행 연습	안내 테스트 담당 사서, 자원봉사 대상 실제 농인 섭외 후 상황 연습
기기 점검	매일 아침 충전 및 작동 여부 확인

2) 수화 대면낭독서비스

운영 단계	내 용
수화 통역사 섭외	농인 및 청인 통역사 섭외 통역 가능 시간 및 비용 협의
수화 대면낭독 가능 시간 및 통역사 정보 공지	배너 및 포스터 홍보 수화대면 낭독서비스 전용 게시판 마련
대면낭독실 확보	1-4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책상 칠판 및 인터넷, 노트북, 독서대 등
신청 접수 및 조정	요일별 시간별 신청 접수 겹치는 경우 조정 읽고 싶은 책의 종류와 수준 사전 조사
대면낭독자 배정	책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자원봉사자, 농인 및 청인 통역사, 전문수화통역사 배정
대면낭독자 관리	농인 이용자 만족도 및 이해도 등에 따라 수화 대면낭독자 재배정 등 관리
농인 이용자 관리	진지한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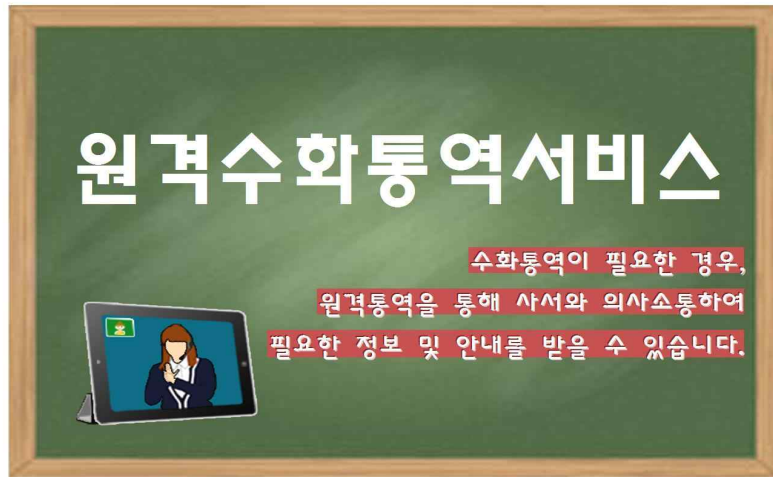
3) 도서관 이용 수화안내 콘텐츠 제공

운영 단계	내용
스크립트 결정	공간별, 이용방법별 수화번역 내용 결정
보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수화 안내와 함께 제시한 도서관 현장 사진이나 이용 동영상 촬영
수화번역 동영상 제작 의뢰	지역 농아인협회 또는 수화통역센터, 복지관 등
수화동영상 탑재	도서관 서버 혹은 유튜브 등에 탑재 URL 주소 확정
QR 코드 생성 및 도서관 병기	도서관 안내표시판 등에 QR 코드 병기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링크	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키오스크 화면에서 한글과 함께 수화 동영상 링크
수화 안내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등으로 QR코드 인식하여 수화 안내 동영상 시청 홈페이지에서 수화동영상 클릭하여 시청

## 나.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운영 매뉴얼

### 1) 원격수화통역서비스

- 지역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농인 교회, 농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수화통역사를 섭외한다.
- 수화통역사와는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계약하되,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시간 단위로 계약하고 실제 통역 시간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다.
- 기존 영상전화기나 노트북 등의 웹캠 기능, 핸드폰의 영상 통화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화면 크기가 작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최근 나오고 있는 7인치 이상의 태블릿PC를 활용하면 화면도 크고, 이동이 용이하여 도서관에서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가 다른 일상 업무를 하거나 이동 중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최근 LTE 서비스 이후 3G 통신을 통한 영상통화보다 영상 크기나 화질, 끊김 현상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 양쪽 모두 Wifi에 접속된 경우라면 좋겠지만, 수화통역사 등이 Wifi에 접속할 수 없는 위치라면 LTE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상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LTE요금제를 정액제로 정한다.
- 태블릿PC를 2대 이상 구입하여 도서관과 2명 이상의 통역사가 소지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안내 및 대출 데스크 담당 사서 및 직원, 자원봉사자가 요일이나 시간마다 바뀌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과 사전 연습을 하여야 한다. 실제 농인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기기는 매일 아침 또는 1주일에 한 번 기기 충전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농인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서관 배너와 포스터 홍보 등을 통해 도서관에서 원격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내 및 대출 데스크에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표지를 하고, 간단한 이용 방법도 공지한다.



[그림 IV.15] 원격수화통역서비스 표시 예

- 원격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 안내 및 이용 관련 설명은 수화통역사가 아니라 사서가 하는 것이므로, 농인 방문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 등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마이크 겸용 이어폰을 태블릿PC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노트10.1 등)를 이용한 원격수화통역서비스는 농인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고정된 장치가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안내데스크 한 곳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부서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단절과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농인이 원하는 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고 재차 질문을 하거나 반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내데스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들고 가서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커다란 장점이다.
- 농인이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장점이다. 농인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것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농인 이용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정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도 농인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 도서관에 농인이 가더라도 당연히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원격수화통역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농인 이용자가 초기에는 원격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지속적인 홍보와 장기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 사서나,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원격수화통역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농인 이용자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어폰을 사용하지도 않고 갖고 다니지도 않지만, 도서관 직원은 수화통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수화통역사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영상통화를 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아 화면을 농인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향하는 등 미숙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교육 및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나 직원들이 농인 이용자가 방문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농인을 접해보지 않은 청인들(도서관 사서, 직원, 자원봉사자 등)은 아무래도 제3자(멀리 있는 수화통역사)를 통해서 대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점에 익숙하지 않으며 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인 이용자를 대할 때 유난을 떨거나 어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수화 대면낭독서비스

- 수화대면낭독서비스의 성패는 수화통역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얼마나 수준 높은 농인/청인 통역사를 섭외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 수화대면낭독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 원격수화통역서비스와 달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시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수화낭독을 해줄 수 있는 통역사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통역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적절한 통역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수화를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화 기초반 및 중급반 수료생 등의 자원봉사

자를 활용하여 수화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의 수화 및 통역 능력 한계로 농인들이 만족도가 낮거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되, 이들의 능력에 맞는 책을 낭독해야할 때만 서비스를 맡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 책들은 자원봉사자 수준에서는 통역할 수 없을 책들일 가능성이 높다.

- 전문수화통역사를 섭외한 경우, 대학생이나 읽기 어려운 책들을 읽고자 하는 농인 이용자에게 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농인 이용자로부터 읽고자 하는 책을 미리 신청 받아 책의 수준, 농인의 대면낭독 요청 이유에 따라 전문수화통역사(A급), 일반 수화통역사,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연결하여야 한다.
- 대면낭독실은 개방된 공간에서도 가능하나, 되도록 소음 차단이 되고,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들이라 하여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살고 공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다른 이용자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화로 책을 읽고, 설명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화를 배운 사람들이나 수화통역사들이 통역장면이나 실제 상황에서 수화(농인의 언어)를 모두 잘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 기간이나 활동 경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화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받은 농인의 의견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만족도가 낮거나 심지어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거부당한 통역사는 교체하거나 질 높은 낭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낭독서비스는 방송통역이나 무대통역과 달리 책이라는 텍스트를 농인과 공유한 채로 수화통역하는 것이라 수화통역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역할 맡기를 거절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 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농인 교회, 수화통역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향상하여 수화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수화통역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통역비용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문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수화로 설명해주어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농인 이용자들의 반응은 수화대면낭독서비스가 도서관에서 농인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농인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서울 도서관의 경우, 수화낭독실(수화영상실)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고, 대형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찾아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시범운영에 참가한 농인이용자들은 “관련 자료(이미지나 동영상, 문자텍스트 등)를 통해 책에서 나온 용어나 개념,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 수화만으로 전달하기에 어려운 ‘춘수와 호칭’과 같은 것을 수화통역 할 때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등의 대안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대상이 한 명일 때와는 달리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한 번에 모두에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데,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보완한다.
- 수화대면낭독서비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인 이용자와 수화통역사가 사용하는 수화 단어나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어서 오해가 발생하거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
- 회차가 진행될수록 농인 이용자와 수화통역사 간에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농인 이용자가 창피하다고 생각되거나 부끄러워서 물어보기 어려워했던 것들(잘 모르는 단어를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대체로 농인들은 한글을 읽는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늘 조심하곤 한다. 하지만 관계가 친해지면 이러한 벽들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오기 시작한다. 이럴 때 수화통역사는 놀라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농인 이용자는 다시 벽을 쌓게 되고 물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농인 대학생이 관련서적을 가지고 와서 수화대면낭독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수화통역사가

전자공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경우 수화통역을 해 줄 수 없다. 농인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별로 수화통역사를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화통역사가 사전에 수화대면낭독할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도서관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대면낭독서비스를 미리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시간에 농인이용자가 왔을 때 비로소 어떤 내용을 낭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수화통역사가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한다면 농인 이용자에게도 질 좋은 수화번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농인이용자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다면 보다 더 적절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수화통역사가 사용하는 수화와 농인이용자가 사용하는 수화가 표현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다르거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통역사는 농인이용자에게 낭독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낭독해야 할 내용에 나오는 단어나 용어에 대한 수화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화낭독서비스 사례>

수화통역사가 알고 있는 ‘주장하다’라는 수화를 농인 이용자는 ‘험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낭독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내용에 나오는 용어나 단어들에 대한 수화를 점검하기로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수화는 이것이고 이렇게 사용하며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데 농인이용자는 같게 사용하는지, 다르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낭독서비스를 진행할 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화통역사와 농인이용자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의미전달에 있어 오해나 잘못 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수화대면낭독서비스가 농인이용자에게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역량 있는(한국어에 대한 풍부한 이해능력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서관에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하는 농인이용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 수화대면낭독서비스가 낮에만 제공되는 것은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농인들에게는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저녁시간 이후에도 제공하는 것이 농인 이용자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도서관 이용 수화안내 콘텐츠 제공

- 수화 안내 동영상으로 번역할 도서관 공간별 안내 및 이용방법 안내 스크립트는 홈페이지나 키오스크의 경우 동영상을 불러오는데 속도나 용량 제약이 적어 문제가 없으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동영상을 불러오는 경우, 속도 문제 등으로 내용이 너무 많을 경우 제약이 발생한다. 2-3 문장 정도로 설명하거나 최대 A4 반 페이지를 넘어서는 안된다.
- 수화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 사진, 이용 동영상을 수화와 함께 제시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함께 촬영하여 수화와 함께 제시하면 농인들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현장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수화를 제시할 때는 공중과 등에서 우측 하단에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서 제시하듯이 해서는 안되며, 수화통역사의 모습도 충분히 크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IV.16] 수화 안내 동영상 크기 비교

## V. 결론

### 1. 요약

본 과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의 의미는 도서관 이용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본 과제에서 보편성 측면에서 도서관에서 통상 실시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해보았으며, 특수성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청인들과는 다른 수지언어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며, 둘째,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필요성과 도서관 이용 능력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고, 셋째, 청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낮으며, 넷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악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정보서비스 제공 환경이 존재하고, 다섯째, 외국에서는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섯째, 장애인에게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곱째,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청각장애 친화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도서관 이용을 할 의사가 있음을 개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과 청각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실험적 연계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환경 구축 방안 도출

둘째,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 도출

셋째,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에 적합한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 탐색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 도출

넷째,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특성에 적합한 청각장애 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도출

시범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중 청각장애인의 반응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반인 대상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한다. 넷째, 청각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다섯째, 모든 연구의 진행은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내용은 크게 4+1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도서관 내(4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첫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이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구축에서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가지의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이다. 셋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넷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도서관 내 전문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청각장애인의 정보전달 수단과 관련되어,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수화문자쓰기 강좌, 원격통역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었다. 이 외에 도서관 외(1영역) 프로그램으로 청각장애 커뮤니티와의 연계 방안 연구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시범 운영은 ‘기반조성’-‘프로그램 개발’-‘운영환경구축’-‘운영’-‘평가’-‘모델개발’의 7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 2과제, 장기프로그램 4과제를 운영하였다. 청각장애 특화프로그램은 「수화문자쓰기」 1과제를 진행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스마트폰 기반 도서관 이용법 수화안내 콘텐츠 제공」, 「수화번역도서 배치」 등 4과제를 수행했다.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와 장단점을 논하기보다는 본 과제의 의도를 기초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요약하면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의 고객이 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국립장애인도서관, 2012)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실제 시범운영에 참가한 청각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점점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 참여를 하였다. 특히 「수화대면낭독서비스」와 같은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모르는 부분만 질문할 수 있어서 자세히 배운 점이 좋았음”, “수화 낭독자가 설명해 주는 거 최고임. 설명해 주고 배경지식으로, 꼼꼼하게 해 주는 거 장점임.”, “지문에서 사회적 배경 지식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낭독 서비스 점 설명까지 해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됨. 농인 환경에서 자라온 저는 일반화된 지문에서 읽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낭독 서비스 덕에 공부도 더 수월해짐”

결국 청각장애인에게도 수화라는 한국어 체계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한국어 문해능력 상의 문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도서관도 청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청각장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얻어진 결과는 IV.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및 지침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거점도서관의 환경 기준이 어떠해야 함을 제시한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청각장애인에게 유익하면서 유인가가 높은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침, 청각장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침,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지침의 4가지가 제시되었다. 여기 제시된 지침은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실제적 지침들이다. 아울러 부록에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보청기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보조공학적인 실물을 제공하였으며, 농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아협회, 농아인 관련 기관, 농학교, 소보사와 같은 농단체들의 주소록을 부록에 제공하였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IV.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및 지침을 참고로 한다.

## 2. 정책 제언

현재 장애문제는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유럽에서 시작된 정상화(Normalization) 운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 장애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이론적 담론을 기초로 통합 정책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념적, 이론적 담론이 통합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조건적 통합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함에 있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실천가능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하였다.

서울도서관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시범운영을 통해 거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제언과 거점도서관 설치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 1) 거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제언

첫째,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담당자와 열람실이 별도 마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서울도서관은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청각장애를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함께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이 가능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운영의 아이디어가 전체 도서관 구성원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장애담당 사서와는 달리 다른 직원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임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정보서비스 환경 구축을 하는 데 많은 설명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QR코드를 이용한 수화동영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 환경 구축은 실제로 불가능하였다.

셋째,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청각장애 정도와 청각장애 특성, 그리고 문해능력에 따라 능력별 집단 편성이 필요하다.

청각장애는 정도와 장애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서프로그램 개발자와 반드시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청각장애인의 언어 양식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유인가가 매우 높다.

대표적으로 수화대면상담서비스와 같은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 책읽어주기는 읽기 능력 신장에 아주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양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 읽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던 청각장애인이 새롭게 책을 읽는 것에 흥미와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다섯째, 지도와 치료의 개념을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의 독서치료는 심리적 치료의 입장에서 독서지도는 문해능력 신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의 대상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지도와 치료의 성격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가능한 청각장애 전문가, 도서관 전문가,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분야의 인력이 소외되어서는 성공적인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서로 간에 이해와 소통은 청각장애 분야에서는 기술적, 심리적 의미가 아주 크다.

## 2) 청각장애 거점도서관 설립을 위한 제언

첫째, 정책적 조처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공공도서관 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합형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정착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반 공공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심리적, 문화적 태도의 문제로서, 청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어떤 재정적 지원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이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중간보고 때와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12년 연구와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지되는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일반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청각장애라는 특수성을 지닌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정책적 조처를 통해 청각장애인들도 도서관 이용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도서관과의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중에 서울도서관 직원들의 협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버거운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를 비롯한 직원들의 청각장애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각종 활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은 청각장애인 친화적 도서관이어야 한다. 친화적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직원들과 청각장애인 간에 우호적 정서가 고취되어야 한다. 수화를 비롯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함께 실제로 청각장애인들과 시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 중심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문화 제공의 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로 볼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의 장으로만 존재하기보다는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로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공공도서관에는 없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화대면상담서비스와 같은 청각장애인 특화정보서비스를 비롯하여, 청각장애인 상담실(※일반적인 상담실과는 달리 상담실과 민원실의 성격이 합쳐진 상담실), 청각장애인 여가문화 교실 등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거점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청각장애인의 의견 청취와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재인식은 ‘Deaf First’, ‘Now, Deaf’와 같은 운동으로 번져나가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Deaf 연대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각장애 전문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별도 설립을 할 때는 청각장애 계와의 진정성 있는 사전

협의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 전문도서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협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시혜적 내지 공급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청각장애 전문도서관 설립을 ‘통합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청인 중심 사회에서 청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데 자신들이 이용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각장애 전문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할 경우 “청각장애인 먼저”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언어는 문화를 본질로 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양하다.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곧 수화라는 등식은 오해이다. 물론 가장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 수화이며, 이것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가장 요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세부적으로 ‘농인’도 있고 ‘난청인’도 있다. 난청인들의 경우에는 구화 중심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언어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은 물리적 환경, 정보 게시 방법, 운영인력, 비치자료의 종류, 문화프로그램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좀 더 청각장애인 친화적 거점도서관 운영 내지는 설립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정보 게시 방법, 그리고 운영인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지체장애인들과는 달리 건물 구조상의 큰 장애요인은 없지만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시각적 사물 인식을 많이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청각을 통한 정보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서관 내에 집단 보청이 가능한 특별실들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즉 청각장애 친화적 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도서관의 소음과 빛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내의 시설과 소장 자료에 대해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수화동영상 안내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인력 측면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의 성공적 운영에 핵심 사항이다. 인력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

이다. 청각장애인 사서 혹은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도서관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청인통역사의 경우 농식 수화와 농문화에 익숙하면서, 농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인물을 직원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문화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은 청각장애인의 언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은 실행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육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프로그램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면 기본적인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의 단계와 원리는 보편적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되 청각장애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 및 평가를 실제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하게 구성한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전문정보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결국 청각장애인도 도서관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함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비치자료와 관련하여, 일반 공공도서관의 비치자료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삶과 연관된, 즉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농사회와 농문화로 대별되는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청인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정보의 종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청인들에게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상식적 정보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신생아 예방접종을 예로 들면, 청인 어머니는 출산을 하면서 의사로부터 너무도 쉽게 얻게 되는 정보를 청각장애인은 별도의 정책적 조치가 없으면 얻기가 어렵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이 청인 사회 속에서 생활해나가는 데 편리한 정보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만화는 매우 중요한 문화 향유물일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내지는 독서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도

서관에서 만화를 비치하고, 읽는다는 것이 무언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청각 장애인에게 유익한 자료비치가 되지 않는다면 청각장애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치자료의 성격 규정과 선정도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생활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성품으로서의 도서관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청각장애인들이 만들어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숙희(2009).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353-379.
- 강숙희(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97-123.
- 강창욱, 원성욱, 김호연, 이정자(2012).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국어원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사전』(개정판). 도서출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김미정 (2007).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웹기반 학습시스템 설계 및 구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하·최영주 (1990). 청각장애 학생의 독해력 분석(1990).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13(2), 5-26.
- 김수진 (2012). **교사와 부모를 위한 청각장애 아동 교육**. 서울: 학지사.
- 김승국(1983).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영욱 (2009). 청각장애유아의 인쇄물인식과 언어능력, 문해기술 및 가정문해환경. **특수교육학연구**, 44(3), 131-147.
- 김영욱·원성욱·김지숙·이윤선 (2006). 청각장애 아동의 은유 이해.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2), 257-272.
- 김철관(1996). 한국 고유 수화단어에서의 복합구성 특성. **《수화연구》** 창간호, 3~18.
- 김혜주, 안인지, 박미영, 이명희(2010).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17-241.
- 서영란 (2000). 연령과 청력 역치에 따른 청각장애 아동의 음운적 특성.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동일(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손은희·석동일 (2004).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9(2), 65-82.
- 송혜경·최성규 (2010). 균형있는 문해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9(3), 155-180.
- 엄미숙(1996).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동근, 윤수진(2009).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157-179.

- 오영자·지민제·김영태 (2000). 청각장애아동과 건청아동의 모음 및 과열음 산출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비교. **음성과학**, 7(2), 51-70.
- 원성옥·장은숙(2003). 한국복합수화의 조어 특성. **《재활복지연구》** 1권, 135~157.
- 원성옥·김경진·하길중 (2009). 농 학생의 은유문 어휘에 대한 의미 반응 연구. **특수교육연구**, 16(1), 247-271.
- 원성옥·이윤선 (2011). 작문분석을 통한 수화사용 농대학생의 어휘오류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49-68.
- 윤미선 (2004). 난청 아동의 말소리, 언어, 심리 및 행동 특징. **언어치료전문인을 위한 청각학**. 서울: 군자출판사.
- 이소현·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소희 (2009). 음성과 관련된 청각장애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이종열·석동일 (2008).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의 은유 이해능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17(3), 79-93.
- 이지영 (2000). 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아동의 자음지각 및 자음 산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숙·원성옥 (2005). 수화사용 농학생의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오류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2), 85-108.
- 조혜전, 정연경(2012).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2), 223-244.
- 조희은 (2006). 청각장애 아동의 다의어 이해와 유형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두례 (1997). 청각장애 학생의 음운변동특성.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규·성학기 (2003).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의 학년별 문자 이해력 비교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221-239.
- 한경근·이민식·이병혁 (2011). **중등특수교육 교수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국도서관협회도서관기준 작성위(2013).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특수교육연구회(2009). **최신 특수아동의 이해**. 서울: 양서원.
- 한국청각장애교육학회 편(2012). **청각장애아동 교육**, 서울: 양서원.
- 허명진·유광숙·최성규 (2004). 단어제시방법에 따른 중학부 청각장애학생의 수용 어휘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13(4), 205-220.

- Charles M. & Salter, P.E.(2002). Acoustics for Libraries. the Librarys Design Project[<http://www.librarydwsugn.org/>].
- Dagenais, P., & Critz-Corsby, P. (1992). Comparing tongue positioning by normal-hearing and hearing-impaired children during vowel produc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5-44.
- Hanson, V. (1985). Cognitive processes in reading: where deaf readers succeed and where they have difficulty. In D. S. Martin (Ed.), *Cognition, education, and deafness* (pp.108-110).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Lichtenstein, E. (1984). Deaf working memory processes and English language skills. In D. S. Martin (Ed.), *Cognition, education, and deafness* (pp.111-114).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Liddell, S., & Johnson, R.(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95~277.
- Malman, D.(2001). Lighting for Libraries. the Librarys Design Project [<http://www.librarydwsugn.org/>].
- Norton, M. J.(1992). Effective bibliographic instruction for deaf and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Library Trends, 41*(1), 118-150.
- Siedleki, Jr., Theodore, Votaw, Marianne C., Bonvillian, J. D., & Jordan, I. K. (1990). The effect of manual interference and reading level on deaf subjects' recall of word lists. *Applied Psycholinguistics, 11*, 185-199.
- Stokoe, W. C. Jr.(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Buffalo: University of Buffalo.
- Valli, C., & Lucas, C.(2000).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 C.: Gallaudet University.
- Yvette, J., Vincent de Paul, R., & Elaine, A.(1996a). Deaf people and libraries: Should there be special considerations? Part 1: traditional sesrvices. *New Library World, 97.1125*, 12-21.
- Yvette, J., Vincent de Paul, R., & Elaine, A.(1996b). Deaf people and libraries-should there be special consideration? Part 2: mate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New Library World, 97.1126*, 13.

## <부록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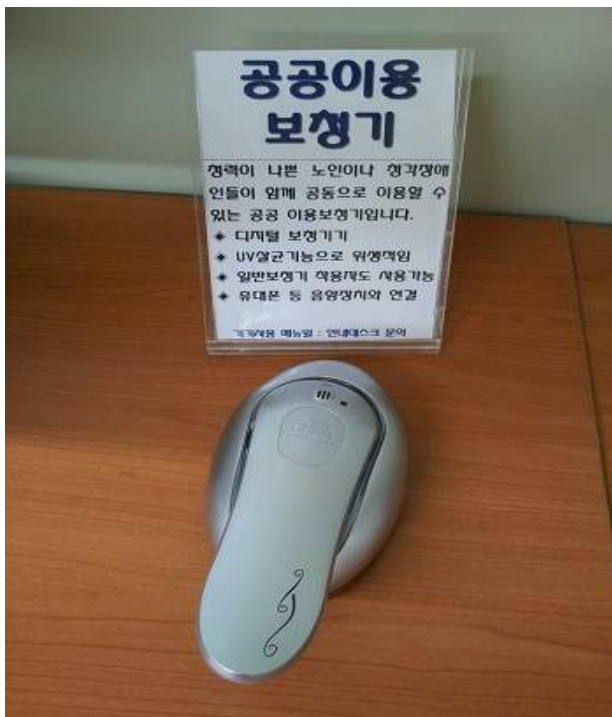
## <부록2> 청각장애인용 보청기기

### 1. 청각장애인용 보완의사소통기구 : 키즈 보이스



- 제품용도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도구
- 사용방법: 키보드로 입력한 대화를 음성으로 들려주어 청각장애인의 대화지원이 가능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직업생활 등 풍부한 상황이 들어있어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그에 맞는 단어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

## 2. 공공이용 보청기



□ 제품용도 : 공공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보청기

□ 사용방법 : 기존에 귀에 넣어서 사용하는 보청기와 달리, 수화기를 사용하듯이 귀에 가져다대어 보청기로 사용함.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충전을 할 수 있고, 살균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3. 골전도 특수이어폰



- 제품용도 : 뼈의 진동을 통한 청각전달로 청력유지 및 청력보호용 이어폰
- 사용방법 : 기존 이어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 제품개수 : 5개
- 제품정보 : Ex-2601

### 4. 영상 전화기



## 5. 소리 증폭 전화기



□ 제품용도 : 텔레코일이 내장된 증폭 전화기로서 청자에게 명료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청기 사용자가 전화사용 시 배경소음과 피드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 사용방법 : 기존 전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보청기를 T모드로 전환하여 사용  
FM시스템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6. DAI연결 FM 수신기



- 제품용도 : 개인용 귀걸이형 보청기와 연결하여 증폭
- 사용방법 : 개인용 귀걸이형 보청기의 foot 쪽에 연결  
인공와우(CI)와도 연결 가능

## 7. 교육용 무선 적외선 음향 시스템



- 제품용도 : 인공와우와 (집단)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소리 증폭
- 사용방법 : 일반 음향시스템과 동일  
TV, 라디오, 컴퓨터 등 다양한 음향시설과 호환이 가능

## 8. 적외선 청취 보조 시스템



- 제품용도 : 자유음장에서의 소리 증폭
- 사용방법 : 음원을 무선 헤드셋 수신기로 전달

## 9. 휴대형 개인 소리 증폭 장치



- 제품용도 : 스틱 마이크 형태의 휴대형 개인 음성 증폭 장치로서 의사소통 보조기기
- 사용방법 :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절하고 마이크를 음원 방향으로 위치시킴  
M/T 설정을 바꾸어 전화 통화 시 텔레코일 모드로 변경 사용

### <부록3> 농아인협회 주소록

기관명	주소	전화	대표자
중앙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02-461-2261~2	변승일
서울특별시협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2-11 엘림넷빌딩 3, 5층	02-323-4996	문병길
용산구지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16-3번지 3층	02-706-8367	황중호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41-11 남산점터 2층	02-3789-3270	임승택
성동구지부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16 (마장동)	02-2299-3338/3374	이석인
강서구지부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96 세신그린코아빌딩815호	02-3665-4474	김용학
관악구지부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660-4 5층	02-865-4466	김재중
노원구지부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584-1 삼창타워프라자 2층	02-931-6107/6103	이상현
성북구지부	서울시 성북구 돈암1동 49-2번지 2층	02-922-7892/7896	박정자
강남구지부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86-7 대화빌딩 402호	02-451-6798	임택운
서초구지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23길 17(서초동) 서초명달공원 경로당내	02-575-5120	안영희
강북구지부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17-24 경일빌딩 3층	02-990-0872~3	박태호
구로구지부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6-4 선경오피스텔 1413호	02-865-1077	박상원
도봉구지부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100-30 덕송빌딩 302호	02-900-2331	김삼열
중랑구지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9-4 삼일빌딩 5층	02-2208-1084	김정환
영등포구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2번지 재원빌딩5층	02-6404-4291 02-2631-4291	최정희
송파구지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2 3층	02-424-3323	석승모
은평구지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6-11 1층	02-358-7051	직무대행: 김정숙
동대문구지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9-37 대화빌딩 3층 301호	02-962-5798	한인숙
금천구지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5 대하빌딩 302호	02-891-8301	김태순
동작구지부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1동 232-165 B01	02-815-7750	조준호
종로구지부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97-1 경산빌딩 4층 403호	02-730-5563	기원삼
양천구지부	서울시양천구신월동504-12가인빌딩3층	02-2691-9060	한승호
마포구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11-1 2층	02-707-1062~3	이두세
광진구지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8-18(아차산로 347)	02-454-3888	석철민
강동구지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11-26 101호	02-488-3754	유재성
부산광역시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775-59 한원빌딩 5층	051-635-3746	직무대행: 박상호
북구지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2-35	051-337-3940	임상택
금정구지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13-3	051-513-6350	이광호
동구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43-12번지	051-468-7895	-
수영구지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744-1번지	051-759-9344	김강국
서구지부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3가 4-16번지 2층	051-244-9770	신상길
사하구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52-26		
대구광역시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42-8 명덕빌딩 4층	053-623-9929	박노진
달서구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3동 1583-5번지 3층	053-633-6902	임병영

수성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561-4 지하철 범어역 B3	053-753-0654	김청심
동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175-11	053-939-2365	예병관
인천광역시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26-3 인천시사회복지관 610호	032-882-2776	조남규
강화지부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읍 신문리 10-10 강화군장애인 복지회관 2층	032-934-6778	조재규
광주광역시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 1-23번지 5층	062-351-2634~5	강복원
광산구지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 798-10번지 3층	062-941-7761	정연
북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49-14 3층	062-525-2635	정영길
서구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2-16번지 2층	062-375-0645	김상완
남구지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3번지 2층		김봉진
대전광역시협회	대전광역시동구 삼성동272-9번지 은호빌딩 501호	042-673-1518	지교하
서구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39번지 시티빌3차 224호	042-488-1041	설 실
대덕지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증리동 106-8	042-633-0032	배재경
중구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0-12번지 동양빌딩 401호	042-581-0143	이동준
유성지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85-2	042-822-6642	박종희
울산광역시협회	울산광역시남구거마로134번길17국제빌딩4층	052-265-0144	조계남
경기도협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37번길9 (제일빌딩3층)	031-252-6420/6402 /6408	채태기
고양시지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627번길 15-7번 (일산동)장애인지원센터3층	031-968-0792/0797	이숙례
과천시지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보훈종합회관211호)	02-504-1141	김동규
광명시지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8번길 1304동 207호	02-892-1388	김상만
광주시지부	경기도광주시역동로78 2층	031-768-3293	안철운
구리시지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0번길 22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3층	031-565-4579	허남희
군포시지부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9 경원빌딩8층	031-392-3996/3992	백학기
김포시지부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	031-983-9643	이선범
남양주시지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25 태성프라자 2층 1호	031-575-5445/5647	최성균
동두천시지부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74	031-865-6678	황도원
부천시지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39번길 7-20	032-328-5017~8	주기호
성남시지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306호 (수진동제일프라자)	031-747-8572	김목영
수원시지부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442번길 28(연무동) 수원시재활복지회관 3층	031-254-0036~7	정종호
시흥시지부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4길 17	031-315-3251	정성희
안산시지부	경기도 안산시 광덕대로 154	031-482-9097	김문경
안성시지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51번길 11(봉남동)	031-677-5403~4	박상덕
안양시지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4번길 44	031-466-1123 031-444-1123	이강원
양주시지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27번길 37-3	031-826-0414/3414	김정수
양평군지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14-1	031-774-6289/6366	주인숙
여주군지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향교로 30-7	031-886-0554	김원경

연천군지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골로53번길 16-1 3층	031-834-3050	권일석
오산시지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15 종합운동장 36호	031-377-7133	김미옥
용인시지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용문로146 2층	031-337-0991~2	이영식
의왕시지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6 한국빌딩 402호	031-459-8595	박미애
의정부시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85번길 6-19	031-829-4311 031-877-2757	어성용
이천시지부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별관 부악관 203호	031-631-5626 031-635-4626	김종호
파주시지부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시청로25 광우프라자 306호	031-945-3351	이동영
평택시지부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2번길 41 (합정동)	031-657-2283	이준호
포천시지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44 3층	031-531-8876 031-534-8876	유인기
하남시지부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복지관2층)	031-791-5512/5538	허옥
화성시지부	화성시봉담읍상봉길21 2층202호	031-297-4218	차종우
강원도협회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727-3, 5층	033-243-8744,5	이상용
춘천시지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38-1	033-252-9056/244-1474	박영철
원주시지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03-4, 3층	033-743-3913,5	장재식
강릉시지부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898-21, 201호	033-642-0432	김종만
동해시지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376-17, 2층	033-535-8205	정희섭
태백시지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 2층	033-553-4817	이현도
속초시지부	강원도 속초시 밤골7길 66호(교동 942-1)	033-632-3884 033-636-0453	박대환
삼척시지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59-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202호	033-573-5431	권순남
홍천군지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의회길 90(희망리149-2)	033-432-196~,2	함영인
횡성군지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5-3 횡성군장애인회관 1층	033-344-0442	정원영
영월군지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6반 902-5, 2층	033-374-0822	고희정
평창군지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4-9895	조성두
철원군지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8리 712-1, 2층	033-455-1422	한건섭
화천군지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2-15번지, 2층	033-441-2587	함종훈
고성군지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1번지	033-681-5830	최석찬
양양군지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5	033-673-9874	김재경
정선군지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녹송4길 71	033-563-0609	전성우
충청북도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01호	043-233-5618	이재만
청주시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41-1	043-264-0603	이성희
충주시지부	충북 충주시 호암동 185-4 충주시장애인복지관	043-852-8553	유석철
제천시지부	충북 제천시 서부동 622 남도명가 2층	043-642-7331	신석균
옥천지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0-1 옥천군장애인회관 102호	043-732-4556	강대식
보은지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58-6	043-544-6909	임원빈
단양지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사회복지회관 2층	043-421-8385	김기선
괴산지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99-2	043-833-2454	임종면

진천지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 진천군사회단체회관 2층	043-533-4710	김진영
충청남도협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27 리전프라자 2층	041-522-2214,6	한영희
공주시지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 공주시장애인복지센터 202호	041-881-1457	김의영
금산군지부	충남금산군금성면양전리68-9다락원내장애인복지집1층	041-754-0898	유영국
논산시지부	논산시 취암동 1043-14 1층(구보건소)	041-736-4759	김상삼
당진시지부	충남 당진시 서부로 139(채운동, 당진2동 주민센터2층)	041-355-4812	김신성
보령시지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618-9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202호	041-936-8005	김은숙
부여군지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13(부여군재활센터 내)	041-836-8270 041-835-8274	이양기
서산시지부	충남 서산시 동문동 311-22 에덴빌딩3층	665-3023	김두희
서천군지부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18번지 4층	041-953-0980	김기남
아산시지부	충남 아산시 온천동 77-4번지 2층	041-544-8962	김정길
세종특별자치시 농아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시내8길 55 2층	044-864-9946,8	김성원 (협회장)
예산군지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041-335-0664	배왕준
천안시지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33-7 용현빌딩 3층	041-558-1562/1564	한미자
청양군지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	041-942-4562~3	김영준
태안군지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1리 698-3 3층	041-674-9124	고재록
홍성군지부	충남 홍성군홍성읍옥암리62-8번지홍성군장애인복지관별 관2층	041-632-6706~7	김기현
전라북도협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94-8(신봉4길 11) 성 원빌딩5층	063-228-1804	문현성
전주시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43-9 호남빌딩 2층 (기린 대로 302)	063-273-4498	송재승
익산시지부	전북 익산시 남중동 2가 206-23 (익산대로 30길 11-1)	063-855-6520	유순기
군산시지부	전북 군산시 영화동 14-3 2층 (구영2길 43)	063-462-0221	김두옥
김제시지부	전북 김제시 요촌동 141-8 (동서8길 52)	063-543-9590	이양우
남원시지부	전북 남원시 동충동 199-9 2층 (광한북로 94-13)	063-632-7008	이형노
정읍시지부	전북 정읍시 상동 282번지 (벚꽃로 492)	063-537-6560	정기영
부안군지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08-4 (소금샘길 23)	063-581-2631	이점남
고창군지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20 (월곡 14길 19) 군민 복지회관 내	063-561-2053	최희수
진안군지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9-1 구 보건소 2층 (진무 로 1181-5)	063-433-8803	이용원
완주군지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936-3 (봉동중앙로 181)	063-263-9363	노동현
순창군지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18 (순창5길 7)	063-652-5784	김태영
전라남도협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용해동) 종원빌딩 5층	061-278-2165	전재선
목포시지부	전남 목포시 산정로 21번길 9(동명동)	061-242-2165	김대성
순천시지부	전남 순천시 청사 1길 8(저전동)	061-742-1754	김정희
나주시지부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97-11번지	061-333-9003	문영균
강진군지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4길 15	061-433-6730	이점봉
보성군지부	전남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17	061-853-1073	김민수

영광군지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9 2층	061-352-6644	황막동
여수시지부	전남 여수시 중앙로39(충무동) 동아빌딩 3층	061-666-6747	오영택
진도군지부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82-1, 2층	061-543-4834	이판영
해남군지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사무소길 1번지 평화빌딩 2층	061-537-4004	정찰하
무안군지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38-6	061-452-6378	이 관
광양시지부	전남 광양시 사동로 83(중동)	061-793-3114	백성룡
고흥군지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신계학림길41 장애인복지관 2층	061-833-2006	강성태
곡성군지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763-5	전화없음	
신안군지부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171-9	전화없음	최병찬
장흥군지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87	전화없음	손정준
완도군지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10-58	전화없음	정영수
경상북도협회	경북 구미시 원평1동 1041-14번지, 3층	054-451-4494	이종학
구미시지부	경북 구미시 구평동 449-4번지 구평종합프라자 C동 204호	054-451-9226	도철연
경산시지부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8-12 3층	054-811-9422~3	김봉열
포항시지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45-4번지 3층	054-274-9980	김병균
안동시지부	안동시 옥야동 321-3번지 3층	054-853-9740	김화섭
영주시지부	경북영주시영주1동32-15, 2층	054-634-3611	최기철
청도군지부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300-12번지 장애인복지회 관내 1층	054-372-7915	권희숙
영천시지부	경북 영천시 망정3길 10-11번지 (망정동 207-1번지)	054-331-0350/0352	서동일
경주시지부	경북 경주시 서부동 2-30번지, 3층	054-741-2840	정태운
김천시지부	경북 김천시 남산동 11-3번지, 2층	054-434-6181	최길수
문경시지부	경북 문경시 신흥로 127 (점촌동) 2층	054-554-2257	김영주
상주시지부	경북 상주시 상서문로 52번지 2층	054-535-6311	임병론
의성군지부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1-6번지 2층	054-833-7377	강동열
청송군지부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504-110	054-874-0056	정응식
영덕군지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4번지(2층)	054-734-4408	이동락
칠곡군지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111 3층 (석전리 533-1)	054-972-0420/5555/9720	이영균
고령군지부	경북 고령군 고령읍 양릉로 47 3층	054-956-5592	김용택
봉화군지부	경북 봉화군 거촌로 14 , 2층	054-674-3611	김재한
영양군지부	경북영양군영양읍석영로1419 영양KT3층	054-682-0040	김태연
군위군지부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70-8	054-383-0075	박동택
울진군지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02-23	054-781-0085	전수기
예천군지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1-7	011-9979-3861	서석철
성주군지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542-5, 2층	010-4036-6443	김미진
울릉군지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1길 100	010-2008-7308	배미정
경상남도협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동 22-5 신일빌딩 3층	055-252-8885/8809	김선임
거제시지부	경남 거제시 고현동 158-1 거제시공공청사 4층 404호	055-633-5982	정동수
거창군지부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04-4번지 1층	055-944-2971	윤성열

고성군지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71-21 2F	055-674-3565	김현태
김해시지부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 김해시장애인복지관 3층	055-322-0807	윤동현
남해군지부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96-2 한아름센터 내	055-864-8111	김동일
밀양시지부	경남 밀양시 중앙로 218 종합사회복지관 1층	055-356-7154	천형기
사천시지부	경남 사천시 노룡동 624-1 2층	055-835-2826	김영배
산청군지부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361번길12번 문화예술회관 1층	055-973-6369	민영판
양산시지부	경남 양산시 북안남 5길 15	055-388-8722	김창섭
진주시지부	경남 진주시 남강로 659번길4(5층)	055-742-4873	김진성
창녕군지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75(술정리) 2층	055-533-0701	강복남
창원시지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0(중앙동) 공성상가 4층 34호	055-275-7418 055-275-7419	박인순
창원시마산지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28 (합성동) 3층 302호	055-253-2671 055-253-2672	이수만
창원시진해지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531번지 3층	055-544-0079 055-544-0479	이현옥
통영시지부	경남 통영시 무전동 441-1번지 2층	055-649-4787	정창열
하동군지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1563-6 종합사회복지관3층	055-882-5042	염종인
함안군지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77-5	055-583-1132	권상화
제주특별자치도 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1633번지 3층	064-743-3920	박춘근
제주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660번지 3층	064-757-2120	직무대행: 김종호
서귀포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581-3	064-733-6810	고영희

#### <부록4> 한국농아인복지선교회 주소록

교회명	교역자	교회주소	E-mail
영락농인교회	손천식 목사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27	schk55@hanmail.net
소망농인교회	이일 목사	인천 남구 송의 3동 62-8	deaflee21@daum.net
고촌농아인교회	곽호범 목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28번지	kwak9117@hanmail.net
지구촌영농선교회	김영복 목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한성목화아파트 131-703	ybkk3712@hanmail.net
부산농아교회	채왕식 목사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92-241(3층)	signerl@hanmail.net
영등포농교회	이호구 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376	lhk3323@hanmail.net
부천농아교회	노관수 목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59번길 22 (기동교회내선교관 5층)	ngs917@hanmail.net
영광농아교회	김예환 목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58	jesus6007@hanmail.net
경주농아인교회	조부희 목사	경주 경주시 사정동 95번지	chohooi777@hanmail.net
호남농아인교회	최석진 목사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9-59	timothy12@hanmail.net
밀양농아인교회	천형기 목사	경남 밀양시 중앙로(내이동) 송정B 302호	cheon973@hanmail.net
안산손말교회	채희천 목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 065-5 지하	chae125@hotmail.com
용인은혜농인교회	고덕인 목사	경기도 기흥구 구갈동 595 (우성메디피 9층)	deaflove@nate.com
빛고을천국농인교회	고윤명 목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 554-13 1층	ymka322@hanmail.net
예닮교회	최원석 목사	경남 창원군 대합면 도개2길 40번	roml1308@hanmail.net
예닮교회	최영덕 전도사	경남 창원군 대합면 도개2길 40번	
송탄에바다농아교회	배재만 전도사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6-3번지	45babo@hanmail.net
밀알농아인교회	송상민 전도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원로 359, 217동 2301호(코오롱하늘채 23차)	ssm7217@hanmail.net
남서울은혜교회농아부	이준 전도사	서울시 강남구 수서 750-1	deaf0416@gmail.net
광은농아교회	심생보 전도사		
빛고을천국농인교회	이주선 전도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 554-13 1층	
-	박현준 전도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대주@ 104-203호	phi945@hanmail.net
-	유종목 전도사		
이천농아교회	조성호 전도사		
워싱턴농인교회	황창호 목사	hwang-kdm@hanmail.net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강철해 목사	2775 Chandler Grove Dr. Buford, GA 30519	chulkang@adelphia.net
방글라데시	조상희 선교사	sanghee@altruists.org	
터키	임금희 선교사	khrimmoon@hanmail.net	
필리핀 농아인교회	강승호 목사	Baliwag Deaf Church Concepcion Baliwag., Bulacan, Philippines	door-kang@hanmail.net

#### <부록4> 청각장애 특수학교 주소록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농학교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03	02-724-7905	www.seoulnong.sc.kr
서울삼성학교	서울 동작구 양녕로 30길 (19-4)	02-823-7430	www.samsung.sc.kr
서울애화학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솔매로 52길 31호	02-987-5161	www.aewha.sc.kr
한국구화학교	서울 강동구 고덕로 295-5	02-428-0873	www.kuhwa.sc.kr
부산배화학교	부산 수영구 연수로 310번길 73	051-760-2500	www.baehwa.sc.kr
부산구화학교	부산 남구 수영로 123번길 54	051-642-7100	www.pskuhwa.sc.kr
대구영화학교	대구 남구 성당로 50길 33	053-628-6672	www.younghwa.sc.kr
인천성동학교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0	032-524-3545	www.sd.sc.kr
메아리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갯안 1길 8	052-295-8286	www.meary.sc.kr
수원서광학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0번지	031-258-7613	www.seokwang.sc.kr
에바다학교	경기 평택시 진위면 하북 4길 129-23	031-611-9343	www.ebada.sc.kr
한우리학교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 243	031-352-3090	www.hwr.sc.kr
춘천계성학교	강원 춘천시 후만로 24번길 45	033-256-4651	www.kds76.sc.kr
충주성심학교	충북 충주시 봉현로 261번지	043-852-1557	www.sungsim.sc.kr
전주선화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9	063-220-0522	www.sunhwa.sc.kr
소림학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7	061-462-5532	www.sorim.sc.jue.kr

#### <부록5> 농아인복지관 주소록

지역	복지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212-128	02-821-0880	http://www.sori saem.net/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	02-3156-6699	www.sdeaf.org
서울	청음회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50	02-556-3493	<a href="http://www.chungeum.or.kr">www.chungeum.or.kr</a>
대구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30-17	053-527-0350	<a href="http://www.withwith.or.kr">www.withwith.or.kr</a>
제주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1633	064-711-9094	deafwel.or.kr/

<부록6> 프로그램 배너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 시범 운영 프로젝트

## 수화로 책을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수화대면낭독서비스  
**일시** 2013. 10. 1 ~ 11. 30  
**참가대상** 청각장애 학생 및 성인

요일 및 시간	담당	제공방식	대상
화,수,목 오후 2-5시	농통역사	1주 전 예약	중고등학생 및 성인
토요일 오전 10-12시		1일 1-2명	
금,토 오후 2-5시	청인통역사	원칙	대학생 및 성인

**장소** 수화영상실 (서울도서관 1층 장애인자료실)  
**제공목적** 한국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서비스  
 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0506-864-9663(문자)  
**(문의)** [light229@naver.com](mailto:light229@naver.com)(이메일)  
 070-7947-8883(영상전화)중에 하나 골라서 접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수화와 함께 아는 도서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화 기초과정을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수화와 함께 가을을 느껴보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한기열 수화통역사

한국외대, 강남대 수화강의  
(현)나사렛대 수화통역 강사

- 일 시** 2013. 9. 13 ~ 11. 29  
매주 금요일 19:00 ~ 20:30
- 참가대상** 수화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장 소**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교육목적** 수화강습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및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원봉사자로 양성합니다.
- 신청방법** 02-2133-0263(전화)로 접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원 3명 미만시 개강 되지 않습니다.
- 문의**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 02-2133-0263

농인과 함께 하는

## 한 여름에 떠나는 도서관 여행

- 장소 : 사서 교육장
- 대상 : 청각장애 성인
- 목적 : 서울도서관의 이해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도서관 이용법 익히기
- 시간 : 2013. 8. 22 오후 13:00~14:20
- 신청기간 : 2013. 8.13~8.20
- 신청방법 : 070-7947-8883 (수화영상전화)로 접수  
- 수화영상전화 접수 시간 : 10:00~ 19:00



➤ 일정

	시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1부	13:00 - 13:40	사서교육장	스마트폰을 사용한 전자도서관 이용법	신청접수
2부	13:40 - 14:20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의 역사와 이용안내	신청접수

- 문의 : 장애인열람실 02-2133-0263 수화영상전화 070-7947-8883



관심사 중심의 감성 & 취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  
그것이 바로 스타일이다.

	일 시	주요 내용
1	14:00 ~ 14:40	PPT를 이용한 강좌
2	14:40 ~ 15:30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셀프 스타일링 시범



**대 상**

청각장애 성인

**일 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장 소**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신청방법**

수화영상전화)070-7947-8883로 신청

**문 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장애인열람실  
전화)02-22133-0263  
영상전화)070-7947-8883

#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

## 1. 수화대면상담서비스

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한국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해서 읽어줍니다.

- 시간: 10월 1일 ~ 11월 30일 (1주 전 예약, 1일 1-2명 원칙)

중고등학생 및 성인 : 화,수,목 오후 2-5시, 토요일 오전 10-12시

대학생 및 성인 : 금,토 오후 2-5시

## 2.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격통역을 통해 사서와 의사소통하여 필요한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소: 서울도서관 안내 데스크 혹은 대출 데스크

## 3. 도서관이용안내 수화콘텐츠 탑재

회원증만들기, 대출 및 반납, 전자자료 이용방법, 시설안내 등 공간안내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수화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4. 수화번역도서 확충

일반 인쇄 도서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복지대학교 제작 수화번역도서 배치 및 장기 대여를 통해

한국어-수화 혼용 도서(청각장애인 대체도서, Two-Way Book for the Deaf) 시범 제공

## 5. 농인 통역사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및 접근 활성화를 위해 농인 통역사 배치

- 장소: 서울도서관 1층 장애인자료실 안내데스크

- 시간: 9월부터 12월초까지 화~금 오전 10:00 - 19:00

### 서울도서관 위치

지아철 1, 2호선 시청역 하차,  
1호선 외부출입구 5번  
서울광장으로 나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 신청방법 (문의도 동일)

문자 (0506-864-9663)  
수화영상전화(070-7947-8883)  
이메일 (light229@naver.com)

# 농인을 위한 서울도서관 환경조성

## 수화번역도서 확충



일반 인쇄 도서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복지대학교 제작 수화번역도서 배치 및 장기 대여를 통해 한국어-수화 혼용 도서 (청각장애인 대체도서, Two-Way Book for theDeaf) 시범 제공

## IT기술을 활용한 수화서비스 진행



### -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격통역을 통해 사서와 의사소통하여 필요한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울도서관 안내 데스크 혹은 대출 데스크에서 이용 가능)

### - 도서관이용안내 수화콘텐츠 탑재

도서관 이용법(회원증 만들기, 대출 및 반납, 전자자료 이용방법, 시설안내 등)과 공간 안내도 수화로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수화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



## 농인 통역사



도서관 이용 및 접근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에 농인 통역사 배치

2013년 9월부터 12월초까지  
화 ~ 금 오전 10 : 00 - 19 : 00

문의

02 2133 0263(전화)  
070 7947 8883(영상전화)